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인류학석사학위논문

자해하는 청소년의  
자조(自助)적 유대

- 트위터 “자해계” 사례를 중심으로 -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신 경 준

# 자해하는 청소년의 자조(自助)적 유대

- 트위터 “자해계” 사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재 석

이 논문을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신 경 준

신경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_\_\_\_\_ 권숙인

부위원장 \_\_\_\_\_ 김재석

위 원 \_\_\_\_\_ 김효진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자해 청소년 집단의 트윗 분석을 통해서 규범적 담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자해 청소년들 사이의 유대와, 이를 통한 자해 청소년의 대안적인 생존 방식을 탐구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우선 학술 자료에 대한 담론분석 방법을 통하여 청소년 자해를 관리하는 지식 담론의 역사적이며 현재적인 지형을 그리고자 하였다. 이어서 자해 청소년이 트위터에서 집단적으로 정체성을 표현하는 장소인 “자해계”에서 이루어지는 화행(speech act)인 트윗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자해계가 형성과 되는 과정과, 자해 청소년이 자해계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호 돌봄을 교환하는 자조적인 집단을 이루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학술 담론에서 청소년 자해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비행의 일환으로 재현되었으며, 자해 청소년은 계도의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 자해를 주제로 하는 연구의 대상은 “비행 집단”으로 특정되었다. 한편 2000년대에는 자해라는 결과에 관한 원인을 찾는 것이 연구의 주된 조류를 이룬다. 이 시기 자해는 비행이라기보다는 한층 가치중립적인 “문제행동”의 일환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방법론상에서는 여전히 특정한 “부적응” 집단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000년대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담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청소년이 사회의 미래를 표상하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존재로 파악되기 시작한 변화를 반영한다. 이처럼 청소년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면서, 2010년대 들어서 현재까지는 병리적 현상으로서의 자해를 예방·치료하고자 하는 전방위적 관리망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지식 담론의 관점이 집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해 연구의 대상은 과거 문제가 되는 특정 집단으로부터 예비적 자해자로 간주되는 청소년 전체 일반으로 변화하며, 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물로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의 조류가 등장하였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 “자해 유병률”이라는 양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통계적으로 자해자의 비율을 파악하게 된 것은 자해가 특수 집단의 현상에서 일반적 병리 현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유병률이라는 양적 파악에 따라오는 것은 사적 차원에서의 자해에 대한 치료·상담 등 대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시기 청소년 자해를 양적 파악과 사적 처치를 결합한 학내 전수검사를 통해 파악하고, 자해 청소년에 대한 개인적 상담체제

구축을 통해 청소년 자해 현상을 개별화하는 과정이 정책화되었다.

청소년 자해를 둘러싼 지식 담론의 지층과 담론을 물질화하는 정책적 장치에 대한 검토에 이어서, 청소년 자해자들이 자해계의 트윗 방식을 통한 정체성 형성을 통해 이러한 장치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관계적 성격을 조명하였다. 자해계의 자해와 우울에 관한 트윗은 트위터 친구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시간에 집중되며, 청소년 자해자들은 이를 통해 “마음에 들어요”와 “멘션”으로 이루어지는 공감의 의례에 참여한다. 여기서 자해계는 우울에 대한 시적 글쓰기와 자해 사진을 아름답게 연출하는 미학적 표현을 통한 예술적인 실천으로서의 고통 발화를 양식화한다. 이러한 예술적 실천은 일종의 비체(abject)로서 자해자가 내포하는 ‘무질서’와 ‘추함’의 관념을 ‘미’의 영역으로 역전시키는 제의(祭儀)적 장면이다. 또한 자해계는 자신을 소개하는 트윗에 자퇴 여부, 음주 흡연 여부 등을 표시하고, 통원 치료 여부, 정신 병리의 이름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등 규범적 담론을 굴절하여 트위터 정체성을 구축한다. 이와 같은 굴절을 통한 지식 담론의 재맥락화는 규범 위반이 가져오는 낙인적 효과를 탈각한다. 자해와 우울에 대한 공감의 의례와 제의로서의 예술적 실천, 그리고 규범적 담론을 전용(轉用)한 정체성의 구축은 비체적 존재로서 자해계가 나름의 질서와 문화적 발화 양식을 구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해계가 집단으로 결속하는 방식은 자해계와 트위터 내의 타이용자 사이의 반복적인 갈등상황과 자해계 집단의 내적 규범의 위반하는 구성원을 축출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자해계의 자해 관련 트윗이 남에게 보이기 식의 가짜 자해라는 의견에 맞서는 “패션자해” 갈등, 자해 사진 등을 타인이 볼 수 있게 트윗하면 안 된다는 “자해전시” 갈등은 자해계가 외부와 경계를 설정하는 동시에 내부적 공동 의식을 형성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자해계에 대한 성애적 접근을 거부·차단하는 집단적인 발화와, 자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에 대한 집단적인 제재는 자해계 집단 내의 도덕규범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도 그러한 규범을 재생산하는 방식을 이룬다.

자해계는 이렇게 구축하는 집단성을 바탕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그에 대한 위로를 서로 교환하는 자조적인 유대를 형성한다. 자해 청소년은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대인 관계 형성의 가능성과 치료 기관 등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적이기에, 자해계라는 대안적인 자아 및 집단적인 유대를 형성하여 이러한 제한을 극복한다. 자해계 사이에는 의사나 상담사와 같이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권위적 해석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상호 돌봄은 보다 수평적이며 즉각적이다. 또한 학

내 전수 검사 및 상담 기관, 병원이라는 관리 장치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이들 장치에 대한 상이한 태도와 행동 양식을 정렬한다.

이는 자해계가 공개적으로 자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청소년 자해를 양산·영속화하고, 청소년 “모방 성향”으로 인해 자해가 “전염”되기 때문에 트위터 등 SNS 시스템 상의 제재와 정책적 대처를 통하여 자해계 현상을 일소해야한다는 의견과 다르다. 오히려 자해계는 자해 청소년을 둘러싼 담론과 담론이 구성하는 장치가 포착하지 못하는 대안적인 생존의 방식이다. 담론과 장치에 의하여 타자로 구성되는 자해 청소년은 수동적인 관리 대상에서 서로 유대하는 역동적인 자해계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자해계와 담론·장치와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비체적 존재가 대안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공간과 발화 양식을 구축해가는 모습을 그리고자 하였다.

**주요어** : 자해, 청소년, 트위터, 담론, 비체

**학 번** : 2017-23777

# 목 차

제 I 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 질문 .....	1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4
1) 이론적 배경 .....	4
2) 선행연구 검토 .....	15
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	20
제 II 장 청소년 자해자를 다루는 지식의 지층 .....	25
1. 관리대상으로서의 청소년 .....	26
1) 자해라는 비행, 도덕적 판단 .....	28
2) 자해원인의 진단과 가정의 책임 .....	32
3) 청소년 담론의 창궐, 치료·예방·정책의 그물 .....	35
2. 양적인 병리 개념과 개체화된 치료라는 체계 .....	41
1) 자해라는 병리와 양적인 파악 .....	42
2) 장애에 귀속되는 자해의 원인 .....	46
3. 소결 .....	50
제 III 장 자해의 장(場), 트위터와 고통의 연출법 .....	52
1. 트위터와 자해의 장 구축 .....	52
2. “자해러”와 “자해계”의 형성 과정 .....	62
3. 자해 트윗의 방식 .....	67
1) 발화의 시점(時點)과 공감의 의례 .....	68
2) 우울과 자해에 관한 예술적 실천 .....	72
4. 청소년 규범과 정신 의학의 전용(轉用) .....	81

제 IV 장 대안적 자조(自助) 유대의 형성 .....	85
1. 집단의 경계선 설정 .....	85
1) “패션자해”와 “진정한” 고통 .....	86
2) 자해가 전시냐?: 자해 전시 논쟁 .....	94
3) 여성 환대와 남성 배척 .....	100
2. 자해의 ‘규칙’과 상호 돌봄 나누기 .....	103
1) ‘적절한’ 자해에 관한 집단 내부 규범 .....	104
2) 위로하고 호소하는 유대 .....	110
 제 V 장 결론 .....	 120
 참고문헌 .....	 124
Abstract .....	132

## 사 진 목 차

[사진 1] 자해 연출에 대한 인스타그램의 조치 .....	54
[사진 2]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대하여 의견 보내기 .....	55
[사진 3] 트위터에서 “자해계”를 검색한 결과 .....	58
[사진 4] 트위터 운영원칙 위반으로 인한 계정 잠금 처리 ..	59
[사진 5] 자해 상처와 검은 매니큐어를 바른 손 .....	76
[사진 6] 피부색과 피의 채도 대비를 살린 자해 사진 .....	76
[사진 7]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욕조에 퍼지는 사진 .....	77
[사진 8] 상처에 피가 맺힌 자해 사진 .....	78
[사진 9] 약물 자해를 예고하는 사진 .....	78

# 제 I 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 질문

자해로 손상된 몸은 정신병의 기표다. 자해가 병리의 기표로 작용하기에 자해흔 노출 관리의 실패로 일상생활에서 자해 경험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그는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된다. 그 ‘문제’를 목도한 사람은 자해자가 비정상적이며, 건강한 삶에서 심각하게 이탈하여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는다. 다시 말해, 자해흔을 목격하는 이는 비록 그 문제, ‘비정상’ 혹은 병리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을지라도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자해자는 문제적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 자해를 관리해야 한다. 자해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자해자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곤란이 나타나는데, 자해자는 상황에 따라 특별한 관리·통제의 대상이 되거나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 기존 인간관계에서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청소년의 경우,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를 스스로 선택하여 형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이면서도 신체적인 고통을 타인과 나누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따라서 자해하는 청소년들은 몸과 마음의 고통을 은폐한다. 자해는 은폐되기 때문에 자해 관련 전문 기관에 의하여 그 규모나 양상이 제대로 포착되기 어려우며, 자해자는 표현을 듣거나 보아 줄 상대방이 없는 고통의 표현을 이어간다. 이렇듯 자해는 상대방이 없는 비명이자 은폐되어야 할 표지이기에, 자해를 하는 이들은 손상된 몸과 마음을 사적 차원에서 돌보아야 했으며, 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거나 상담을 받는 식의 처치를 구해야 했다.

본 연구는 일단의 청소년 자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처럼 개인적 사건으로 여겨지는 자해를 소통의 방식으로, 집단을 이루는 기반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더 이상 자해를 숨기지 않으며 손상된 몸과 마음을 토대로 연대한다. 연구자는 이렇게 자해가 공유되는 온라인 공간으로 트위터에 주목한다. 트위터에서 자해자들은 본인들을 자해하

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자해러” 혹은 자해하는 트위터 계정 이용자라는 의미에서 “자해계”라 자칭한다. 주로 청소년, 혹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한 일부로 이루어져있는 “자해러” 혹은 “자해계”(이하 “자해계”로 통칭)<sup>1)</sup>는 자신들의 자해 경험과 우울한 감정을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집단을 이룬다. 자해계 집단은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자해나 우울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통 발화를 행함으로써 상호 소통을 하며 위로와 격려의 트윗을 주고받는다.

이처럼 트위터를 통해 형성된 청소년의 온라인 자해 집단은 지켜보는 의학·심리 전문가와 언론에 불안을 일으켰고, 이들은 끊임없이 청소년 자해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sup>2)</sup>. 공개적으로 자해를 하는 집단을 마주한 전문가들은 청소년 자해가 “대유행”하며 “전염병”처럼 확산하는 “심리사회적 재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한다<sup>3)</sup>. 특히 이렇게 자해를 공유하는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은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무게를 더한다.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자 우리의 미래를 표상하는 집단이기에, 청소년 자해 집단은 이들을 바라보는 전문가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들에게 서둘러 조치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상기시킨다<sup>4)</sup>. 그러나 전문가나 언론의 이러한 불안이 무색하게, 자해가 이루어지는 장(場)인 트위터에서 여전히 자해계는 자해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자해 자료 공유에 대한 SNS 운영사의 방침이 서서히 생겨나고 학교에서는 청소년 자해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지만, 자해계는 자해를 통해 형성한 집단에서 서로 간의 교류를 지속한다.

본 연구는 트위터에서 자해가 공유되는 현상을 SNS 규제 등을 통해서 긴급하게 해결하여야 한다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입장과 거리를 둔다. 자해를 숨겨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통념과 달리, 연구자는 자해계가 자해 경험을 공개적으로 나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어떻게 경험을 발화

1) 자해계가 아닌 트위터 이용자를 “타이용자”라고 지칭하도록 한다.

2) 예를 들어 『EBS NEWS』, “〈스쿨리포트〉 청소년 사이에서 번지는 ‘SNS 자해 인증’”(한인희), 2018. 10. 23일자.

3) 『한겨레』, “‘자해계’ 운영하는 ‘자해러’ 아시나요?”(이재호), 2018. 11. 12일자.

4) 『조선일보』, “‘자해(自害)’ 가르치고 배우는 청소년들...인증샷 넘쳐나는 SNS”(김우영), 2019. 5. 12일자.

하고 상호 소통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해계 집단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더 나아가 자해계가 자해를 개인화하는 기존의 지식 담론을 전용(轉用)하고 전문지식이 형성한 관리 체계에 저항하며 생존하는 방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질문을 통해 병리적 존재로 간주되는 자해 청소년들이 형성하는 집단적 발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기존 질서를 굴절하여 활용하거나 재맥락화하는지를 분석한다.

1)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자해를 인식하는 방식은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자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리 장치를 만들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학술 담론의 역사적 지층을 탐색함으로써 자해 인식이 쌓여온 결들을 읽어내고자 한다. 또한 어떻게 그러한 인식이 제도적 장치들을 창출해내었는가를 계보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살펴본다. 자해에 대한 인식과 자해 관리 장치에 대한 독해를 통해서 자해계가 어떻게 지식 담론을 전용하고 담론이 창출한 장치에 저항하는지 분석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2) 트위터 자해계의 연원은 어떠한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 자해자가 대안적 정체성으로서 자해계를 구축하는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구축 과정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 인식과 관계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자해계가 청소년·정신의학의 담론을 활용하여 자신의 자아를 자해 연출의 방식으로 재맥락화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그 과정에서 건강과 고통, 아름다움과 추함의 구도를 교란하는 장면을 살펴본다.

3) 자해계 집단 내부와 집단 외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 자해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집단으로서 결속하며, 이러한 결속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 이에 대한 답을 통해 자해계가 외부와의 경계를 설정하면서 내부적 결속을 이루고 내적인 규범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유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자해라는 공통의 고통을 나누고 보듬는 자해계 집단을 그리면서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간의 유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존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1) 이론적 배경

#### (1) 푸코와 광기 구획의 역사

본 연구에서는 자해에 대해 형성된 인식 축적을 푸코(Foucault)가 『광기의 역사』에서 보여준 광기의 지층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을 빌려와 추적하며, 청소년 자해에 대한 관리 체계 망의 구축 과정을 『성의 역사』에서의 계보학적 접근을 통해서 분석한다. 자해와 자해계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이 자해에 관한 지식이 어떻게 생산적 권력의 효과로써 자해자를 조건 지어왔는지를 조명하는 데 있다면, 푸코의 고고학적 접근과 계보학적 접근이 본 연구와 연결되는 지점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푸코는 『광기의 역사』에서, 근대 이후의 광기에 대한 복합적인 인식은 단순히 하나의 시기에 독립하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누적된 의미들의 지층이라는 역사적인 연원을 지닌다고 주장한다(푸코 2003a). 광기를 과학적 혹은 정신 의학이라는 담론을 경유하여 판단, 인식하는 근대 시기 이전의 과거의 궤적을 따라가면 그 광기의 의미가 축적된 결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푸코는 광기와 광인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고고학적 방법론을 취하였다. 그는 한 시대의 광기에 대한 인식을 당대의 고문서를 통하여 읽어내고자 하였다. 푸코의 이러한 방법론은 어떤 주체로서 광인이 본질주의적인 광기를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오직 당대의 누적된 얇은 체계 속에서 규정된다는 숨겨진 인식론을 폭로한다.

푸코는 “이성이 광기를 소유하는 방식에 의거해서만 광기를 알아볼 뿐임에 따라, 비이성은 이성의 근거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성이 광기의 인식론적 테두리를 정립한다고 보았다(ibid: 548). 즉, 광기가 이성에 대한 부정향으로 규정되는 역사적 지층을 통해, 이성과 구분되는 인식론적이면서도 물리적인 구획인 수용소와 병원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푸코는

이 작업을 통해 근대 이후 정신의학적 체계가 광기와 광인의 의미를 규정하고 이들을 감금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조명하였다.

근대적 정신의학의 분류 체계 안으로 포섭·분류된 광기는 고전주의 시대에 광기와 함께 감금의 대상이었던 ‘비행’을 내포하는 관념을 간직한 채로 감금과 치료의 대상이 되었다. “광기는 죄와 인접하기 시작하고, 오늘날 정신병자가 운명으로 느끼고 의사가 본래적 진실로 파악하는 죄의식과 비이성의 연결관계는 아마 이 인접부에서 여러 세기에 걸쳐 맺어졌을 것이다”(ibid: 177). 현재까지 이르는 감금의 역사 속에서 광인은 단순하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반의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인식이 함께한다. 광인은 본인과 타인,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강제로 입원되며 관리된다.

광기에 대한 담론적·물리적 구획의 궤적을 추적하는 데에서 나아가 푸코는 『성의 역사』에서 담론의 주체에 대한 생산적 권력 장치에 관하여 논의한다. 푸코는 근대적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억압 가설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생산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의 권력은 생사여탈권과 같은 억압적 모습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근대 권력은 인구관리와 체계화를 통하여 이제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 “권력은 살해의 위협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떠맡음으로써 육체에까지 미치게 된다”(ibid: 162). 형벌로써 어떤 사람을 죽일 것인가라는 중세의 권력 작동 방식과는 달리, 근대의 권력은 의료체계 등을 통해 어떤 사람을 살릴지를 결정하고, 인간은 이와 같은 생산적 권력에 의하여 주체화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푸코는 저작에서 근대적 권력의 생산적 효과를 일컬어 “생체-권력”이라 명명한다(ibid: 159).

담론과 주체가 대면하는 행위의 지점에서 주체는 어떠한 방식으로 담론에 포섭되거나 반대로 담론을 변형해 내는가? 푸코의 『광기의 역사』와 『성의 역사』에서 제시하는 ‘담론’이라는 개념은 각각 전자의 작업에서는 특정한 (광기)공간의 구획으로, 후자의 작업에서는 주체를 권력의 망을 통해서 생산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두 작업에서는 구획과 권력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기에, ‘억압’에 항거하는 주의주의(主意主義,

voluntarism)적인 주체를 상정하지 않으면서도, 담론이 이러한 주체를 경유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형적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sup>5)</sup>

## (2) 담론에서 수행으로

푸코의 담론 및 주체에 대한 관점을 따랐을 때 지식이 어떻게 구체적인 주체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버틀러(Butler)가 『젠더 트러블』에서 전개한 수행성 이론이 유용하다. 이는 특히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자해계가 청소년 자해자를 둘러싼 담론적 조건이자 담론적 ‘자원’을 재전유하는 방식을 조명하는 데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데, 주의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주체 개념에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자해계가 지식 담론을 경유함으로써 권력의 작용을 폭로하고 이를 발화 수행의 토대로써 활용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버틀러는 수행성으로 담론이 어떻게 행위의 차원에서 현실화·물질화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개념적 도구를 제공했다. 버틀러에 의하면 규범적 이상은 주체의 반복되는 행위에 의하여 형성되며, 정상 규범은 다시금 주체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침함으로써 주체의 정체성을 주조한다. 그러나 수행자로서 주체는 단순히 규범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그 규범을 재생산하는 것이기에, 이 행위성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규범은 언제나 행위에 의하여 교란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버틀러는 푸코의 생산적 권력 개념을 받아들여 그의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주체화는 담론에 의한 예속화를 동반한다. “subject”라는 단어가

---

5) 한편, 근대의 생산적 권력과 그에 대한 주체의 저항 가능성에 대하여 그는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권력에 대해 결코 외부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ibid: 111). 권력은 주체를 주조하기에 주체는 그 권력 외부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기에 저항을 위해서는 편재하는 권력의 장치들과 그 버팀목과 같은 지점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푸코는 저항의 지점들이 권력이 작용하는 도처에 존재한다고 하지만, 담론의 외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예속화’와 ‘주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주체화는 그 자체로 권력적 담론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체는 자신을 조건 짓기 위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체계로서의 담론 속에 예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버틀러 2019). 여기서 버틀러는 푸코의 논의를 인용하며 주체화(subjectivation)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역설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주체의 존재조건과 주체의 욕망의 궤적을 제시하는 것으로 권력을 이해한다면[...]

” 담론은 우리의 존재조건이 된다 (ibid: 12).

이와 같은 생산적 권력에 의한 예속화와 주체화 안에서 주체는 어떠한 방식으로 저항 지점을 찾거나 저항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에서 이성애 규범적 주체, 즉 이원 젠더화된 이성애 주체의 생산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이 과정에서 담론과 주체 사이의 관계를 수행성 개념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버틀러는 말의 수행적 효과에 주목하여 젠더가 수행을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이론화한다. 즉, 젠더 수행성은 성/차에 어떠한 본질이 존재하고 이 본질적 차이가 사회화된 젠더의 표현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담론적 수행 그 자체가 젠더를 구성한다는 것을 뜻한다. 버틀러에 따르면 주체는 이미 모방된 젠더를 모방하는 수행을 통해 정상성을 획득해 간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수행성은 주체가 완전한 정상성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어떠한 이미지를 완전히 따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언제나 모방은 실패의 의미를 남기기 때문에 주체는 이미지로부터 조금씩 변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담론은 언제나 불완전한 정상 주체를 생산한다는 의미에 이를 수 있다(버틀러 2008). 또한, 규범을 수행하는 주체는 그 규범의 결을 이루고 있는 상징계적 또는 담론적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에 행위자를 경유하는 규범은 이 수행자의 활용 속에서 언제나 굴절될 가능성을 띤다.

본 연구에서는 푸코적 계보학의 토대 위에서 버틀러의 수행적 주체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활용하여 자해에 축적된 의미의 결들을 읽어내고, 자해 계로 특정되는 주체의 행위성을 통한 역동의 가능성을 찾는다. 제도 등 청소년 자해 관리의 역사적 연원을 조명하는 작업에는 “생체-권력” 장치의

전변을 추적하는 계보학적 입장을 주요하게 참조하며, 이러한 생체-권력 장치가 생산한 청소년 자해 담론을 자해계가 전용하는 과정에는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을 통해 저항의 가능성을 추적한다. 특히 청소년 자해 담론이 생산과 전용 과정을 거치면서 굴절되는 모습을 통해, 푸코의 광기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이 결여한 행위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여, 푸코 이론의 추상성이 지니는 비-정치적이라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 한다.

### (3) 무대 위 연기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

본 연구에서는 자해계가 트위터라는 무대 위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아를 연출하는 방식으로서 연기 또는 수행을 살펴보기 위하여 고프먼(Goffman)의 『자아연출의 사회학』에 등장하는 상황적 정의와 상황에 의한 자아·인상관리라는 관점을 빌리고자 한다. 이 저작에서 나타나는 무대·관객·연기라는 개념적 구도는 연기자로서의 개별적 자해계의 발화 수행이 자해계 집단이라는 관객과의 상호 소통 속에서 결정되며, 이러한 상황적 정의에 어긋나는 발화가 어떻게 다른 이용자라는 관객과의 관계를 변형시키는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고프먼의 『수용소』에서 등장하는 질서를 표상하는 “총체적 기관” 개념과 질서 체계 내에서 ‘손상된 자아’를 가진 이들이 대안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의 “2차 적응” 논의는 청소년 자해자가 자해계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푸코가 담론과 주체에 대한 거시적 논의를 펼쳤고, 버틀러는 이를 발전시켜 규범과 수행성이라는 일반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였다면, 고프먼은 한층 더 미시적 차원에서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고프먼은 개별적인 상황들과 그에 맞춰 행동하는 행위자가 자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행위자가 규범에 맞게 행동하고 그럼으로써 그의 자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버틀러의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은 고프먼의 연기(performance)와 만나는 지점이 있다. 규범 또는 어떤 상황적 정의에 알맞은 행위 양식은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수행에 의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고프먼의 상황적 자아라는 관점은 미시적이며 개별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주체가 행위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한 분석을 더욱 강조한다. 따라서 푸코가 체계에 저항하기 위해서 권력 장치의 결들을 읽어 내야 한다는 관점과 비교할 때, 고프먼은 행위자의 연기 또는 행동이 가져 오는 효과에 더욱 중점을 둔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버틀러가 푸코의 담론이라는 추상적 체계에 관하여 수행성 이론으로써 그 생산 기제를 밝혔다면, 고프먼은 행위가 규범에 의하여 단순히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미시적이며 개별적인 상황을 어떻게 형성·변형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행위가 가진 역동성에 주목하였다. 아래에서 고프먼의 ‘연기’와 ‘자아’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프먼의 『자아연출의 사회학』은 미시적 관점에서 무대와 연극, 그리고 배우의 연기라는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때에 따른 상황적인 자아를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고프먼 2016: 7). 고프먼에 의하면 상황적 자아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상관리의 기술’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상황 속의 행위자는 “[...] 자기가 의도한 대로 다른 이들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인상으로 자기를 표현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상황 정의(definition of situat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ibid: 14). 행위자는 특정한 사회적인 무대 위에서 배역을 맡아 연기를 하듯 자신의 관객을 대상으로 자아를 연출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역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또는 반복되는 유사한 상황에 따라 복수로 존재하고, 이러한 반복적인 연기는 타인과의 “사회관계”를 형성하게끔 한다(ibid: 28).

그러나 적절한 연기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황적인 도덕”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게 되고(ibid: 24), 그의 타인과의 유대 또는 사회적 관계는 위협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 개인이 배역 연기의 어느 한 부분에서 그릇된 인상을 보이면 관계 전체 또는 역할 전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ibid: 88). 이렇듯 상대방을 관객으로 하는 무대 위의 연기자가 인상관리에 실패하는 상황은 관객의 거부감을 일으키고 이때 다른 성격의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기도 한다. 무대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감에 따라 관객은 연

기자를 비난하거나 꾸짖을 수도 있고, 인상관리의 실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순조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창조되고 유지되던 작은 사회체계가 와해된다”(ibid: 304).

사회적인 접촉이라는 무대 혹은 미시적 구조는 각각 상황적으로 정의되고 연기에 의해 실현되며, 따라서 인간은 본질적이며 불변하는 단일한 자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관리 기술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상황적인 다수의 자아를 연기한다. 그리고 자아 인상 관리의 실패는 미시적 사회관계, 즉 상황을 변형시킨다. 행위자는 변형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상관리를 취하며, 이는 상황에 대한 수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으며 관계의 파국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고프먼의 이러한 논의는 타인과의 개별 상황 속에서 개인의 적절한 연기 또는 행위가 사회적 상호관계를 만들어간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 불린다.

이어서 고프먼은 자아의 인상 관리가 손상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총체적 기관”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자아를 관리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총체적 기관”이란 “[...] 내부적 포괄성의 정도가 매우 높아 인접한 기관들 사이에 불연속성이 초대되는 경우 [...] 그 기관들의 포괄성 또는 총체적 성격은 외부와의 사회적 접촉과 이탈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고프먼 2018: 16). 그리고 “...사람들을 구획 전체로 조직해서 관료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총체적 기관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는다(ibid: 19).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인간의 군집을 관리·통제하는 장소에서 인간은 자아를 보호하고 있던 “[...] 자기 긍정, 만족거리, 보호 방책들을 완전히 박탈당하”기에 자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ibid: 180).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상황에서 수용되어 있을지라도 ‘손상된’ 자아를 관리하고자 노력한다.

조직적 의무 부과에 따르는 “1차 적응”에 대비하여 고프먼은 “2차적 적응”이라는 용어를 제시한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2차 적응”이란 “[...] 조직 구성원이 승인되지 않은 수단을 채택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혹은 둘 다를 통해), 그의 의무(그가 해야 하고, 획득해야 하고, 되어야 하는 것)를 회피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관행적 조치를 의미한다”(ibid:

225). 수용자는 전면적 통제를 받아들이고 이에 맞추어 갈 수밖에 없는 “1차 적응” 가운데에서도, “2차 적응”을 통해 통제에 내재하는 틈을 찾아 개인적 자아를 지킬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규율의 허점을 발견해 이를 역이용하여 대안적이며 회복적인 자아를 형성해나가고자 노력한다.

고프먼은 총체적 기관의 권력 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행위자가 대안적인 자아를 형성하는지를 제시한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는 세계의 견고한 건축물에 의해 지탱된다. 그러나 우리의 사적 정체성은 종종 그 건축물의 틈새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프먼 2018: 365). 개인의 자아는 사회적 체계 속에서 형성이 되고 체계의 질서를 체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자아를 지키기 위하여 체계의 “틈새”를 찾아낸다. 행위자는 그럼으로써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적인 자아를 재조직화하기 위하여 분투한다. 고프먼은 조직적 권위와 질서에 대한 불복종은 자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동시에 어떠한 체계라는 조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위 양상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프먼의 논의는 푸코의 파놉티콘 개념이 갖는 구조 결정주의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ibid: 442). 푸코의 『감시와 처벌』 식으로 말한다면 감옥과 학교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 기관의 작용은 이를 수용하는 자에 가해지는 훈육적인 주체 형성 과정이다(푸코 2003b). 그렇기 때문에 푸코의 논의를 따라간다면 행위자는 어떻게 이러한 주체 형성 기제 또는 “포괄적인 정의”에 대항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이 지니는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에 더하여, 고프먼의 무대와 관객, 배우와 연기라는 구도를 통해 자해계의 행위와 상호 역동을 조명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트위터라는 무대 위에서 이용자 간의 상황적 정의에 따른 자해계의 발화, 상호작용, 자해계 집단의 내적 규범이 형성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자해계의 ‘적절한’ 인상관리로서 연기가 실패하는 경우 어떻게 그 상황이 변형되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적 체계 내에서 자아가 ‘손상된’ 자해자들이 자해계라는 대안적인 자아를 연출하고 재조직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4) 위험한 것과 비체(bject)

푸코의 담론, 버틀러의 규범적 이상, 고프먼의 총체적 기관이 칭하는 사회적 질서에서 이탈되어 “손상”되는 존재는 “정상” 사회라는 구조적·인식론적 틀 안과 밖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가? 본 논문에서는 건강 또는 정상성이라는 질서로부터 이탈되는 자해자의 위치와 자해계들의 기존 질서를 교란하는 집단적인 발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더글라스(Douglas)가 『순수와 위험』에서 고찰한 “오염”과 “위험” 개념 그리고 크리스테바(Kristeva)가 『공포의 권력』에서 개념화한 “비체” 개념을 도입한다. 체계는 자해자를 비체로 간주함으로써 자해자는 건강 또는 정상성이라는 질서에 대비되는 ‘무질서’한 존재로 파악된다. 무질서의 영역으로 밀려나는 자해계는 자신들의 비체됨을 예술적 실천으로 승화하고, 상호 유대를 통한 자조(自助)의 방법으로 생존해 나간다.

사회적 범주와 정상성을 창출해내는 기제에 대한 더글라스의 논의는 본 연구의 청소년 자해를 관리하고자 하는 체계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교에서 청소년 자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내고 이들을 관리하는 체계는 학교의 ‘건전한’ 질서를 다시금 세우는 방식이다. 더글라스는 “오염이 존재하는 곳에 반드시 체계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더글라스 1997: 69). 그는 다양한 원시 사회를 인류학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성경(Bible)을 분석함으로써, 불결과 오염은 체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오염과 불결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깨끗함 또는 성스러움과 오염의 관념은 단순히 인식 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상징 질서, 더 나아가 사회적 범주와 정상성을 창출해내는 내밀한 기초를 이룬다. 더글라스에 의하면 오염은 상징 체계 질서 내의 순수 또는 성스러운 것의 외연으로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오염은 질서의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질서는 물론 무질서를 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오염은 무질서를 의미하며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염은 위험하다.

더글라스는 성스러움과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다시금 바로잡는 것을 제의라고 설명한다. “오염을 배제하는 것은,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환경을 조직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다”(ibid: 23). 그러나 제의는 성스러운 질서의 체계를 재정비·재조직한다는 의미에서 단순히 종교적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근대 과학주의 시대에서도 이러한 제의 또는 의례는 반복된다. 위생학적 관점에서 균에 의한 감염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소독이나 청소 등의 행위도 이러한 제의의 방식 중 하나이다. 즉, 질서 또는 정상 체계로부터 오염을 제거하고 질서를 다시금 정렬하는 행위는 여전히 현대에도 반복하여 일어나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더글라스의 오염에 대한 사유는 질서와 무질서의 관계와 질서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이 될 수 있다(유제분 1996). 다시 말해 종교주의적인 사회나 과학주의적 사고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 모두에서 무엇이 깨끗하고 오염된 것인지를 가르는 것에 대한 고찰은 그 사회의 고유한 상징 체계, 정상성을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한다.

오염과 질서의 관계가 체계의 토대가 된다고 본다면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불결로서 오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움의 외연에 있는 추함, 건강의 부재로서 고통, 이성의 바깥에 있는 광기에 대해서도 질서와 무질서의 개념을 적용·유비할 수 있다. 아름다움, 이성, 건강에 대한 관념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의를 반복함으로써 다시금 선을 긋고 비정상성을 오염과 무질서의 영역으로 내몰아야 한다. 더글라스의 논의에서 무질서의 영역의 것들은 일방적으로 ‘정리’되기만 하는 것인가? 더글라스에 의하면 “공동체가 무질서한 개인에 의해 내부로부터 공격받는 경우, 이 같은 개인들은 처벌받고 전체적 입장에서 그 구조를 다시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 그 자체를 파괴할 가능성도 있다”(더글라스 1997: 222).

한편 비체(object)에 대한 논의는 구조 자체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것’에 대한 더글라스의 통찰에서 출발한다. 크리스테바는 “오염이란 ‘상징 체계’의 부산물”이기 때문에(크리스테바 2001: 109), “비체는 그 자체로서 혼란이나 더러움의 속성을 내재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과 질서 속에서 경계설정을 위반함으로써 혼란과 더러움의 위상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전혜은 2008: 31). 크리스테바는 더글라스의 오염에 대한 고찰을 이

어받아서 어떤 것이 오염된 것의 위치를 차지하는가와 그 위치의 의미를 논한다. 더러운 것이란 욕망의 대상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상징 체계의 바깥으로 내쳐져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체란 주체(subject)도 대상(object)도 아니다. 비체는 질서와 체계의 “한계”에 위치한다(크리스테바 2001: 113). “침·피·젖·소변·대변·눈물” 등은 육체 한계에서 흘러내린다(ibid: 114). 이렇게 몸 또는 주체의 경계에서 바깥으로 흘러 없어져야 하는 것이 비체의 성격을 나타낸다. 경계에서 흘러내리는 비체는 물질적 차원에서도, 그리고 인식론적 차원에서도 그 한계 설정을 노출한다.

비체의 위치에 있는 존재는 어떻게 질서를 위협하는가? 비체에는 “자신을 위협하는 것에 대항하는 존재의 격렬하고도 어렵פות한 반항이 있다”(크리스테바 2001: 25). 비체는 단순히 질서를 어기는 것이 아니다. 질서를 어기는 것은 질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대항하여 자신의 주체성을 세우는 것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비체는 “도덕을 알면서 그 자체를 부정한다”(ibid: 25). 주체가 질서를 세우는 ‘제의’는 비체를 경계 바깥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비체가 이미 주체의 영역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전혜은 2008). 질서의 영역에 내재하는 잠재적 비체를 품고 있는 주체는 반복적인 제의를 통해야만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주체는 항상 비체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다. 크리스테바의 말을 빌리자면 비체는 “동일성이나 체계와 질서를 교란”하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크리스테바 2001: 25). 비체는 주체의 상징 체계 재구축을 위하여 축출되지만 비체는 항상 그 한계 상에 존재하므로 주체는 항상 비체에 의하여 침입될 위협에 처한다(정연이 2019). 그렇다면 비체적 존재에 의한 교란은 어떻게 가능한가? 주체도 대상도 아닌 비체의 실천은 가능한 것인가? 크리스테바는 이에 대하여 상징계를 교란하는 시적인 글쓰기와 주체의 미의식을 전복하는 예술적 실천을 그 가능성으로 제시한다.

크리스테바의 비체 개념은 건강 관념에 관한 금기를 위반하면서 칼로 몸을 굶거나 먹어서는 안 될 과도한 약물들을 복용하는 자해계에 잘 작용된다. 파괴된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 약물의 뭉치를 아름답게 촬영하는 행위와 우울에 대한 시적 글쓰기는 비체적 존재의 예술적 실천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의’로서의 예술적 실천은 건강에 대비되는 비-건강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상징 체계의 재구축 행위로 볼 수 있다. 비체인 자해계가 자해를 일종의 예술적 실천으로 표현하는 양상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자는 자해계가 단지 의학적 심리상담이라는 사적 관리 체계에서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자해계는 더글라스적 제의를 통한 상징 체계의 재구축 과정을 구성하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유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함께 생존해 나가는 일종의 자조 집단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 2) 선행연구 검토

트위터에서 자해 경험을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본 연구는 SNS 전반과 자해 현상의 관계성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와 직접 연관된다. SNS는 2010년을 전후로 하여 대중화된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SNS를 통한 자해 현상이 나타난 것은 SNS가 충분히 대중화된 이후의 일이기에, SNS 매체인 트위터에서의 자해 현상을 다루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연구를 검토한다.

본 단락에서는 먼저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혹은 연령대에 구분이 없이 SNS에 나타나는 자해를 고찰하는 연구를 검토하여 SNS 자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현상적 특질을 파악한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청소년 자해의 양상 중 하나로서 SNS를 통한 자해 공유라는 측면을 조명하는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청소년과 SNS 자해의 연관성을 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는 SNS 자해를 통계 등을 통해 파악하는 양적·거시적 연구와 SNS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등에 관한 미시적 경험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연구에서 취하는 이러한 방법론상의 관점 또한 함께 검토한다.

### (1) SNS 자해 현상을 파악하는 연구

이수정(2019)은 SNS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SNS 이용 시간과 청소년의 우울경향 및 자해행동이 정적 상관관계를 이룬다고 보고, 청소년 또래문화의 특징인 친구 관계에 보이는 강한 애착과 이로 인한 비밀 공유와 모방 경향 등이 SNS에서의 자해 행동 증가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일상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성 청소년의 경우 남성 청소년에 비해 친한 친구와 상담하기를 선호하기에 SNS 중독 경향이 남성 청소년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이수정 2019). 이수정의 연구는 SNS와 청소년 자해의 상관관계를 양적 분석으로 밝혀냈으며, 성별·나이·우울·청소년의 고민 주제 등을 세부적으로 변인화하여 자해 경향 분석을 시도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아렌트·셰어·로머(Arendt·Scherr·Romer 2019)는 자해를 보여주는 행위가 주변인들의 자해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서 자해 콘텐츠에 노출된 이용자가 SNS 자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는 집단보다 자해 충동을 더 느끼거나 자해를 더 많이 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저자들은 통계적 조사를 통해 자해를 이미 고려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는 집단이 자해 콘텐츠에 노출됨으로써 자해 행위로 나아가는 수치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자해 콘텐츠와 실제 자해 행동 상관관계를 논하고, 실제로 자해가 이른바 ‘전염성’이 있는지 분석한다.

앞서 살펴본 두 연구가 SNS 전반과 자해 사이의 관계를 양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면, 미구엘 외(Miguel et al. 2017)는 개별 SNS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저자들은 대중적인 SNS 매체로 꼽히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텀블러에 올라오는 자해 관련 게시물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해 게시물의 등장 빈도와 게시물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무작위 시점으로 각 매체의 게시글을 10개씩, 총 6개월간 수집한 1,115개의 게시글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다.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은 자해 상처 등 시각 자료를 중심으로 하며 그와 함께 달린 텍스트의 내용은 부정적인 자기 평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트위터의 경우 자해를 단념하게끔 유도하는 글이나 심리적인 회복을 지향하는 게시물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SNS 매체의 성향과 작동 방식에 따라 SNS 자해 현상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점은, 트위터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진행과 분석에 주요한 참고점을 제공하였다.

레이비스·윈터(Lavis·Winter 2020)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뉴스 공유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을 연구 대상으로 온라인 공간에 대한 민족지 연구 및 SNS 이용자와의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저자들은 SNS 이용자 중 자해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위로를 나눔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찾으며, 심리상담 전문가나 의학적 전문지식 등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눈다고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연구대상자들이 단순히 병리화된 존재로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일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ibid 2020). 이 선행연구는 민족지 연구 등 인류학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인 경험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본 연구는 전문지식이라는 자원에 접근하는 자해계 집단 내의 상호관계뿐만 아니라, SNS 자해자 집단이 비-자해자 SNS 이용자나 의학 등 전문가 집단이 구성하는 건강 담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한편 힐튼(Hilton 2016)은 트위터 게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담론분석을 행하였다. 저자는 트윗 162개를 분석하여, 자해하는 사람들이 트위터상에서의 관계에 스스로 참여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나가면서 심리적 회복 효과를 얻고 장래에 대한 희망을 서로 나눈다고 밝힌다. 더불어 트위터에서 자해하는 사람들이 양가적인 상호관계를 만든다고 지적하는데, 이러한 자조적 조직이 나누는 회복의 감각은 자해를 평범한 행동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따라서 자해 행위를 영속화한다고 주장한다. 힐튼이 SNS 자해자 집단이 일종의 자조집단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연구현장으로서 트위터가 지니는 가치를 논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힐튼은 연구 현장으로서 트위터가 페이스북 등 여타 SNS와는 다른 점에 주목하였고, 특히 이용자가 특정한 단어나 문구를 검색함으로써 관련 트윗 전반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

템이 구축되어 있어 풍부한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성미·권경인(2019)은 인스타그램에서 자해와 관련된 게시물 6,000여 개를 대상으로 수집한 말뭉치 안에서 특정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와 그 단어들이 어떻게 엮이는지 파악함으로써 9개의 발화 테마를 뽑아내었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 인스타그램을 자해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파악하였고, 이 공간에서 활동하는 자해 경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상호관계 형성을 지향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한 SNS에 초점을 맞추어 자해 현상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연구의 목적인 임상 심리 상담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저자들은 인스타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삼게 된 동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SNS에서 일어나는 자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정한 SNS를 연구 현장으로 삼을 때, 그 매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으로서 어떤 점에서 적절한지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매체와 자해 현상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밝히려는 목적으로, 주로 텍스트로 발화하는 트위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끝으로 장운원(2020)은 20~30대 여성이 트위터에서 우울과 자해 경험을 공유하는 양상을 고찰하고, 이러한 공유 및 상호교류가 어떠한 정치적 가능성을 내포하는지 고찰하였다. 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니지만 장운원의 연구는 우울을 겪고 자해하는 이들이 진단 의학에 대하여 ‘페미니즘적 대항 서사’를 제기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자해계 연구에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특히 본 연구는 장운원이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자해로 고통을 폭로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즉, 고통 폭로의 정치적 가능성을 독해해 낸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해 사진을 통한 고통의 폭로가 가져오는 강한 정동(情動; affect) 정치의 가능성을 언급한 지점은 본 연구에서 다룬 미학화된 자해 사진 공유에서 정치적 의미를 찾는 데 참조할 수 있었다. 한편 트위터에

서 자해를 공유하는 이들이 반복적으로 자해를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의 순환회로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언급(ibid: 133)을 중시하여, 본 연구는 자해계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해 이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하였다.

## (2) 청소년 자해의 특징과 청소년 SNS 자해를 고찰한 연구

SNS 자해 현상을 다루는 연구의 또 다른 조류는 청소년 자해의 특징 중 하나로 SNS 자해를 분석한 연구들인데, 임경문 외(2020)의 연구는 청소년 자해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급할만하다. 이 연구는 1982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서 출판된 청소년 자해 현상에 대한 학술 자료의 경향을 분석하는데, 이 기간에 등장한 연구 주제, 연구방법론, 연구에서 나타나는 자해의 원인과 자해 방법 등을 정리함으로써 청소년 자해 연구가 어떤 접근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청소년의 자해 현상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조명한다. 이 연구는 최근 청소년의 자해 현상은 물론 대학생 연령층까지의 자해 현상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자해하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현상은 SNS 커뮤니티 내의 상호작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은폐되어 행해지던 자해 행동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과 연관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있는 과거의 학술 자료부터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을 총체적으로 조망·분석함으로써 후속 연구자의 자해 연구에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자도 해당 연구가 체계화한 자료를 참조하여 문헌 자료들을 재정리하는 토대로 활용하였다.

한편 손자영(2020)은 연구 대상을 여성 청소년으로 구체화하여 심층 면담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여성 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 요인과 이에서 비롯된 자해 현상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 양상을 분석하며, 자해자를 둘러싼 인간관계 속에서 자해의 의미를 읽어낸다. 특히 해당 연구는 본 연구와도 관련이 있는 SNS상에서의 자해 현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다루었는데, SNS 공간에서 자해하는 집단들 사이에 일종의 경쟁구도가 펼쳐진다고 분석하면서, 또래 집단 사이 자해의 ‘전염성’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치판

단을 잃고 자해행동이 강화”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ibid: 72). 손자영의 연구는 면담 등을 실시함에 있어 취약 집단인 자해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밝힘으로써 후속 연구에 참조점을 제공하였으며, 여성 청소년의 말과 경험을 직접 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성 청소년 자해 현상의 전반을 파악하려는 목적이었기에 SNS상의 자해 항목을 특정하여 자해 커뮤니티의 매체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데에까지 나가지는 않았다. 또한 자해 현상이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보다는 자해를 병리 현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한계를 보였다. 보다 미시적이며 입체적인 관점에서 자해의 의미를 도출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송원영(2020)은 자해 경험을 공유하는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자료를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오프라인상에서만 자해 경험을 공유하는 이들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자해 경험을 공유하는 이들을 포함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또래 문화의 일종으로서 자해를 공유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송원영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SNS에서도 자해를 공유하는 청소년들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현실의 부정적 반응을 피하여 새로운 의지처를 찾으려”, “이해와 공감의 장으로 SNS를 접근하며”, 이 과정에서 “자해가 초래하는 힘듦의 경중을 따지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ibid: 96). 송원영의 작업은 SNS에서 자해를 공유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통해 자해행위와 공유 과정이 지닌 구체적인 의미를 찾았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자해에 개입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송원영이 도출한 “또래”라는 의지처와 온라인 매체의 특성 등을 언급한 지점들을 참조하면서, 트위터 자해 공유가 갖는 특질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 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자해를 둘러싼 지식 담론의 역사적 전개를 보여주는 학술 자료와, 자해계의 정체성 형성, 자해계와 다른 트위터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자해계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트윗(텍스트와 사진)이다.

제Ⅱ장에서 분석할 국내 학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인터넷 학술 문헌 데이터베이스인 DBpia, RISS, Google Scholar를 활용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자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며, 검색 결과 중에서 “전자해도”, “훈민정음”이 포함된 자료를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한 문학 및 미술 등의 인문학 분야와 예술 분야에서 자해를 다루거나 자해를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록 제목에서 자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본문에서 부분적으로 자해를 다루는 자료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한 학술 자료 중 SNS와 자해를 직접 연관 지어 고찰하는 최근 학술 자료의 경우 선행연구로 분류하여 검토하였고, 이중 본문에서 분석할 의미가 있는 경우에 제Ⅱ장에서 다시 다루었다.

분석 대상 논문을 선별하고 범주화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분석에 앞서 수집한 자료가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1975년 자료부터 2021년 현재까지 출판된 자료를, 당대의 규범 질서와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시간 순으로 목록화하였다. 이후 자료가 문제 제기하는 방향이나 자료가 내포하는 주요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분류된 자료에서 주류적인 연구 동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논문을 선별하였다. 동시대의 주류적 동향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숫자이지만 새로운 조류를 예고하는 논문도 함께 선정하였다.

제Ⅲ장과 제Ⅳ장의 작성을 위해서는 트위터에서 적극적으로 자해 경험이나 자해 사진을 트윗하고 다른 이용자(타 자해계 또는 자해계가 아닌 타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자해계의 트윗을 수집하였다. 자해계가 아닌 이용자의 트윗 중에서도 자해계와 논쟁을 벌이거나 자해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트윗은 수집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트위터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자해계의 발화 양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수집 작업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이며, 이렇게 수집한 트윗의 작성일 범위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이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트위터 내의 상세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해”, “자해러”, “자해계”, “자해사진”, “자해러\_트친소”<sup>6)</sup>, “사혈”<sup>7)</sup>, “리스트컷”<sup>8)</sup>, “약물자해” 등의 단어를 검색하였고, 더불어 각 단어에 해시태그(#)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키워드를 설정하고 검색하였다. 또한 트위터 공간에서 전반적으로 화제를 일으킨 자해계 관련 키워드가 언급되는 경우, 논의의 중심이 되는 트윗과 이와 연관한 트윗을 조사하였다. 자해 관련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해에 관한 트윗과 연결되는 트윗 역시 수집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 공시적 관점에서 현상을 파악하는 접근 방법보다도 통시적 관점에서 자해계의 형성 과정, 사건의 전개, 정렬된 양식을 가지는 발화 방식을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트윗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여기서 수집한 500여 개의 트윗 중 75개의 트윗을 본문에서 도입하였으며, 사진의 경우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의 운영 시스템에 관한 사진 4개, 자해 관련 사진 5개로 총 9개의 사진을 본문에 도입하였다. 개별적 자해계의 특성보다는 이들의 트윗이 어떠한 공통적 양식을 띠는지에 중점을 두어 자료를 수집하였고, 트윗을 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본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트위터 이용자 전체에 공개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트윗만을 수집 및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자해계의 개별적 발화, 자해계 간의 집단적 상호작용, 자해계와 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등 미시적인 발화 수행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기에 양적 접근이 추구하는 통계적 객관성이나 균질성을 확보하는 접근은 적절한 방법론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도 트위터 자해계 집단의 전체적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수의 자해계는 복수의 계정을 가지면서, 때때로 활동을 개시하거나 중단하고, 다른 집단에

---

6) “트친소”란 “트위터 친구 소개”의 준말. 새롭게 트위터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올리는 트윗을 말한다. 제Ⅲ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7) “사혈” 자해란 혈관에 주삿바늘을 꽂아 피를 뽑아내는 방식의 자해를 뜻한다.

8) “리스트컷(wrist-cut)”이란 손목 등을 칼로 긁는 방식의 자해를 뜻한다.

서 활동하기 위해 계정의 정체성을 혼용하기도 하며, 계정을 휴면 처리하기도 한다. 또한 트위터 이용자들은 “공개 계정”과 “비공개 계정” 사이를 시시각각 오간다. 더불어 모든 자해계 계정을 해시태그나 검색어를 통해서 표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자해계의 모든 트윗에 “자해”나 관련 단어가 언급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군집의 경계가 느슨하고 유동적인 네트워크라는 트위터의 특징에 따라 양적 접근 또는 통계학적 파악보다도 개별 트윗들이 어떻게 엮이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더욱 적합하다고 보였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는 담론 분석을 활용하였다. 제Ⅱ장의 학술 자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푸코가 『광기의 역사』에서 광기의 구획과 내포하는 의미에 대한 역사적 지층을 파헤치는 고고학적 방법을 참조하였고, 이를 통해 자해에 축적되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자해 담론의 현실화 효과를 읽어내기 위하여 푸코가 『성의 역사』에서 제시하는 계보학적 접근을 취하여, 현재의 자해에 관하여 제도화·물질화된 장치들의 연원을 추적하는 분석법을 도입하였다. 홍정화(2013)의 육아휴직 정책 관련 담론분석과 서덕희(2003)가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의 조류를 이끈 조선일보의 기사와 논평의 담론적 효과를 분석한 작업의 예를 참조하여, 지식 담론이 어떻게 자해에 연인 정상성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제도화 등의 장치를 현실화하는지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해에 관한 학술 자료의 문제 제기 방식, 글쓴이의 분과 학문 소속 및 발행처, 분석에 동원되는 수사법과 개념어, 논문의 주장 등을 봄으로써 당대 사회의 규범적 요소, 즉 자해에 어떤 도덕적·당위적 가치 판단이 내포되었는지 파악하였다. 자해를 다루는 문헌이 어떠한 주요한 테마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해를 다루는 전체의 논문을 독해하였고, 시간에 따른 연구 방법론의 변화나 발행된 연구의 양적 증가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경문(2020)의 서지계량학적 분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수집한 텍스트와 사진을 분석하기 위해 보다 미시적인 관점을 취하였는데, 여기서 화용론적 접근과 화행이론적 접근을 활용하였다. 화용론적 접근이란 화자가 어떠한 전제에서 발화하고 있는지나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 발화의 함축적 의미를 읽어내는 작업이다 (박해광 2007).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트위터라는 담화의 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맥락에서 발화하는지에 중점을 두어 접근하였다. 또한 발화로서 트윗의 화행(speech act)적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맥락에 따라 진술문은 “어떠한 무언가”를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발화 행위로서 현실적 조건을 변화하는 수행적 효과를 가져온다(버틀러 2008). 본 연구에서는 트윗에 담긴 자해에 대한 경험이 단순하게 자해 경험을 진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발화 행위, 즉 화행으로서 불러오는 수행적 효과에 주목하였고, 이를 통해 트위터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독해하고자 하였다.

## II. 청소년 자해자를 다루는 지식의 지층

본 장에서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자해와 자해자를 다루는 학술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자해에 관한 지식 담론 지층과 지형을 그리며, 또한 이러한 지식 담론이 2021년 현재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창출하여 자해자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특히 이 장에서는 자해에 대해 형성된 인식 축적을 푸코(Foucault)가 『광기의 역사』에서 보여준 광기의 지층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을 빌려와 추적하며, 청소년 자해에 대한 관리 체계망의 구축 과정을 『성의 역사』에서의 계보학적 접근을 통해서 분석한다. 연구자의 자해와 자해계에 대한 관심은 자해에 관한 지식이 어떻게 생산적 권력의 효과로서 자해자를 조건 지어 왔는지를 조명하는 데 있다. 그리고 제Ⅲ장에서 이러한 자해에 관한 지식 담론의 현 지형 및 현실 제도 장치들이 어떻게 자해계 집단과 관계하는지를 검토한다.

연구자는 우선 청소년 자해 담론의 지층과 현재 지형의 구체적 모습을 자해 관련 논문을 시대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그리고자 한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의 자해 담론은 청소년 자해를 반사회성 또는 비행의 양상으로 다룬다. 이 시기를 거쳐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 자해 학술 담론은 본격적으로 자해의 원인을 가정환경이나 부적응의 문제 등으로 개별화시켜 탐색하는 논의로 이어지고, 그 원인에 따른 개별적 해결책을 처방한다. 그리고 2010년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 자해 담론은 자해 청소년의 규모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전염병”처럼 창궐하는 것으로 인지되는 청소년 자해에 대한 전방위적인 예방 정책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어서 연구자는 학술 담론이 어떻게 자해를 “유병률”이라는 양적 개념으로 파악하는지 살펴보고, 병리 체계를 통하여 자해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개인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조명한다. 특히 이러한 기제의 극단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연구 사례군인 장애인 자해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자해에 얽힌 구조적 문제를 개인화하여 해결책을 처방하는 체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자해 담론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을 통해, 본 연구는 자해를 다루는 학술

자료가 어떻게 현실에서 자해 현상을 구체화시키며 이를 다루는 지식-체계를 제도화하는가, 즉 청소년 자해를 양적으로 파악하는 담론과 자해를 예방·관리하고자 하는 담론이 어떻게 청소년 자해자를 인구통계학적으로 전수 검사하고 학내 상담 기관이라는 제도를 구축하였는지 검토한다.

## 1. 관리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청소년 자해를 연구한 학술 자료는 시대에 따라 연구대상인 청소년과 자해에 대한 관점이 변하는 모습과 그 인식이 축적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청소년 자해를 바라보는 관점은 부도덕한 것에서 부적응에서 비롯된 병리적 현상으로, 다시 치료의 대상이자 자해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이행한다. 물론 각 시기의 관점은 다른 관점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이 아니며, 이행의 과정에서 그 자취를 남긴다. 자해가 부도덕한 것 또는 금기라는 인식과 병리적 현상이라는 인식은 함께 축적되어 지금까지 공존한다.

학술 담론에서 자해하는 청소년이 연구 대상으로 처음 등장하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자해 청소년을 일탈하는 ‘비행 청소년’으로 묘사한다. 이 시기의 자료는 임상 의학이나 정신 의학 분야에서 발행한 소위 “객관적·과학적”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으며, 이러한 판단에서 자해는 비행의 한 양상으로 파악된다. 이후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자해하는 청소년이라는 연구대상은 ‘비행’청소년에서 ‘부적응’ 청소년으로 변화한다. 과거에는 청소년 자해를 일탈 ‘하는’ 비행 현상으로 파악하였다면, 2000년대부터 사회나 집단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자해 현상을 겪는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적응’이라는 인식은 점차 청소년을 인구통계학적으로 관리하는 범위로 확장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자해는 정신질환과 이상 심리라는 부적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며, 자해는 상담 기관이 예방하는 것으로, 병리치료 정책의 대상으로 대처해야 하는 현상이 된다.

자해를 인구통계학적 관리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현재의 관점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청소년 자해 연구의 규모가 시기의 흐름에 따라 확대되고 자해의 연구방법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인구학상으로 10대 중후반에 속하는 집단을 ‘청소년’으로 호명하고, 이러한 ‘청소년’ 집단에 대한 담론의 규모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청소년 자해 연구의 규모도 함께 성장한다<sup>9)</sup>.

청소년 자해연구에 대한 방법론적인 동향이 질적 연구방법에서 양적 연구방법으로 나아갔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학술 자료가 발견되는 초기에는 청소년 자해를 반사회적 개별 청소년을 계도해야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았다가 시기의 흐름에 따라 병리적인 문제 현상이자 진단해야 할 사례로서 파악한다. 양적 연구방법으로 대표되는 지식 담론의 시각은 청소년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인구통계학적 접근으로 이행한다. 자해하는 특정한 비행 집단을 계도의 대상으로 보는 시기에서 이제 청소년은 점차 미래를 담보하는 집단이자 특정한 방향으로 성장시켜야 하는 일반적 대상으로 변화한다. 이는 청소년 자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특수 집단에서 청소년 일반으로, 도덕적 판단 대상에서 관리할 대상으로 바뀐다는 점을 드러낸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청소년 시기별 논문 수와 개별 자료가 사용한 연구방법론은 아동·청소년 연구 동향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분류한 임경문 외(2020)의 연구틀을 참조하였다. 연구자는 이 틀을 따라 미성년 자해 관련 논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도덕적 판단의 시기, 2000년대를 진단의 시기,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예방과 관리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

9) “2000년 이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양적, 질적연구가 미흡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질적연구가 8편(11.8%), 양적 연구가 8편(11.8%)로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5년부터 2019년에 질적 연구는 주춤하나 양적 연구는 29편(42.6%)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양적연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임경문 외 2020: 724).

## 1) 자해라는 비행, 도덕적 판단

“최근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질적으로도 조폭화, 흉악화, 저연령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Measey(1972)는 비행과 문신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문신을 새긴 자는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Eilenberg(1961)는 소년원에 수용 중인 비행 청소년들 중에서 손톱물어뜯기(nail biting)가 매우 의미있게 높은 비율로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비행과 자해행위간의 관계성을 밝혀 청소년 비행의 예방책과 선도책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다.” (임현택·민병근 1982: 47-48).

위 인용은 1980년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한 논문인 “비행청소년의 자해행위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sup>10)</sup>의 머리말에서 따온 것이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 비행의 대한 예방책과 선도책을 강구하기”에 있다고 밝히고, 소년원에 수용된 “비행청소년”들이 지닌 비행 성향과 자해율 등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다. 여기서 연구자들은 연구의 목적이 자해 자체를 예방하고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에 대응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즉, 이 연구는 자해를 비행의 한 양상이자 징표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비행에는 선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당화한다.

또한 이 자료에서 자해와 비행청소년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소년원 바깥에 있는 “일반적”인 청소년의 자해율과 소년원에 수용된 “비행청소년”의 자해율 비교를 생략한 채 진행하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즉,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하면서도 오로지 소년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

10) 학술자료의 제목이나 발행기관이 분석의 대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경우 본문에 이를 표기하였다.

행함으로써 “일반적” 청소년을 자해하는 소년원 청소년과 별개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오로지 자해와 비행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강하게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앙대부설한국의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진행한 “청소년 음주와 자해와의 관계 분석”(이길홍 외 1986)이나 임현택·민병근(1982)의 논문은 청소년 자해를 비행의 하위 항목으로 간주되는 “난잡한 성행위”나 음주라는, 당대 도덕관념과 충돌하는 행위와 연관 짓는다(ibid: 53). 흥미로운 것은 언급한 논문이 모두 의학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자해 자체를 임상병리적 현상으로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의학 분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자해를 생리적·정신적 질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자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할 조짐이 나타나는데, 이 시기부터 임상적 관점에서 비행은 병리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미성년자의 자해를 직접적 연구 대상으로 삼지는 않지만, 군대에 입대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문신 및 자해 행위에 관한 연구(I)”(정상근 외 1991)에서 그 변화의 조짐을 읽을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문신과 자해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상관관계는 “문신행위는 그 자체가 불건전성의 반영일 수 있”는데, “자해행위에 의한 자해흔이 있는 사람들은 성격장애가 많으며”, “적응장애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ibid: 291). 특히 이 연구가 자해흔이 있는 군입대 20대 초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만 20세에 인접한 연구 대상자는 주로 입대 전 미성년 시기에 문신과 자해의 행위를 행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위에서 인용한 임현택·민병근의 1982년 논문과도 동일하게 자해와 비행(문신)의 상관성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을 살펴보면 문신과 자해를 비행의 표지로 이해를 하면서도 반사회성을 “성격장애”와 “적응장애” 등 장애라는 표현과 반복하여 연결한다. 물론 여기서 후자의 “적응장애”는 군복무를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뜻이지만, 1982년에 나타난 “범죄”라는 표현에 비해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다.

또한 1990년대에 등장하는 논문의 제목을 보면 병리와 비행의 관점이 공존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신경정신의학 분과에서 이루어진 “반복 자해 청소년의 통각 역치”(박제민 1991)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연구원들이 진행한 “비행청소년 반복 자해군과 비자해군간의 통각내성치에 대한 Naloxone 효과 차이”(김철권·조진석·변윤희 1992), 경산대학교 아동·청소년 학부의 부교수가 저술한 “가출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행동”(한상철 1999)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김철권 외(1992)가 저술한 논문은 “장애”, “질환”과 자해의 일단의 연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 전제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전제 하에 먼저 이들을 구분해 내는 작업을 진행한 후, 구분된 비행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첫날에 먼저 신체질환이나 행동장애 혹은 인격장애 이외의 정신과적 질환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년 감별원 내의 면담실에서 개별적으로 정신과적 면담을 하였다. [...] 비행청소년군을 다시 자해여부로 나누어 반복자해군과 비자해 비행청소년군을 비교한 결과 [...] 불안척도에서는 반복자해군이 비자해 비행청소년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우울척도에 있어서는 양군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김철권 외 1992: 768-770).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비행과 자해의 관계를 사회학적, 심리학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는데, 아래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자해행동과 성격특성간 관계: 문신·자상·담뱃불 상흔을 중심으로”라는 연구가 대표적이다(박홍삼 1999). 특히 이 시기 비행청소년이라는 개념이 1980년대 의학 분과와 다르게 광의의 사회과학 분과 연구에서 등장한다는 데에서, 비행과 자해 관계에 대한 관심이 사회학과 심리학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학 논문이 비행 자체를 개념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자해와 비행의 상관관계를 논했다면, 이때 등장한 학술 자료는 비행 개념과 관련한 논의를 펼치면서 비행과 자해가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

는지 밝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비행청소년(非行靑少年)들의 성격이 반사회적(反社會的) 성향(性向)과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자해행동(自害行動)이나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반사회적(反社會的)이고 폭발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해행동(自害行動)과 비행(非行) 및 성격(性格)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示唆)하고 있다.” (박홍삼 1999: 19)

“비행청소년은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연령층에 있는 소년에 의한 범법행위(犯法行爲), 혹은 그 연령층에는 허용되지 않는 규범위반(規範違反) 행위를 한 청소년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 이와 같이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규범으로부터의 이탈행위 즉, 제도화된 제 기대를 깨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나 소속집단에 대한 부적응행위로 정의된다.”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박홍삼 1999: 8-9)

위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행 개념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정립되고 있다. 물론 1990년대 후반에도 여전히 자해 청소년은 비행·부도덕과 연관되고 있다. 그러나 비행을 “제도화된 제 기대를 깨는 행위”로,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나 소속집단에 대한 부적응행위로” 정의하는 문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해를 점차 비행과 연관된 사회적이면서도 동시에 심리학적인 병리 현상으로 주목하기도 한다.

또한 이 시기부터 자해 청소년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연령층에 있는 소년”으로서 파악되기 시작하며, 자해는 점차 심리적·정신적인 개체의 문제로 변화한다. 즉 이전 시기 연구 담론이 청소년 자해를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문신 등과 같은 매우 가시적

인 어떤 것과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찾으려 했다면, 이 시기부터 청소년 자해는 임상병리적 문제와의 인과관계를 찾아야 하는 대상으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자해와 임상병리적 문제와의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시도는 2000년대에 들어서 사적 영역인 가정불화와 실패한 양육 등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되며, 이는 자해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 2) 자해원인의 진단과 가정의 책임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이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반사회적 일탈 및 범죄행위와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도덕적, 관습적, 규범적 기준을 위반하는 행동,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해가 되는 행동 및 심리적인 부적응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가족 환경 요인 및 개인 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찬란 2005: 21)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자료에서 청소년 자해와 비행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으려는 시도가 나타났다면,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시작되는 인과관계 짓기의 시도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된다. 상관관계 찾기에서 인과관계 짓기로의 변화는, 규범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비행과 자해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시도로부터 자해 그 자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파악하는 관점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시기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는데, 이 주제와 관련하여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발행된 학술 자료는 8건으로, 1982년부터 1999년까지 18년간 발행된 7건에 비하여 약 4배로 증가하였던 것이다(임경문 외 2020: 721).

2000년대에는 청소년 자해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 “문제행동”이라는 범주를 중점에 둔 연구가 등장한다. 학술 담론에서 자해는 이제 단지 비행(delinquency)의 표지 보다는 “문제행동”(problematic behavior)이라는 범주 내의 한 양태가 되며, 사회적 “부적

응”의 원인을 미시적이며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찾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자해를 도덕의 영역과는 또 다른 ‘문제’ 영역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도 당시에는 주요하고 독립적인 주제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위의 인용에서처럼 가정이나 가족에서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는 장면에서는 “반사회성”과 “부적응”이라는 의미가 함께 나타난다. 이하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범위에서 RISS를 통해 “청소년”, “자해”로 학위논문을 검색하였을 때 등장하는 자료의 제목이다. 장애인과 성인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를 제외한 9개의 논문 중, 5개의 학위 논문이 문제행동으로서 자해를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연관 짓는다.

“남자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개인 및 가족관련 변인”

가정관리학과, (조윤정 2000)

“청소년의 부모상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아동복지학과, (최진혜 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정교육학과, (2002 노정화)

“가정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애착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범죄심리전공, (이춘근 2005)

“가족 환경 요인 및 개인 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정교육전공, (서찬란 2005)

제목에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인 “문제행동”이 자해를 포괄하는 주요 주제이다. 특히 조윤정은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는 변수를 우울이나 충동성 등 “개인적 변인”과 “가족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조윤정 2000: 10-14). 특히 가족적 변인을 소개하는 항목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심리적 가족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Mussen, 1984; Patterson 1984),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관계

를 이해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ibid: 14). 여기서 자해를 비행보다는 비교적 가치중립적이지만 도덕적 판단이 내재된 용어인 “문제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해를 반사회성의 표지로 간주하고 이에 집중하는 데로부터, 점차 올바른 주체를 키우는 역할을 띤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으로 초점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연구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행동의 양상을 비율·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양적 방법론을 이용하는 연구가 폭증할 것임을 예고한다. 예를 들어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양계민·황순택 2008)는 아직 자해를 완전한 독립 주제로 연구하지는 않지만, 양적 접근을 통해 자해와 부적응의 양상을 논의하고 있다.

“새터민 청소년들이 [...]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을 나타낼 경우 [...]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에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비합법적인 행동방식에 개입되어 새터민 청소년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양계민·황순택 2008: 334)

““적응곤란의 사례의 빈도” 항목에서 검사결과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검사를 실시한 H중고등학교 학생 74명 중 약 35%에 해당하는 26명이 정서적 적응 문제, 충동조절 문제, 타해 또는 자해 위험성, 또는 대인관계 부적응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서 [...]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ibid: 349)

“[...] 새터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역량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며, 사회적 낙오자 집단으로 전락하여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사회형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할 것이다” (ibid: 353)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제반의 문제행동은 비행의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지만, 문제행동 범주 내의 청소년 자해는 부적응이라는 개념에 속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자해는 ‘풍속을 저해하는 비행’이기 때문에 문제시되어야 하며, 자해를 비롯한 청소년 문제는 사회건강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 사회의 미래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자해는 올바르게 사회의 역량으로 성장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야 하는 존재인 청소년의 문제의 일종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렇게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라는 문제 설정으로 향하는 것은 자해자 개개인에 대한 연구보다도 거시적 차원에서 자해를 파악하는 양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와 같은 양적·거시적 관점에 집중되는 연구의 방향성은 2010년대로 이어져 학교나 상담기관, 병원 등 갖가지 기관에서 자해에 일반적 대책을 고안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건강한 미래 사회를 이루기 위한 자원으로서의 청소년”은 “건전”하고 “문제”없이 성장해야 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청소년 자해 문제는 거시적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을 예고한다.

### 3) 청소년 담론의 창궐, 치료·예방·정책의 그물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금기시 되고 있으며 정신 병리학적 관점에서 주로 고찰된다.” (이동훈·양미진·김수리 2010: 3).

“청소년의 자해 동기는 다양하며 자해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약물의존, 섭식장애, 낮은 자존감이나 완벽주의와 같은 심리적 특성을 포함하여 과거 심리적 외상이나 학대경험이 종종 자해와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rtinson, 2002).” - 청소년상담연구 (이동훈 외 2010: 6)

2010년부터는 자해 치료와 예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시기로 진입한다. 자해는 이제 (비행·문제행동을) ‘하다’에서 (건강하지) ‘못하다’로 변화한다. ‘비(非)’에서 ‘부(不)’로 자해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는 모습은 자해를 적극적 행위에서 소극적 현상으로 달리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건강이 ‘부재’하다가 뜻하는 바에서 나타나듯, 청소년의 생활 환경을 점검하고 자해 집단을 심리적 차원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문제로 떠오른다. 이제 특정하게 구별되는 문제 행동 집단인 자해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 현상 일반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자해자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집계하여 파악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행은 자해가 사회적 금기라는 인식과 완전한 결별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의 첫 번째 인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해를 건강의 부재로 간주하는 입장과 “오늘날에도 여전히 금기시되는” 위반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중첩되어 있다.

또한 이 시기에 들어서 청소년 자해 담론이 크게 증가한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연구 동향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청소년 자해 연구가 53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인데, 이는 1982년부터 2019년까지 저술된 전체 연구 68건의 77.9%를 차지한다(임경문 외 2020: 723). 이렇게 연구가 양적으로 확대된 이유를 단순히 실제 자해 청소년의 수와 비율이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sup>11)</sup>, 그 보다는 청소년 연구 규모가 자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sup>12)</sup>. 특히 이는 이 시기 학술적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 담론이 확대되었다는 점과 궤를 같이한다.

11) 통계청에서 자해 청소년의 수와 인구 비율을 성인과 분리하여 본격적으로 다루어 수치화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해 청소년의 비율 증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1986년의 논문에서 징병 검사 과정 중 나타난 자해 경험률은 8.1%이다(박경찬 1986: 818).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서 교육부를 통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자해 경험률은 2018년 7.9%, 고등학생 6.4%로, 위 1980년대 수치와 차이를 비교 참조할 수 있다(『한겨레21』, “[단독] 중고생 7만여명 “자해 경험” … 우리 아이는 상관없다고요?”(이재호·전정윤), 2018. 11. 10일자).

12) 예를 들어 ‘청소년 인권’, ‘청소년 도박’, ‘청소년을 대상 연구에 대한 메타적 접근’ 등을 주제로 하는 논문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각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학술 자료의 증가는 2010년 부근에서 발생한다(이은주·이미나 2019; 박은경·정원미·전종설 2019; 진혜민·공정원 2018).

청소년 상담의 폭발적 증가를 통해 청소년 문제가 다양화되었고, 이는 이 문제를 세부화하여 관찰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다양화·세분화는 자해를 다루는 입장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전 시기에서 자해를 문제행동의 하위 항목의 일종으로만 다뤘다면, 이 시기에는 자해 그 자체가 독립된 연구주제로 부각된다. 자해에 관한 문제의식은 본격적인 실태조사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형성된다. 이 시기 학술 자료 대부분이 상담·심리학 영역에서 생산되었다는 점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3)에서 발표한 상담경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및 자해 시도 상담은 [...] 5년 동안 6배 이상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2013)의 ‘2013 위기 청소년 포럼’에서도 청소년 응답자의 33.2%가 자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청소년 현장에서 청소년 자해 사례의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 (김수진·김봉환 2015: 232)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자해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일명 ‘자해 놀이’ 현상이 일어나는 등 청소년 자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 이와 같이 청소년 자해 현상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심각한 성격장애, 우울증 등 다른 정신적인 증상이 있는 청소년이 주로 자해를 했다면, 최근에는 큰 정신적인 증상 없이도 자해하는 청소년이 임상장면에서 많이 발견되고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미 외 2018: 1)

두 학술 자료는 상담 단체에서 말하는 자해 경험 조사 결과와 SNS 자해 현상 등을 근거로 청소년 자해가 증가하는 현상과 심각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청소년 자해의 숫자가 늘었기에 자해에 관한 상담이 늘었는지, 청소년 상담과 관련한 제도적·인적 토대가 풍부하게 마련되었기 때문에 자해 사례 보고가 늘어났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마치 건강진단이 보편화되고 육

체 장기의 미세관에 의학적 시야가 뻗어 나가며 질환과 건강 상태가 날날이 드러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 파악할 수도 있다. 즉, 상담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마치 청소년 자해도 비슷한 비율로 급증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자해 예방 방안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해마다 스크리닝을 통해서 고위험군 학생을 발굴하고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하지만 조심스럽지 못한 스크리닝 과정에서 학생들은 낙인찍히며 또 다른 외상을 겪게 된다. 사려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학교와 지역의 청소년 기관 중심의 게이트키퍼 양성과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손자영 2020:77)

시대적 흐름에 따른 청소년 자해 비율의 증감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상담 현장에서 청소년 자해라는 현상이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출판된 청소년 자해 학술 자료는 의약학 분야의 경우 2건에 불과하지만, 범 상담계(신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 기타)에서 26건이 발행되어 전체 논문의 대다수를 차지한다(이문영·배용순 2020: 61). 특히 이전 시기인 2000년대부터 전개된 ‘부적응’이라는 문제 인식과 정신적 질환, 문제행동-자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2010년대로 이어지고, 이는 인구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방위적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치료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임경문 외(2020)는 2015년 이후 특히 청소년 자해 발생 수치와 변인간 인과를 밝히는 작업, 구체적으로는 독립변인과 자해행동 사이에서 영향을 주는 다양한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한다(임경문 외 2020: 724).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학술 담론이 자해자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거나 교화할 대상으로 파악하였다면, 2010년대 후반의 학술 담론은 청소년 인구 전반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 자해 학술 담론도 이를 주된 관심으로 삼는다. 위 손자영(2020)의 2020년 자료에서 보이는 “정책적으로는 학교와 지역의 청소년 기관 중심의 게이트키퍼 양성과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 및 아래 이어지는 인용은 치료·예방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연구가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상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결손가정”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 “공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아래의 주장을 함께 살펴볼 만하다.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 및 결손가정에 속한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들의 경우, 학교 등 공적 기관 이외의 장면에서 유료의 상담서비스를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 자해청소년을 위한 공적 상담 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원활히 제공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상담인력이 학교 현장에 투입될 필요가 있다.” (박문숙·서영식·안하얀 2020: 481-482)

또한 2013년 정신의학계는 새로운 개념인 “비자살적 자해”<sup>13)</sup>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상담 기법에 대한 질적·양적 연구가 교육 기관이나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자해 청소년에 관한 연구와 이들에 대한 상담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증가는 자해와 가정 등 사적 공간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시도에서 나아가 본격적인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아래 인용과 같이 자해 청소년 내담자를 치료하는 상담 주체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은 이 시기의 학술 자료들이 포괄적 치료 시스템 구축에 몰두하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

“비자살적 자해 상담에서 중요한 상담자의 역할은 비자살적 자해의 맥락과 심각성을 평가하여 성공적인 치료의 장을 마련

---

13) “비자살적 자해” 개념에 관해서는 제Ⅱ장 제2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하는 것이다. [...] 따라서 비자살적 자해 내담자를 만나는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담자의 비자살적 자해 위기 상담경험에 대한 이해는 상담자 돌보기 및 상담자 훈련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경인·김지영 2019: 372)

과거 2000년대에는 주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는 특정 청소년 집단(새터민, 비행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면 2010년대로 갈수록, 그리고 2020년 현재로 올수록 ‘전염병처럼 창궐’하는 청소년 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청소년이라는 집단 일반이 자해자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예방과 치료로 구성된 겹겹의 그물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0년대 후반에는 자해의 원인으로 청소년 전반이 겪는 학업 스트레스나 대인관계에 주목한다. 청소년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자해가 일어난다고 지적하는 과정을 통해 자해 가능성은 보편화된다. 특히 이러한 보편화 경향은 2018년에 들어서면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에서 일어나는 자해계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더욱 두드러진다. 이 시기 학술 담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SNS 공간을 전염의 장으로 주목한다.

“동료집단의 자해에 대한 지식은 또래 집단에 전염성을 가져 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Justin & Sameer, 2017)” (손자영 2020: 72)

“셋째,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SNS 환경을 개선하고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디어 속 유명인들의 자해 경험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고 유행처럼 모방된다.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검색어가 무엇인지, 유해한 사이트나 커뮤니티가 무엇인지 청소년 정책당국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차단할 필요가 있다.” (ibid: 76)

위 인용은 SNS 자해 현상을 문제화하고 분석하는 논문의 논의와 결론의 일부이며, 여기서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자해 콘텐츠를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부터 등장했던 유구한 표현인 청소년 사이의 자해가 지닌 “전염성”과 ‘모방’의 성향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SNS 자해 현상에 보이는 이와 같은 입장은 청소년 자해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 체계의 구축을 촉구하는 현재의 지식 담론의 지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2. 양적인 병리 개념과 개체화된 치료라는 체계

본 절에서는 학술 담론 안에서 자해 일반이 병리적 현상으로 이해되는 방식과 병리의 결과로서 자해의 원인이 구성되는 양상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980년대 자해를 비행과 연결하던 학술 담론은 2013년 “비자살적 자해” 개념의 등장으로 변화의 징후를 보인다. 자해는 여전히 도덕적 금기로 인식되면서도 본격적인 병리 현상으로도 취급되기 시작한다. 병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자해에는 치료라는 해결책이 따라붙고 치료하기 위해서 원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래 제1항에서는 우선 2010년대에 병리적으로 자해를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201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해-병리에 대한 양적인 파악 방식을 조명하고, 사적 차원에서의 원인 찾기와 치료로서 대책 제시라는 학술 담론의 서술 방식을 그린다. 이어서 제2항에서는 자해 학술 담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해와 장애(인)를 연관하는 연구 사례를 분석하여 제1항에서 제시하는 병리 현상의 인과관계와 그에 따르는 사적 차원의 처치라는 서사가 구성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는 자해자를 바라보는 학술 담론의 변화하는 시각을 파악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Ⅲ장에서 자해계가 자신을 병리와 연결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는 선행 작업이 된다.

## 1) 자해라는 병리와 양적인 파악

자해를 정신 병리 현상으로 이해하고 인과를 연결 짓는 방식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확립되지는 않았다. 앞서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의 연구담론은 자해의 반사회성을 전제하고 이 연관성을 재현하려 하였기 때문에 병리적 이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2010년대로 감에 따라 자해를 병리로 인식하고 그 원인을 찾아 연결하는 경향이 명확해진다. 특히 2013년 DSM-5(미국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비자살적 자해” 항목이 임시로나마 공식 등록된 것은 변화의 경향을 반영한다. 아래에서 비교한 두 인용에서 볼 수 있듯, 자해에 접근하는 방식은 비행으로서의 반사회성에서 “유병률”이라는 병리 개념으로 한층 분명하게 이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격장애가 [자해자 중] 62.5%를 나타내어 상당수를 차지했는데 이들 중에서도 반사회적, 경계성, 폭발적 및 피동공격성 인격장애등의 소위 비행을 포함한 행동장애를 잘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김경중·김명정 1982: 370-371)

“이렇듯, 청소년기는 자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치료의 예후가 좋을 뿐 아니라 이후의 만성적인 자해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자해의 유병률, 자해 관련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박문숙·서영식·안하얀 2020: 461)

앞서 언급한 DSM-5는 한국 정신의학계에서도 널리 통용되는 정신의학 적 질환·병리 진단 기준이다. 2013년 개정된 DSM-5는 자해를 정신질환의 정식 진단 목록에 넣기에 앞서 예비적 진단 항목으로 “비자살적 자해”(“Non Suicidal Self Injury”, 약칭으로 “NSSI”)라는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 항목은 “비자살적 자해”의 정의이자 판단 기준으로 “자살의 의도가 없이 스스로 다소간의 신체적 피해를 야기하길 기대하며 자해를 하였고, 이러한 자해 행위가 지난 1년 중 5일 이상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자살적 자해” 항목을 “향후 연구가 필요한 진단 상태”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DSM-5의 “비자살적 자해”의 정의 및 기준에 의한다면 여전히 자해는 불명확한 예비적인 진단 대상으로만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는 독립된 질환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해는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다. DSM-5의 해당 항목을 요약하자면 “비자살적 자해”는 “자살의 의도가 없이”, “자해”하는 것이다. “자살할 의도 없는 자해가 비자살적 자해”라는 동의반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해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병리 현상으로 분류되고 인식되긴 하지만 언어로써 어떻게 구체화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제 자해는 결과로서 정신 병리적 현상으로만 제시되기에, 원인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병리적 현상은 해결되어야 하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진단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2019년 “성인의 비자살적 자해 잠재계층의 유형의 위험요인과 정서 · 행동문제의 관계”라는 논문은 “비자살적 자해”의 “유병률”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격적으로 자해의 근원을 구체화하여 추적한다.

“이와 같이 성인의 비자살적 자해의 유병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살적 자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윤·이동훈 2019: 12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자살적 자해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우울, 불안을 정서적인 문제로 보고, 폭식과 문제성 음주를 행동문제로 보고, 성인의 비자살적 자해의 잠재계층유형에 따른 정서 및 행동문제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ibid: 1212)

자해는 이상적인 상태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불건강이다. 그러므로 자해는 불건강의 원인이 될 장애 또는 질환의 이름을 찾아 분류해야 할 증상이 된다. 다시 말해 자해는 그 자체로 병이면서도 건강에서 이탈했음을 표지하는 적신호이다. 이 적신호는 자해자를 둘러싼 의학·심리학적 담론이 자해라는 증상 또는 규범 위반의 원인을 이미 존재하는 문제 분류 체계 속으로 넣어 안정화하도록 종용한다. 이는 심리·정신 건강과 자해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주요한 심리상담 분과의 특성에 기인한다. 여기서 심리상담 분과적 접근은 자해자와 자해를 생산하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조명하고 그 구조를 수정하고자 하지 않으며, 현안으로서 자해자를 당장 어떻게든 사적 차원에서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데에 주된 관심을 쏟는다. 자해 유병률이라는 개념으로 대표되는 양적이면서 병리학적 관점과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신 병리의 범주는, 인구 전체를 전방위적으로 진단하고 처치(treatment)하는 거대한 관리의 체계에 속한다.

임상 병리로서 자해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훼손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까지 포괄하기도 한다. 아래 논문은 바람직하지 않게 작동하는 행위를 “자해행동”으로 규정하고, 주체가 주어진 과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게 하여 “자해행동”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송재홍(2008)의 “대학생의 학업 자해행동 예측에 있어서 자아개념 명료성과 성취목표 및 교실목표구조 지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자해행동(self-handicapping)이란 꾸물거림, 소심함, 변덕스러움, 노력과 연습의 부족, 질병이나 수면 부족, 약물이나 음주, 그리고 친구 및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일과 같이, 개인이 평가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과업의 수행을 습관적으로 방해하는 성향이나 행동을 말한다.” (ibid: 34)

“그러나 학업 자해행동은 학업 수행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학업에서 좀 더 이탈하고 그것을 무시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회피행동의 원인을 찾아내는 일은 현장 교사에게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ibid: 47)

이렇게 자해라는 개념은 생리적 건강이나 사회적 역할의 건전한 작동을 훼손하는 경우까지 포괄하게 된다. 특히 자해를 다루는 학술 담론에서 자해는 유병률이라는 인구 관리의 관점에서 파악되면서도, 그 근원은 사회적이라기보다는 개체 차원의 병리로 추적된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송재홍(2008)의 논문은 학업적 자해의 원인으로 과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아상을 보호하는 회피행동을 지목한다. 여기서 경쟁적인 과업 성취 구조 등 그를 둘러싼 환경의 부조리가 “자해행동”을 빚는다는 등의 언급은 없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2019년의 “성인의 비자살적 자해 잠재계층의 유형의 위험요인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자해라는 병리적 결과의 원인을 정서 문제라는 개인 차원에서 찾는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자해를 일으키는 배경으로 사회적 낙인을 지목하며(최현정·신민접·이훈진 2007),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자해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어려움으로 제시하기도(박문숙·서영식·안하얀 2020)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개체적 접근법으로서 치료나 상담 등의 예방책을 제시하여 개인이(앞으로) 자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귀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자해 행동은 여러 정신과적 증상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 우울 및 불안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는 비자살적 자해와 관련이 높으며 [...] 섭식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밖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양극성 장애, 물질 사용 문제 등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요안나·배유빈·김소정 2019:252)

이렇듯 학술 담론은 “비자살적 자해”로 명명되는 자해를 유발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진단을 통해 지목된 원인을 바탕으로 치료책을 처방한다. 자해는 있어서는 안 될 병리 현상이며, 지식 담론은 자해에 무엇이든 간에 사적인 차원의 원인을 붙여 사회의 불안을 종식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지한

다.

“자해는 [...] 건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살사고, 정신건강 문제, 가족 및 사회문제, 진로, 폭력 등에 영향을 미치며 실제 자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위기 개입할 필요가 있다(신미옥, 2015; Hawton et al., 2003).” (손자영 2020: 56)

자해에 대한 지식 담론의 문제 제기로 표현되는 거시적 차원의 불안은 자해를 안정적인 분류 체계 속으로 편입하여 처치하기를 욕망한다. 자해를 병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출발하는 양적 접근(유병률)과 개체적 차원에서의 병리적 원인(정신·정서 문제)을 찾고 대책을 제시(치료 및 상담)하고자 하는 서사의 구성은 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개인화시키는 체계를 노출한다.

## 2) 장애에 귀속되는 자해의 원인

이번 항에서는 병리적 현상을 양적으로 접근하고, 개체 차원에서 원인을 찾으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성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연구 사례를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정신질환 문제와 이 항에서 주목할 자폐증 등을 겪는 장애인의 논의가 반드시 겹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자해의 연구 사례군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자해를 개인화하는 체계를 잘 보여준다.

장애인 자해 연구 사례군은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서 나타나는 자해의 연관성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자해 연구 전반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연구 사례군에서 제시하는 자해는 자해자의 일종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재현된다. 다시 말해 의사소통 ‘문제’와 관련하여 직관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자해자의 경우 그 장애가 자해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 ‘문제’적 장애는 특히 발달 장애나 지적 장애 또는 자폐 등으로 나열된다. 문

제적 장애가 있는 이는 다양한 이유로 자해행위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장애인으로 인지되고 장애가 유표되면, 표지된 장애는 자해의 단일하며 당연한 원인이 된다. 장애인의 의사소통 행위로 독해되는 자해는 일련의 “문제행동”으로 범주화되고 학술 담론의 관심은 어떻게 이 “문제행동”을 해결 또는 교정할 것인가로 향한다.

“이 연구에서의 표적 문제행동은 공격적 행동(자해적 공격, 타인 공격, 기물파괴 등)과 방해 행동(자리이탈, 소리 지르기, 화내기, 울기 등)이며, [...]”

“긍정적 행동지원이 시각장애-지적장애 중복장애학생의 수업 시간 중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현옥·김정현 2012: 69)

“자해행동은 자신의 몸에 물리적으로 손상을 초래하는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으로(Meyer & Evans, 1989)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거나 얼굴이나 몸을 때리거나 할퀴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자해행동은 반드시 가장 먼저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행동이다(이상복, 이상훈, 1998) [...]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학급 내에서의 이러한 문제행동들은 자신을 포함하여 또래와 교사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사회적 상호작용까지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 중재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긍정적 행동지원(PBS)이 중증 자폐성 장애 학생의 자해 행동, 자리이탈 행동, 자위 행동에 미치는 효과” (김창호·이미애·이근매 2014: 288)

위 논문에서는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해가 장애를 둘러싼 사회적인 부조리나 구조적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들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은 언급되지 않으며, 자해를 초래하는 다른 개별적 질환 등이 있는지 질문하지도 인지하지도 않는다. 즉, 직관적으로 식별 가능한 장애가

“문제행동”(자해)의 원인으로 간주되며, 그 외의 다른 원인은 언급되지 않는다. 앞서 청소년 자해의 원인으로 정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가장 우선적으로 사적 차원의 대책을 제시한 사례를 생각해 보면, 장애 연구는 사적인 원인 지목(장애)과 사적인 대책(교정)의 구조를 보여주는 개인화 사례 군에 속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자해하는 장애인에 대한 학술 자료의 주된 구조는 연구 대상으로서 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교육학적 실험과 훈육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타임아웃은 대상 학생이 표적행동을 보였을 때 교실 뒤에 자리(생각의자)를 배치하고 앉혔다. 그리고 나서 교사가 대상 학생에게 “머리를 때렸으니까 여기에 앉아 있을 거야. 머리를 때리면 안돼 머리를 때리면 여기 앉아 있어야해”라고 말하였다.” (이성용·오자영 2018: 86).

“자해행동에 대한 기능이 요구하기라고 판단한 것은 A-B-C 관찰에서 교사가 수업을 위해 학생이 가지고 놀던 놀잇감(도미노 게임)을 가져갔을 때 나타나거나 활동 후 강화로 준 간식을 좀 더 주지 않았을 때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기 때문이다.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은 학생에게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ibid: 84-85)

위 논문에서 실험 대상자는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대상자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자해 행동을 하였을 때 대상자가 어떤 제재를 받는지 훈육하고, 요구 사항을 언어(“○○주세요”)로 표현하기를 요구한다. 연구자는 자해라는 표현을 특정한 요구로 해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험 대상자를 교정할 방법을 모색한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자해 등의 행동이 연구 대상자를 둘러싼 수업환경이나 가정환경을 향하는지, 혹은 이와는 달리 무언가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해석하고 의미를 결정한다. 자해자의 ‘불가해’한 수행은 놀잇감이나 간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머리를 때리는 문

제 행위는 결국 언어화 또는 상징화되는 표현 양식으로 교정되고 교육자와 양육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소통의 길을 낸다. 이처럼 훈육자는 ‘문제행동’을 하는 장애인을 길들인다.

“우선 자해 및 공격적 행동의 빠른 감소는 자해 및 공격적 행동에 따르던 휴식과 요구물이 소거되고 자해 및 공격적 행동 발생 즉시 신체적 보조를 통해 과제를 수행하거나 요구하는 물건이나 상황을 제거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중재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은 더 이상 자해 및 공격적 행동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의사소통행동을 통해서만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학습하게 되므로 의사소통행동은 증가하고 자해 및 공격적 행동은 감소하게 된다.” (원종례 2002: 267)

한편, 소위 신체적 장애로 분류되는 발달장애의 경우에도 정신의학 분야의 약물을 활용하여 자해 행위를 멈추게 하려는 과학적 조치가 시도된다. 김석봉의 “자해 증상을 가진 발달장애아의 약물치료” 연구는 자폐인 아동에게 처방한 약물이 대상인 연구이다(김석봉 2003). 위에서 인용한 행동 실험 연구와 유사하게, 특정 약물의 효능을 검증하는 연구는 자해가 생산되는 구조 자체에 거시적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특정한 증상의 파악과 치료 및 교정 자체에 초점을 둔다.

“자해행동, 상동행동, 파괴적이거나 공격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은 자폐학생 자신과 동료학생들의 새로운 기술의 학습을 어렵게 하며, 그로 인한 다양한 환경에서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방해한다.” (원종례 2002: 252)

자해의 원인으로는 장애가 지목되며, 언어나 상징구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없는 이들의 자해는 훈육자 또는 전문가가 구성하는 말의 질서 속으로 포괄된다. 다시 말해 ‘연구 대상’이자 ‘실험 대상자’에 가해지는 환경적

압력과 연관해서는 어떻게 자해가 발생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도 일단 자해를 “문제행동”으로 분류하고, 안정적인 인과관계 속으로 배치하여 재구성해야 한다. 이는 교실이라는 소사회에서 안정적인 교육 분위기를 형성하고 자해 주체를 길들인다는 두 가지 목표를 지닌다.

### 3. 소결

지금까지 자해를 다루는 학술 담론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우선 청소년 자해를 다루는 학술 자료가 도덕적 판단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점차 자해에 대한 처치와 예방의 그물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조명하였다. 이어서 다음 절에서는 2010년대에 자해라는 개념이 양적으로 파악되는 방식과 과정을 살펴보고, 어떻게 자해에 개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논의하였다. 특히 장애인 자해 연구 사례군을 통해서 자해 해결책 제시로서 자해자에 대한 훈육이라는 개인화된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두 범주의 담론, 즉 청소년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 체계와 개인화된 상담·치료 체계는 서로 결합하여, 청소년 자해에 관한 학내 상담을 통해 청소년 자해를 관리하는 제도로 구축되었고, 이는 자해 청소년에 대한 개별화된 치료적 접근을 포함하는 담론의 실천적 효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말해, 학술 자료로 대표되는 지식 담론은 물질화하는 효과로서 자해 및 자살 등 ‘위기 행동’을 관리하는 학내 상담 센터 “위클래스”(Wee 클래스) 상담 시스템의 구축으로 현실화<sup>14)</sup>되었다. 또한 다른 한편 자해 유병률이라는 양적 병리 개념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자해 여부를 전수 검사하는 청소년 자해자 관리 체제로 현실화 되었다<sup>15)</sup>. 전수 검사를 거쳐 자해 사실이 학교에 드러

14)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12. 20.]. [교육부 훈령 제274호, 2012. 12. 20., 제정].

15) “해마다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하던 교육부는 2017년도부터 ‘학생정서 행동 특성검사’에 자해 경험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수정 2019: 9)

나는 학생은 위클래스의 상담 시스템으로 소환되고, 이 사실은 부모와 교사에게 통보되어 특별 관리 대상이 된다<sup>16)</sup>.

그러나 청소년 자해자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자해계는 전수 검사와 위클래스로 대표되는 청소년 관리 시스템이 의도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관리되지는 않는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자해계가 자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신질환의 이름과 청소년 자해 담론을 재전유, 굴절시키며 활용하는 모습을 조명하고, 온라인 활동을 통해 위클래스와 자해자 전수검사로 물질화된 지식 담론의 관리·훈육에 저항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

16) 구체적으로 인용한 사례로서 제Ⅳ장의 [트윗 66]을 참조하라.

### Ⅲ. 자해의 장(場), 트위터와 고통의 연출법

198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자해에 대한 ‘전문적’ 지식 담론의 지층과 지형은 의료적 전문지식뿐 아니라 심리학·사회학적 전문지식의 영역으로 확산되었고, 이를 통해 자해와 자해자를 포함하는 자해현상을 총체적으로 포섭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전문적 지식 담론의 시각으로 파악되는 한쪽의 지형만을 반영할 뿐이며, 그 담론의 대상인 자해 그리고 자해계의 시각과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자해계가 개인적 차원에서 사용하는 말하기 전략과 자아의 연출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낙인의 방식으로 현실화되는 담론적 효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며 반응하는지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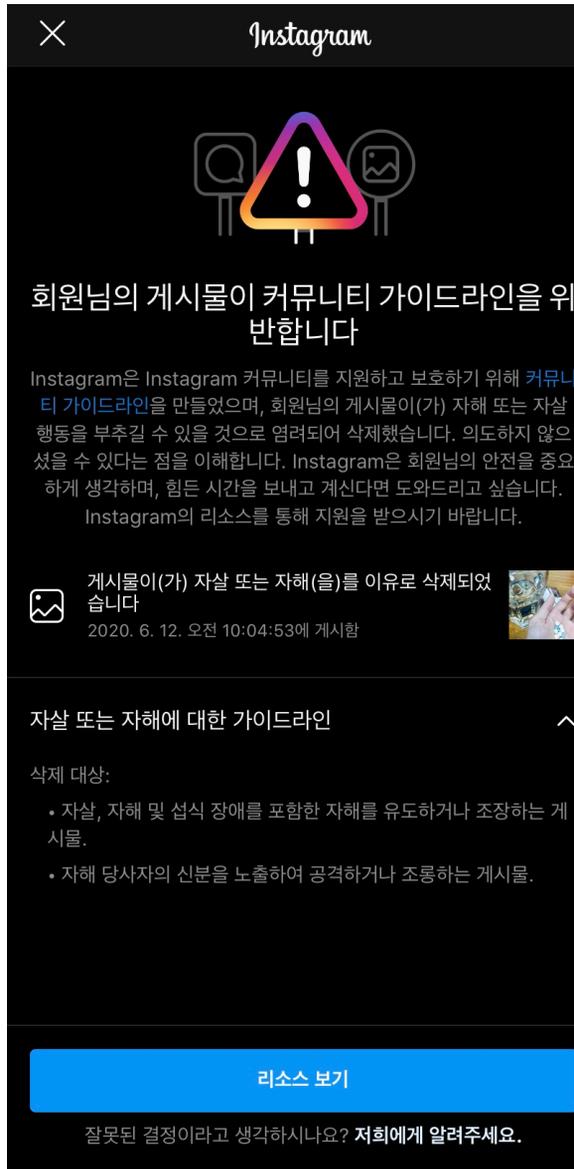
이를 위해 연구자는 트위터에서 자해계가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은폐되어야 할 병리 또는 금기인 자해를 오히려 폭로함으로써 발화의 토대와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병리적 담론을 활용하는 자해 경험 말하기가 단순히 ‘끔찍’하거나 ‘혐오’스러운 것으로 재현되지 않고 적극적인 예술적 실천으로 연출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자해계의 예술적 실천을 통하여 자해에 관한 ‘추’와 ‘미’ 구도가 역전되는 장면을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본다. 이러한 예술적 실천은 대안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동시에 비체로서 자해계 간의 유대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자해계가 오프라인에서 자신을 주변 존재로 규정하는 청소년 규범을 위반하고 정신 병리적 이름들을 전용(專用)하여 온라인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활용하는 모습과 그 효과를 그리고자 한다.

#### 1. 트위터와 자해의 장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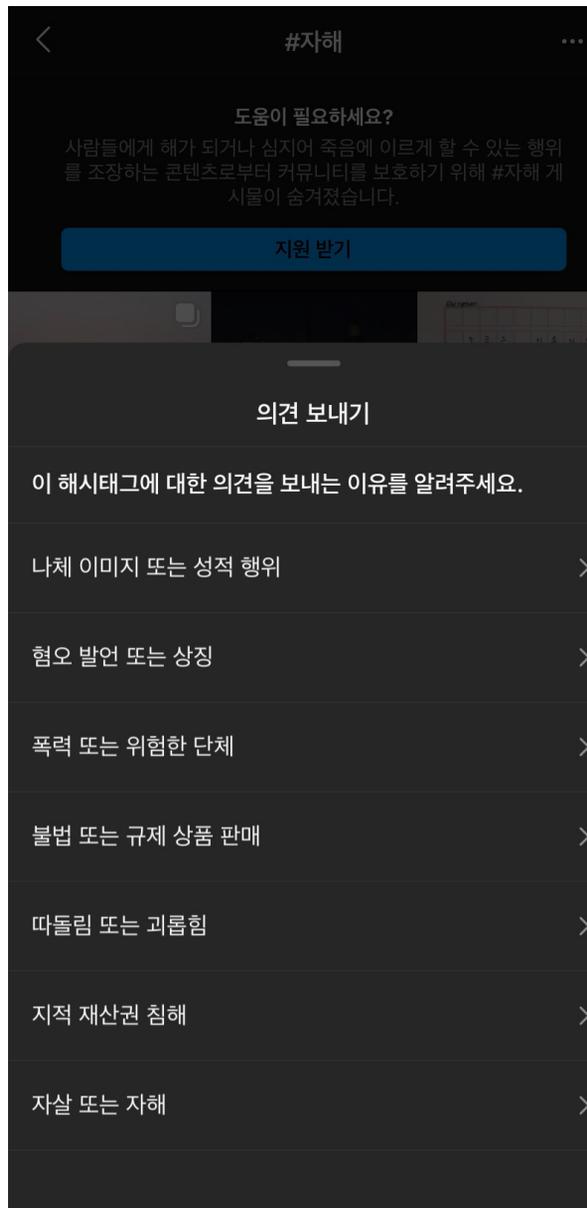
자해계가 활동하는 트위터는 온라인 SNS다. 개인 계정을 가진 트위터 이용자는 자신의 관심사에 맞추어 다른 트위터 계정을 구독(“팔로우”)하거

나, 자신에게 구독을 신청한 사람을 맞구독(“맞팔”)하며, 이 과정을 통해 관심사 집단을 형성하거나 이미 형성된 관심사 집단에 진입한다. 트위터 이용자는 텍스트나 사진을 업로드(“트윗”)하여 자신의 구독자에게 게시물을 노출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구독하는 계정의 트윗은 화면에 시간 순서대로 게시 또는 노출되어(“타임라인”)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과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이루는 집단(‘무엇’계, ‘무엇’에 관심이 있는 계정 또는 그 집단)에서 자신이 구독하는 사람의 트윗을 열람하고, 자신을 구독하는 사람과 의사소통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계정이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타인이 올린 트윗에 댓글 형식으로 트윗을 다는 “멘션”(mention), 자신을 구독하는 사람에게 타인의 트윗을 노출하는 “리트윗”(retweet), 타인의 트윗에 “하트”(heart) 단추를 눌러서 동의나 관심을 표현하는 “마음에 들어요”, 1:1 채팅인 “DM”(Direct Mention)이 그것이다.



[사진 1] 자해 연출에 대한 인스타그램의 조치



[사진 2]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대한 의견 보내기

트위터의 특유한 소통방식은 이 온라인 공간이 자해계가 자해를 공유하는 장이 되는 중요한 조건이다. 트위터만이 보이는 특징은 다른 SNS 매체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비교함으로써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우선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실명을 등록하고 대부분 자신의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며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교류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온라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 공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연장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실명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인 페이스북은 실제로 있을 법하지 않은 이름을 계정명으로 등록하면 신분증으로 실명을 인증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인증하기 전까지는 계정을 운영할 수 없다. 페이스북에서는 여러 익명 계정으로 활동할 수 없기에 오프라인에서 곧바로 드러내기 어려운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하기 어렵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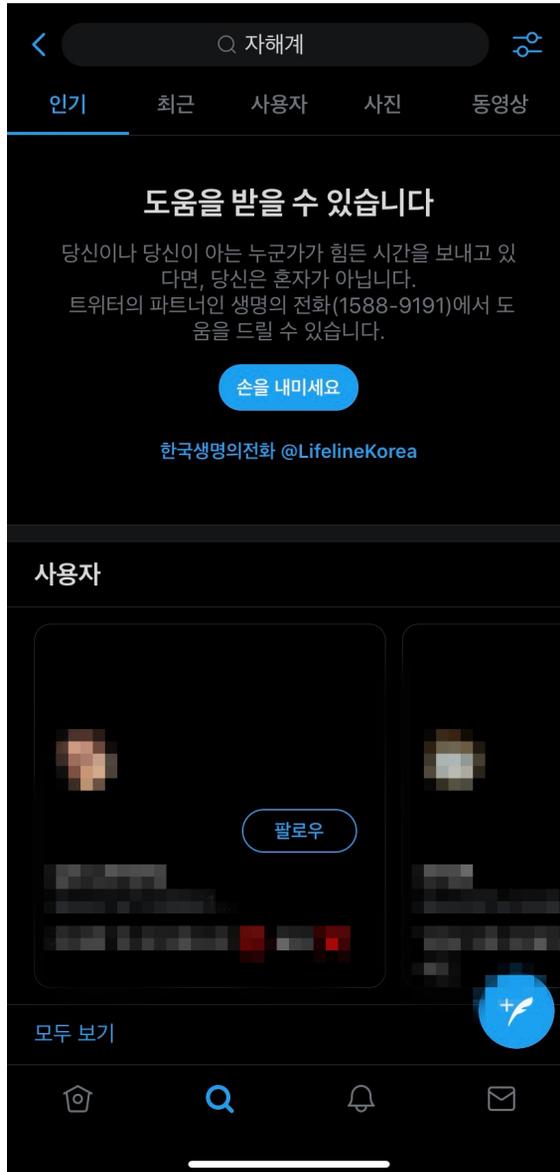
인스타그램은 비교적 최근까지 트위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우울증 등 오프라인에서 밝히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이나 자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인스타그램은 텍스트보다는 사진에 중점을 둔 매체이기 때문에 자해 사진을 더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자해 사진이 상당수 공유되는 매체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가 ‘연출’한 영양제 알약 다량을 촬영한 자해 예고 사진과 텍스트를 업로드한 게시물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고,<sup>18)</sup> 이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자해 사진이나 자해와 관련한 경험 등 “유해 정보”를 원천 차단하여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스타그램은 더는 자해계가 활동하는 영역으로 활용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사진 1]은 연구자가 자해를 암시하고 연출한 사진을 올리고 약 30분이 지난 후 인스타그램이 사진을 삭제한 조치를 촬영한 장면이다. 여기서 나타난 인스타그램의 삭제 “가이드라인”은 “삭제 대상: 자살, 자해 및 섭식 장애를 포함한 자해를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게시물”이라고 표시하였으며, 자해 관련 게시물은 타인에게 자해하도록 “부추길” 수 있기에 삭제 조치하였다고 표시한다. 그리고 아래의 [사진 2]는 “#자해”로 검색하였을 때 나타

17) 이런 특징에 따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모두 활용하는 이용자는 각 시스템에서 다른 방식으로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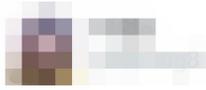
18) 2020년 6월 12일 기준.

나는 결과를 촬영한 사진으로 인스타그램은 ‘유해 정보’를 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사람들에게 해가 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자해 게시물이 숨겨졌습니다.”). 또한 새로운 자해 관련 검색 해시태그가 생겨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자살 또는 자해”와 관련이 있다고 “해시태그에 대한 의견”을 보낼 수 있는 항목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 3] 트위터에서 “자해계”를 검색한 결과

## 내 계정이 잠금 처리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거죠?

계정이 **트위터 운영원칙** 중 특히 다음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자살 또는 자해를 조장 또는 장려**하는 행위와 관련된 트위터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You may not promote or encourage suicide or self-harm. When we receive reports that a person is threatening suicide or self-harm, we may take a number of steps to assist them, such as reaching out to that person and providing resources such as contact information for our mental health partners.

If you are having thoughts of self-harm, suicide, or depression, we encourage you to please reach out to someone and request help. Our Safety Center has a list of resources you can consult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depression, loneliness, substance abuse, illness, relationship problems, and economic problems. You can find those resources here: <https://about.twitter.com/safety/safety-partners.html#mental-health/kr>.

Please know that there are people out there who care about you, and that you are not alone.

[사진 4] 트위터 운영원칙 위반으로 인한 계정 잠금 처리

트위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트위터 사용자는 페이스북과는 다르게 다중 계정을 익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트위터의 경우, 이용자가 자해 관련 자료를 업로드하는 경우 인스타그램에 비해 운영 시스템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조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대규모 SNS 중 현재 자해와 관련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는 트위터가 유일하다. [사진 3]은 트위터에서 “자해계”를 검색한 결과이다. 검색 결과 상단에 위기 상담 전화 시스템 안내가 위치하지만 하단에는 자해 계정이 나열된다. 또한 [사진 4]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단 한번 볼 수 있었던 운영원칙 위반에 따른 계정 정지 처리 결과이다.

물론 트위터도 인스타그램처럼 자해나 자살을 검색하면 [사진 3]과 같이 유해 정보 관련 문구를 볼 수 있고, 자해 또는 자살 자료를 게재하는 운영원칙([사진 4]의 “자살 또는 자해를 조장 또는 장려하는 행위와 관련된 트위터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이 적극적으로 자해와 자살 자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운영 정책을 펼치는 것과 달리, 트위터는 누군가 자해 게시물을 운영원칙 위반으로 신고하고, 신고가 일정 수 이상 누적되어야 게시물을 삭제 처리한다. 자해계라는 자해 관심 집단에서는 자해 사진을 트위터 운영원칙 위반으로 서로 신고하지 않으며 따라서 삭제 기준이 되는 숫자가 누적되는 일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시스템이 자해 트윗과 자해계를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달리 트위터를 자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집단이 쉽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든다. 이러한 차이는 인스타그램의 자해 계정 상당수가 트위터로 유입되는 유인이 되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트위터 계정은 실명 인증을 하지 않고 이메일 주소만 등록하여 생성할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 복수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 따라서 각 계정을 관심사에 따라 구분지어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람이 계정을 여러 개 생성하여 하나는 성소수자와 소통을 하는 용도(“퀴어계”), 하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용도(“덕질계19”)로, 또 다른 계정은 자해하는 집단에 들어가 경험을 나누는 용

도(“자해계”)로 활용할 수 있다. 트위터 이용자가 모두 복수의 계정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많은 트위터 이용자는 본인이 주로 운영하는 “본계”와 부차적으로 운영하는 “부계” 또는 “속마음계” 등 복수의 계정으로 활동하거나, 게임 정보를 나누는 계정과 쿼어 계정 등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트위터 이용자는 서로 독립된 “쿼어계”와 “덕질계”처럼 정체성이 다른 계정을 여러 개 운영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계정을 “쿼어계”이자 “덕질계”로 운영하는 식으로 동일한 계정에 다양한 정체성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각 관심 집단은 서로 겹칠 수도, 완전히 분리될 수도 있다. 이처럼 각 ‘계’ 집단의 규모는 유동적이고 경계도 모호하면서도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성격을 지닌다.

트위터라는 큰 틀 안에서 이용자는 다른 SNS와는 다른 말하기 방식과 규칙을 공유하지만 각 소규모 집단의 내부에서 다시 해당 집단의 고유한 말하기 방식을 보인다. 예컨대 트위터 이용자는 대체로 익명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오프라인의 정체성과 온라인의 정체성을 분리시켜 활동하지만, 이 또한 각 집단마다 그 정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쿼어계” 이용자는 트위터 활동을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로 확장하길 바라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사진, 개인적 정보, 오프라인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이돌 팬덤 활동이나 애니메이션 정보 교환 목적으로 활동하는 “덕질계” 이용자는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분리하여 개인 정보를 최대한 감추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또한 각 집단은 서로 다른 은어 체계를 지니기 때문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트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특히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는 청소년 자해계 집단은 우울한 마음 등을

---

19) “덕질”이라는 단어는 애니메이션 등 일본의 하위문화에 몰입하는 사람 또는 그 집단을 가리키는 “お宅”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 “お宅”가 처음 한국에 수입되었을 때 이를 음차한 “오타쿠”라는 단어가 널리 활용되다가 이 단어는 “덕후”로 축약되고, 이는 이후 다시금 축약되어 “덕”으로 활용된다. 지금은 수집, 연예인 팬덤 등 취미나 하위문화에 열광하는 사람 또는 행위를 “~덕” 또는 “~덕질”로 칭한다. 따라서 여기서 “덕질계”는 특정한 하위문화나 취미에 관한 교류를 위하여 생성하고 활동하는 트위터 계정을 뜻한다.

표현하는 “우울계”와 모호한 경계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우선 자해계이자 우울계로서 활동하는 계정도 존재하고 자해계도 우울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우울계와 일정 정도 유사한 말하기 방식을 공유한다. 하지만 자해 사진을 보기 어려워하는 우울계 이용자는 자해계와 트위터 친구 관계를 맺지 않는다. 따라서 자해 사진을 볼 수 있는 우울계는 자해계와 친구 관계를 맺는 반면, 그렇지 않은 우울계는 자해계 집단과 분리되어 두 집단 간의 어느 정도 거리가 형성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해계와 우울계는 고통 표현이라는 관심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단일한 집단으로 묶이지도,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는다.

본 연구는 특정 사용자가 자해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자해계라고 소개하거나, 자해 사진이나 텍스트를 트윗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우울계와 달리 자해계는 정신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텍스트 작성을 넘어서 자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언급하거나 ‘자극적인’ 자해 사진을 트윗한다. 이러한 자해 트윗은 자해계에 속하지 않는 트위터 사용자와 집단과 다양한 사건과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독특한 경계(boundary) 형성의 효과를 가져오며, 자해 경험을 나누는 트윗이 일종의 공감의례로까지 발전되게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갈등과 경험공유의 과정을 통해 자해러와 자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 2. “자해러”와 “자해계”의 형성 과정

금기 위반이나 병을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는 대중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해와 그에 따른 출혈 등 병리 또는 금기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은 누군가에게는 발화하고 집단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에서는 자해계가 자해라는 금기 위반으로 발화 토대와 집단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자해계는 은폐해야 하는 자해 경험과 자해 출혈 사진을 의도적으로 노

출하여 타집단과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공고히 한다. 자해를 접한 사람이 상처와 피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을 활용하여 고통 경험을 말하는 토대로 삼는다. 이렇듯 은폐해야 할 자해 경험을 발화하는 방편으로 유혈 사진을 트윗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진정한’ 고통을 주장하는 것은 자해계를 집단으로 뭉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자해계에서 자해에 대한 금기는 반전된다. 이는 자해계 내에서 자해와 자해자를 은폐하게 하는 낙인찍히는 경험이 오히려 ‘진정한’ 고통의 징표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자해계라는 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자해하는 사람을 집단이자 정체성으로 지칭하는 “자해러”와 “자해계”라는 말은 트위터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나 자해러 또는 자해계라는 말이 처음부터 자해하는 트위터 계정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다. 자해러라는 단어는 2016년 1월 경 처음 트위터에 등장하는데, 이때는 애니메이션 등 창작물에서 반복적으로 자해를 하는 등장인물을 지칭하였다. 그런데 2016년 8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정보를 공유하는 덕질계가 실제로 자해를 하는 이용자와 갈등을 빚은 사건이 발생한다. 이른바 “#자캐\_자해AU” 사건으로, “AU”<sup>20)</sup>에서 등장하는 캐릭터가 자해를 한다는 설정을 만들어 놓은 창작 행위가 이 사건의 시초가 되었다. 같은 달, 덕질계의 AU 자해러 캐릭터 창작은 현실에서 실제로 자해를 하는 사람에게 공분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러한 공분으로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sup>21)</sup>에 AU의 자해 캐릭터 관련 검색어인 “자캐\_자해AU”가 1위에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난다. 아래의 두 트윗은 실제 자해 당사자가 가상으로 자해러 캐릭터를 창작하는 덕질계에 분노를 표현한다.

이게 재밌나요? 현실 자해러 이야기 들어볼래? 자해 때문에  
7,000,000원 들어가며 입원했는데??? #자캐\_자해AU

---

20) “AU”는 Another Universe의 약자다. 기존 1차 창작물과 같은 작품 내의 세계관을 공유하지만 2차 창작자가 자신의 기호에 맞게 원 캐릭터 등의 설정이나 서사 흐름을 일부 변경하여 새롭게 이야기를 꾸리는 것을 말한다.

21)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구를 순위 별로 목록화하여 보여주는 시스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 순위 기능과 유사하다. 주로 “실트”로 축약하여 활용된다.

[트윗 1] 2016년 8월22)

지금까지 낸 돈이랑 내가 그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 나를 살아 있는 상태로 만드느라 애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가족들의 힘듦 같은걸 모두 견딜 수 있는 사람들만 #자캐\_자해AU 가져가라 좇같은 것들아

[트윗 2] 2016년 8월

[트윗 1]에서 나타나는 “현실 자해러”는 덕질계가 2차 창작에서 자해러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자해라는 현실 고통을 가볍게 묘사하고 유희거리로 활용한다고 분노하며, [트윗 2]는 자해로 발생하는 비용과 더불어 자해하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이들은 덕질계가 자해러를 “AU” 캐릭터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자해하는 사람이 겪는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통해 자해 경험이 있어야 자해를 다룰 수 있다는 당사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쟁에 엮인 트윗은 자신이 ‘진짜’ 자해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향후 자해하는 당사자들이 자해계 정체성을 형성하게끔 하는 토대가 된다.

#자캐\_자해AU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을 상황들이 어디 있고 “어디어디에 트라우마가 되네요 자제 좀” 은 어디서 나온 당찬 말이나. 창작은 창작이고 너무 가볍거나 조롱거리로만 치부하지 않음 될 일이지. 캐릭터 창작이나 우리 창작자는 쥐죽으로 보냐고

[트윗 3] 2016년 8월

자기들 트라우마가 있는 주제, 민감한 주제는 불가침영역인가.

---

22) 이하 인용한 트윗에서 일부 은어 및 오타를 수정하였다. 또한 개별 트윗으로 작성자가 추적 및 특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 한에서 문장을 일부 재구조화하였으며 인용 규칙을 따르지 않았음을 밝힌다.

[트윗 4] 2016년 8월

자신이 창작한 인물이 자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모에화되어선 안됩니다.

해본적은 없지만, 자해의 원인, 자해. 가볍게 볼 요소가 아닙니다.

이건 자해를 하셨던 분들의 심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자캐\_자해AU

[트윗 5] 2016년 8월

이렇게 자해 고통을 무시하지 말라는 자해자 편의 주장([트윗 1], [트윗 2])은 창작의 자유를 주장하는 편([트윗 3], [트윗 4])과 충돌한다. 누군가의 트라우마인 자해가 창작 영역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창작 활동에서 “신성불가침”한 영역은 따로 없다는 주장이 빚는 갈등은 타인의 고통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어느 정도 수렴된다([트윗 5]).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떤 캐릭터에 자해를 “모에화”<sup>23)</sup>하는 요소로 넣음으로써, 덕질계가 자신의 자해 경험을 가볍게 활용한다고 느낀 트위터의 자해자들은 자기의 자해 사진에 “#자캐\_자해AU” 태그를 붙여 트윗하였다. 이렇게 자해자가 논쟁 중에 자신의 자해 경험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장하려고 자신의 자해 사진을 올리는 행동은 새로운 의견 충돌을 야기하였다([트윗 6]).

아니 가상 캐릭터가 자해하는 이야기에 자해‘러’들이 화나서 자기들의 자해사진을 올린다니 뭔가 이상하다고...

[트윗 6] 2016년 8월

#자캐\_자해AU 상처를 보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저도 자해를 하지만 피를 내거나 그러진 못해요 그런데 사진을 올리신 분들

---

23) 어떤 캐릭터의 성격이나 외모 등 특성 설정을 매력 요소로 활용하는 창작 행위를 말한다.

은 저보다 훨씬 아프시겠지만 상처 사진을 보는 게 두려워요  
[트윗 7] 2016년 8월

자해하는 아픔이 전달되니까 실제 사진은 창작물보다 더 크게,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번에 사진 올리신 분들은 화내신  
거지만 앞으로 자해에 관련된 사진은 제발 주의 표시 해주셨으  
면 좋겠어요.

[트윗 8] 2016년 8월

자해 사진을 느닷없이 접한 비-자해계 이용자는 자해 사진이 타인에  
게 심리적인 자극([트윗 7])이 될 수 있기에 아무 “주의 표시”(트위터 내에  
서 주로 “트라우마 워닝”(trauma warning)이라고 일컬음)도 없이 업로드하  
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올린다([트윗 8]).

이처럼 2016년 8월에 있던 AU 자해 캐릭터를 둘러싼 논쟁, 즉 자해를  
“모에화”함으로써 타인의 자해 경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며, 자해 사진을  
아무런 유의 표시도 없이 모두에게 공개된 방식으로 트윗하는 것도 적절하  
지 못하다는 논쟁은 자해 사진을 올리려면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다는 암묵  
적 합의로 연결되었다. 이와 동시에, 자해 캐릭터 창작을 둘러싼 일련의 논  
쟁은 트위터에서 자해계 집단이 형성되는 역사적인 시초가 된다. 자해하는  
트위터 이용자는 본래 자해하는 가상 캐릭터에게 붙은 ‘자해러’라는 표지를  
자신에게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자해러와 자해계는 자해 경험이나 사진을  
트윗하는 계정이나 집단의 명칭으로 전환된다. 창작 캐릭터가 아니라 현실  
에서 실제로 자해하는 ‘진짜’ 자해러는 자해 경험을 트윗하는 용도의 전용  
계정인 자해계를 만들고 집단을 형성했으며, 이는 2021년 현재까지 유지되  
는 자해계 집단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 3. 자해 트윗의 방식

앞서 자해계의 역사적 형성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폐해야 할 금기 위반으로서 자해 폭로가 오히려 자해계가 겪는 고통의 진정성을 발화하는 토대가 되며 그에 따라 자해계 집단을 형성하는 공통된 경험이 되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자해계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자해를 폭로하는 장면과 연결하여, 자해 트윗이 일종의 정형성을 갖추는 과정을 분석한다.

자해계의 발화로서 자해 관련 트윗은 텍스트와 사진 형식인데, 이러한 자해 트윗은 자해를 단순히 ‘끔찍한 것’으로 그대로 재현하지는 않는다. 자해계에게 자해 트윗은 전략과 미학적 연출이 개입되는 예술적 실천이다. 자해계 집단 내 각 계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미학적 트윗을 하지 않는 자해계 이용자들도 “트친소”<sup>24)</sup> 및 해시태그의 자기소개 양식을 미학화된 형태로 받아들이고 활용한다.

자해의 사진을 미학적 연출이 개입되는 예술적 실천으로 간주하는 자해계의 태도는, 자해라는 금기 또는 병리적 현상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반전된 발화의 양식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여기서 자해는 ‘ 좋음’의 반대항으로 단순하게 ‘ 좋음의 부재’ 또는 ‘추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비극적 ‘미’로서 적극적으로 연출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출된 자해 경험은 두 가지 정형성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자해 경험을 트윗하는 시간적인 전략이며, 두 번째는 자해 사진을 미학적으로 연출하고 시적으로 글을 쓰는 예술적 실천이다.

---

24) “트위터 친구 소개”의 준말. 자기를 소개하는 여러 항목에 해시태그(#)를 붙여 트윗하면, 다른 이용자는 이 특정한 해시태그를 검색함으로써 자기소개(“트친소”)를 올린 트위터 이용자를 찾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트위터 친구를 사귄다. 이용자는 이처럼 “트친소”를 올리거나 이 “트친소”의 해시태그 검색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관심사 집단으로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다. 한 트윗 당 140자를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트친소”에서 소개하는 정보 항목은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다. 각 집단마다 “트친소”를 검색하기 위한 문구가 다른데, 예를 들어 특정 애니메이션 작품에 관한 “트친소”를 올리고, 찾기 위해서는 “#(작품명)\_트친소”라고 쓰거나, 검색을 해야 한다. “트친소”의 예시로 제Ⅲ장 제4절의 [트윗 25] ~ [트윗 28]참조하라.

## 1) 발화의 시점(時點)과 공감의 의례

청소년 자해계는 트위터의 기능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별한 발화 양식을 구축한다. 여기서 이들이 주목하는 트위터의 기능은 한 트윗에 올릴 수 있는 140자라는 한정된 글자 수, 타인의 트윗에 공감을 표하는 “마음에 들어요” 기능, 여러 트윗이 시간 순서대로 배치되는 특성을 말한다.

트위터는 개별 트윗이 시간 순서대로 나타나는 “타임라인”을 적극 활용한다. 트위터의 “타임라인”은 자신의 트윗을 남기고, 자신을 팔로우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자신의 트윗을 보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팔로워는 트위터에 접속하는 순간에 시간 순으로 배치된 개별 트윗을 열람하게 된다. 발화자는 트윗하는 시점에는 자신의 팔로워가 접속 중인지, 언제 열람하는지 알 수 없기에 처음에는 독백 형식으로 트윗한다. 그러나 팔로워가 어떤 시점에도 그 트윗을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발화는 자신의 팔로워 집단이라는 특정 다수를 향한다. 트위터의 이러한 작동 방식은 이용자의 발화 시점과 청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차이를 만드는데, 팔로워가 많이 접속하지 않는 시간에 트윗하면 자신의 트윗이 새로운 다른 트윗들로 인해 점차 타임라인 아래쪽으로 밀려나 결국 팔로워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트위터의 시간성은 트위터 친구가 많이 접속하는 시간인가의 여부에 따라 자해계의 트윗의 올라오는 양이나 내용을 달라지게 한다. 아래는 주로 낮 시간에 올라오는 일상적인 내용의 트윗이다.

아빠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공부하고 나서 잠시 노래듣고 뮤직 비디오 보고 그런 게 잘못 된 거야? 해야 할 일 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라는 공부 전부 하고 나와 잠깐 보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가출할까  
[트윗 9] 2020년 5월 12시 경

엄마가 또 씨발 지랄했어

[트윗 10] 2020년 6월 15시 경

다들 뭐해요? 저는 가기 싫지만 서대문 형무소에 가족끼리 가는 중이에요 아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는 거니까 학교 과제 못할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미리 허락받았는데요? 근데 저한테 아빠가 뭐라고 하네요.. 밖에 나가는 건 사실인데 왜...

[트윗 11] 2020년 5월 11시 경

시간에 따라 트윗의 내용과 양이 다른 것은 타이용자보다도 자해계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트윗 9], [트윗 10], [트윗 11]이 올라온 시간대를 보면, 낮 시간에는 학교 등에서 겪는 일상적 어려움과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해 트윗은 주로 일과 시간이 지난 후 야간과 새벽에 올라오는데, 이를 보면 주로 일과를 마친 뒤, 일상적 공간과 리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거주 공간에서 자해 충동이 들고 실제로 자해의 행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자해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자해를 행하는 때와 자해 사진이나 경험을 실제로 트윗하는 때 사이에 존재하는 시차다. 많은 자해계들은 자해와 관련하여 오프라인 생활에서 겪는 감정이나 어려움을 바로 트위터에 올리지 않고 그 감정과 경험을 기억하였다가 자해계 집단의 접속 시간대에 맞추어서 트윗한다. 이를 통해 자해계는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트윗이 많이 노출되어 공감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시간적 패턴은 개별 자해계의 의도를 반영함과 동시에 자해계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습관화된 자해 방식과 발화의 양식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낮 시간에 학교생활 등 일과가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시간적 패턴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자해나 우울한 감정 트윗에 하는 “마음에 들어요”의 공감 표현이 자해계가 특정 시간에 발화하도록 이끈다. 아래 예시는 밤부터 새벽 시간에 올라오는 트윗이다.

#우울 #자해

너 덕분에 내가 버티나봐

고마워

[트윗 12] 2020년 7월 01시 경

(다량의 약물 사진과 함께) 남남

#자해 #약물자해 #우울

[트윗 13] 2020년 6월 24시 경

(손목을 칼로 긁는 동영상과 함께) 자해영상이에요 트라우마 자극되는 분들은 보지 마시고 불편하시면 차단해도 돼요

[트윗 14] 2020년 7월 22시 경

이제부터 자해사진 다른 계정에 올릴건데 찾아오실 분 있나요?

마음에 들어요 놀려주시면 계정명 아이디 드릴게요

[트윗 15] 2020년 9월 20시 경

(팔의 자해흔에 반창고를 붙인 사진과 함께) 너무 보고 싶다 그 래도 잡아주던 너 였는데

[트윗 16] 2020년 8월 04시 경

(칼로 팔목을 자해한 사진, 자해가 거의 아문 사진과 함께) 이 때 더 세계 칼로 그었었는데 좀 더 벌어졌었나 보네.. 20일 지났는데도 아직 이 상태인거 보니까... 흥터 남겠지? ππππ

[트윗 17] 2020년 6월 02시 경

발화 시점에 따라 바뀌는 트윗 내용은 자해 충동이나 자해 사진 자료를 담고 있는 [트윗 12]부터 [트윗 17]까지 여섯 트윗의 작성 시간에서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주로 22시부터 04시까지이다.

트윗한 시간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해 경험을 트윗하기 위해 준비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해 경험을 트윗하는 과정은 첫째, 자해를 실행하는 시점, 둘째, 자해 사진을 촬영하는 시점, 셋째, 자해를 트윗하는 시점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예로 칼을 이용하는 자해의 경우, 직접 자해하고 상처를 만드는 시점, 그렇게 만든 자해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에 저장하는 시점, 핸드폰에 저장된 자해 사진을 트윗으로 발화하는 시점, 총 세 개로 나뉜다. 자해 장면을 생생하게 사진으로 남기려면 완전히 지혈되기 전에 피가 흐르거나 상처가 적당하게 벌어진 모습을 촬영해야 하기에 자해 시점과 촬영 시점에는 시차가 약간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는 시점은 자해를 촬영하는 시점과 차이가 나게 된다. 한편, 약 멍치 사진을 먼저 찍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약을 과다복용하는 자해 역시 사진을 올리는 시점, 촬영, 자해 행위의 시점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칼을 이용한 자해와 대동소이하다. 자해 상처와 자해 약물 복용 사진 모두, 다른 자해계가 자신의 자해 사진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에 트윗해야 하기에 실제로 자해를 하는 시점과 업로드를 하는 시점은 더욱 벌어진다.

이와 같은 트윗 시점 전략이 개별 자해계에게 어느 정도로 의식적으로 채택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자해의 발화 시점과 자해의 표현양식의 시간적 절차가 유형화되어 있으며, 자해 트윗의 집단적 공감의식을 일으키기 위한 이러한 유형화가 내부적으로 널리 체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자해계의 트윗이 표현하는 정형화된 발화 시점과 시간적 표현 절차는 자해가 단순히 개인 사건의 무질서한 집합이 아니라 일정한 정형성과 의례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2) 우울과 자해에 관한 예술적 실천

### (1) 우울에 대한 시적인 글쓰기

나아가 트위터라는 매체의 특성은 고통의 글쓰기에 나타나는 미학적인 태도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실로 의사소통의 물질적인 매개는 이용자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손글씨를 기계화한 타자기가 발명된 이래 문자는 더 이상 신체가 만든 흔적이 아니다. 미래를 배태한 타자기는 담론 기관총이다”라는 키틀러(2019: 35)의 말처럼, 새로운 매체의 기술은 글쓰기와 글을 쓰는 이의 의식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담론의 형태를 형성한다. 현대의 온라인 SNS 매체 역시 글쓰는 이와 글쓰기 방식을 바꾸어 놓았는데, 트위터는 타임라인이 대표하는 특유의 시간성과 더불어 함축적 전달 방식을 가지며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그 매체의 틀에 맞는 글쓰기를 하게끔 만든다.

청소년 자해계가 트윗하는 텍스트와 사진은 트위터라는 매체의 특성과 만나 더 심미적인 방식으로 표출된다. 여기서 말하는 미학적 태도란 고통의 경험과 우울한 감정을 단순히 텍스트 형태로 서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함축적이며 시적인 어휘를 동원하여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한 트윗에 사용하는 글자 수를 140자로 제한한 트위터 시스템에서, 장문의 일기 형식으로는 강한 고통의 감정을 트위터 친구에게 전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반에서 자해계는 간결하고도 은유적인 글쓰기로 우울과 고통을 표현하며, 청소년 자해자는 트위터라는 공유 매체, 글쓰기 틀을 만나 예술적 실천을 하는 자해계가 된다.

“#끝없는\_추락끝에\_붉은\_입맞춤”

“#수많은\_상처속에서\_피어난\_붉은꽃”

“#나는\_익사하고\_있는데\_너는\_물에\_대해서\_설명하고\_있어”

위의 세 문구는 자해계가 쓰는 “트친소” 검색용 해시태그다. 문구를 살펴보면 자해와 우울한 감정을 “추락”, “상처”, “꽃”, “익사”, “물”로 상징

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를 상징하는 붉은 색 이미지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이처럼 자해계는 은유적 표현과 상징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위 “트친소” 검색용 해시태그를 이용하는 것은 자해계 집단이 미학적인 문구로써 집단을 대표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미학적 태도 및 자해계가 타인에 취하는 태도를 잘 볼 수 있는 사례로 세 번째 문구인 “#나는\_익사하고\_있는데\_너는\_물에\_대해서\_설명하고\_있어”를 살펴보자. “나”는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상황에서 “너”는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물에 대해 설명한다고 말함으로써 타인은 “나”의 죽음과 고통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고 표현한다. 여기서 타인은 “나”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은 채 고통을 설명하기만 하며, “나”를 죽게 내버려 두는 바깥 전체를 뜻한다. 따라서 트위터 내의 다른 이용자 집단이나 자신을 둘러싼 가족이나 학교 등 사회 전반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해계는 이 해시태그를 집단적으로 공유하여 자신, 즉 “익사”하는 “나”의 집단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 사이에서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을 아름다운 이미지로,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하나에 140자만을 쓸 수 있는 트윗 형식 안에는 구체적으로 왜 힘든지, 어떤 부분을 이해받지 못하는지 구구절절 담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 해시태그와 함께 자기의 “트친소” 자기소개 항목을 함께 적어야만 해시태그 “트친소”가 기능할 수 있다.

“트친소” 예시에 이어서 아래의 사례 역시 고통스러운 감정을 함축하여 표현한다.

길을 잃은 너의 두 눈동자여

[트윗 18] 2020년 8월

(자해한 상처와 상처에서 나온 피가 물속에서 퍼지는 사진과 함께) 피가 가득한 욕조 속에서 죽어갔던 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 아무도 날 구해주지 못해서 혼자 며칠 동안 잠들어 있던 그때를 난 기억해

[트윗 19] 2020년 8월

죽어 죽여 죽어 죽여 붉은 꽃

[트윗 20] 2020년 7월

(자해한 사진, 꽃 그림, 자해흔에서 흘러나온 피로 꽃 그림을  
적시는 사진과 함께) 내 장미 밭에는 피로 물을 줘

[트윗 21] 2020년 6월

수면이 얼굴과 가까워진다  
숨을 쉴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과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이 생긴다  
나는 물속에 잠길 수 없는데도  
잠길까봐 무서워서  
수면이 얼굴과 닿았다  
무서워서

[트윗 22] 2021년 3월

(30여개의 약을 손바닥 위에 올려둔 사진과 함께) 이거 다 먹고  
영원히 잠들어버릴 수만 있다면.

[트윗 23] 2020년 6월

이미 설명한 세 해시태그와 [트윗 18]부터 [트윗 23]의 예시까지 “꽃”-아름다움, “육조”·“잠”-죽음, “피”-상처·고통을 연결하는 상징이 반복해서 등장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미적인 대상에 비유하거나 붉은 이미지로 표현한다. 자해계는 고통을 구체적 또는 서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트위터라는 공유 형식을 통해 시적인 글을 작성하며, 이를 통해 일종의 미학적인 집단이 된다.

## (2) 자해 사진의 미학적 연출<sup>25)</sup>

자해를 미학적으로 연출하는 장면은 자해 사진에서 더욱 극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극적 자해 사진은 자해의 장면이 일정한 방식으로 정렬되는 유형을 따르는데, 자해 방법, 사진 구도, 색감을 필터링 처리하는 것 등에서 그 구체적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형식으로 미학적으로 연출하는 자해는 글쓰기 미학과 마찬가지로 피, 흘러내림, 물 등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사진 5]에서 나타나는 푸른 비눗물에 잠긴 팔의 자해흔과 검은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은 비극적 아름다움을 자아내고자 하는 예술적 실천이다. 이외에도 자해계는 자해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칼로 팔에 상처를 내는 “리스트컷”, 혈관에 주사 바늘을 꽂아 피를 뽑아내는 “사혈”, 그리고 약을 과다 복용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이 트위터에서 자해를 표현하는 주된 수단이 된 까닭은, 피와 피부 색감을 두드러지게 묘사할 수 있으며, 알약의 동글동글하고 알록달록한 모습을 이용하여 자해를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자해계 집단은 사진으로 아름답게 하거나 극적으로 연출하기 어려운 자해 방식을 좀처럼 이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담배 등으로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방식, 머리 카락을 뽑는 방식, 손톱으로 피부를 긁는 방식 등과 같은 자해는 촬영 방식으로는 미학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기에 트위터 자해계가 자주 이용하지 않으며, 트윗되지도 않는다.

칼, 주사기, 약을 이용하는 자해 연출 방식이 정렬의 유형을 따르는 것은 다음과 같이 반복되는 사진 구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칼을 이용하는 자해는 상처를 만든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약간 흐른 뒤 팔뚝에 피가 맺히거나 흘러내리는 모습이 잘 나타나도록 기다렸다가 구도를 잡고([사진 6]), 약물 자해는 약을 먹기 전 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찍은 사진을 올린다. 리스트컷이나 사혈은 칼과 주사 바늘을 곧 이용할 것이라는 예고라기보다는 자해행위가 적당히 극적인 장면을 자아낼 때 촬영한 결과를, 과다복용의 경우

---

25) 본 단락에서는 자해를 미학적으로 연출하는 장면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해 사진을 실었다. 상처 장면을 흐리게 처리하였지만 독자에 따라 심리적인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열람에 유의를 바란다.

에는 알약의 모양과 색깔을 활용하여 촬영하며 이를 통해 곧 약물을 과다복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진으로 전달한다. 소수의 사례로는 리스트컷 자해와 사혈 자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트윗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칼로 피부를 긁거나 주삿바늘을 꽂아 넣는 장면이 아니라 이미 만든 상처를 보여주거나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촬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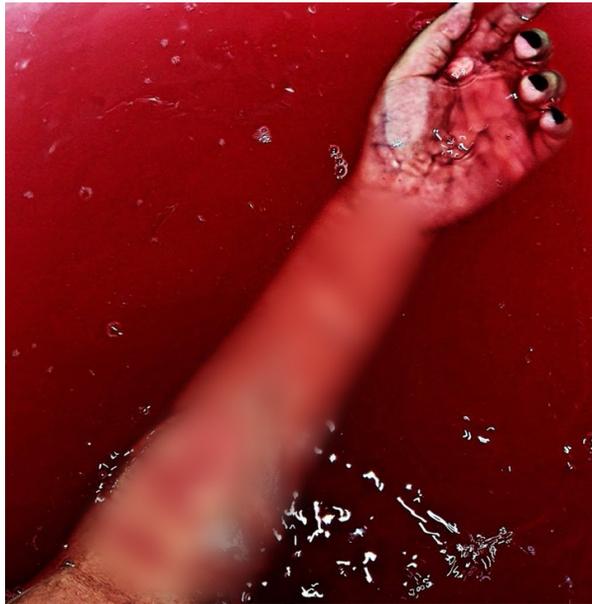


[사진 5] 자해 상처와 검은 매니큐어를 바른 손



[사진 6] 피부색과 피의 채도 대비를 살린 자해 사진

이처럼 피 묘사는 고통을 아름답게 연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사진 7]).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을 아름답게 촬영하기 위해 자해계는 사진의 색감을 살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곤 한다. 이는 자해 사진의 하단에 찍힌 어플리케이션 워터마크로 알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은 필터링 기능으로 명도를 조정하여 피부색을 밝게 보정하며, 채도를 조정하여 피의 붉은 색감이 피부와 대비되어 더욱 두드러지도록 한다. [사진 7], [사진 8] 에서처럼 피와 피부를 밝고 선명하게 조정하기도 하지만, 사진 전체를 전반적으로 어둡게 조정하여 더욱 비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채도 대비를 높이는 방식이든 흑백의 대비로 처리를 하는 경우이든, 자해계에서는 사진 촬영 시점부터 사진의 조명과 구도를 조절하거나 사후 가공하여 트윗한다.



[사진 7]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욕조에 퍼지는 자해 사진



[사진 8] 상처에 피가 맺힌 자해 사진



[사진 9] 약물 자해를 예고하는 사진

피와 상처를 연출하는 것과 유사하게, 입속으로 약을 넣는다고 예고하는 약물 과다복용 사진도 사진 보정 어플리케이션으로 약의 색감을 조절하거나([사진 9]) 음영조정을 하여 밝게 처리한다. 또한 알록달록한 약을 색종이 위에 올려놓거나 영어가 빼곡히 적힌 종이 위에 올려놓는 연출을 하기도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자해로 약을 과다복용하는 경우 종종 구토가 일어나지만 실제로 구토하는 장면이나 구토한 사진은 트윗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신 자해 후 응급실에 누워 링거를 맞는 사진을 찍고 이와 함께 고통의 감상을 올리는데, 이는 자해행위의 유형화된 연출 사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자해계 집단은 타인의 자해 경험과 우울한 감정을 대체로 “마음에 들어요”나 “멘션”으로 서로 위로하고 공감을 표한다. 하지만 특정한 자해 사진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되고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팔에 헤어진 남자친구 이름을 칼로 새긴 사진을 인용하며) 어휴 진짜ㅋㅋㅋㅋㅋ뭘 지랄이야 장난하나?*

[트윗 24] 2020년 8월

예컨대 자해 사진의 한 사례로서 칼로 헤어진 남자친구 이름을 팔에 새기고, 자해로 새긴 그 이름을 보고 다시 화가 나 또 자해를 했다는 사람의 트윗이 있었다. 이러한 자해 사례는 다른 자해계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 대상이 되었다[트윗 24]. 이는 자해를 연출하는 데에는 느슨하게 약속된 양식이 있으며 이를 과도하게 이탈하는 자해 연출은 집단 내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혈 사진의 색감과 더불어 자해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출혈량과 약의 복용량이다. 자해계에게 출혈량은 고통을 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징표며, 과다 복용할 약의 양을 사진에 담는 것도 고통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사진 5]). 자해계는 자신의 고통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하기에 사혈했을 때나 자해 상처를 냈을 때 피의 양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점에 사진을 찍고, 약물 과다 복용은 고통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약을 모아서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고통의 정도를 연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해의 방식과 연출은 일정한 방식으로 정렬되며, 여기에 트위터라는 형식은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즉 트위터가 자해를 오프라인 생활에서 혼자 숨어서 하는 은밀한 행동이 아니라 자아를 연출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면, 이 과정에서 트위터라는 형식에 맞추는 어느 정도의 연출 양식이 등장한 것이다.

자해계로 아름답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자해 연출 사례뿐만 아니라 “트친소” 텍스트에 덧붙여 트윗하는 사진이나 그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해계는 “트친소”에 자기소개 내용과 함께 강한 화장과 문신을 함께 찍는 “셀카”, 욕상에서 먹구름 낀 모습을 찍은 사진, 흘러내린 피로 특정한 형상을 그린 사진, 까마귀의 사진을 여럿 모아 트윗하는 모습, 암울한 분위기의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실어 트윗한다. 이러한 사진이나 그림은 “트친소” 내용과 함께 주로 비극적인 이미지를 자아내면서 매력적으로 자아를 연출하는 전략으로 활용된다.

“트친소”와 함께 올라오는 사진 중에서도 특히 자해계가 올리는 “셀카”는 자신의 몸이나 얼굴을 되도록 가장 아름답게 연출하고 촬영하여 트윗한다는 면에서, 자해를 타인에게 숨겨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기존 관념과 더욱 선명하게 배치되며, 트위터라는 위상에서 자아를 연출하는 자해계의 전략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트친소”로 자신을 최대한 노출하고 자해계 집단에 진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자해계로 자아를 전시하고 연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되도록 아름답고도 비극적인 모습이나 매력적이거나 친근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셀카”와 함께 “트친소”를 작성한다.<sup>26)</sup>

---

26) 자해 사진과 자신의 이미지를 미학적으로 연출하는 경향은 일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일부 자해계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작성된 해시태그와 함께 자해 사진을 트윗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해 관련 트윗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자해계 현상이 유사하게 양식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4. 청소년 규범과 정신 의학의 전용(轉用)

본 절에서는 청소년 자해계가 어떻게 트위터 내에서 청소년 규범을 위반하거나 정신질환을 가진 존재로 자신을 그려내는지 본다. 자해계는 정신질환을 둘러싼 지식 담론의 언어에 조응하면서 동시에 전용하는 과정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소개한다. 이렇게 자해계가 청소년 규범이나 정신질환 담론을 재전유하거나 굴절하여 활용하는 것은, 권력의 생산적 측면이 지니는 중층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담론은 주체를 규범적 언어로 주조하는 동시에, 주체는 이러한 언어를 다시금 활용하여 자기 존재를 규정하는 데에 활용하기도 한다(버틀러 2019). 자해계가 자기규정을 행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생산적 ‘지식/규범’ 담론이 주체를 주조하고 포섭하려는 과정에서, 주체가 이러한 ‘지식/규범’ 언어를 적극적으로 재전유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버틀러 2008)을 살펴볼 수 있다. 자해계의 담론 전용 사례를 통해서 본 연구는 담론의 생산적 측면을 읽어내면서 주체가 단순히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만을 보기보다는, 동시에 담론과 주체가 상호 연관 속에서 복합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장면을 그리고자 한다.

자해계는 정신질환의 표지, 예를 들어 “반복성 우울 장애”나 “경계선 인격장애” 등의 병명으로 자신이 표현하는 고통에 신뢰성을 담보하며,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규범과 그 위반을 자기소개에 활용하면서 자신이 겪는 조건을 노출하고 공유한다. 아래에서 청소년 규범의 위반을 정체성 구축을 위하여 활용하는 모습과 정신질환자로서 정신 병리 언어로 자신을 그리는 모습을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자해계의 연령 분포는 14세부터 23세까지로 청소년이 주류를 이룬다. 자해계는 “트친소”에 학교와 가정에서 역할을 수행할 때 따르는 사항들 즉,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역할 규범과 이에서 얼마나 자신이 이탈하고 있는지를 적어놓곤 한다. 청소년 규범에서 이탈하는 존재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정상성’에서 벗어난 사람인지 보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음주나 흡연 여부, “학안청”과 “학밖청”<sup>27)</sup>이라는 용어로 자신이 어디에 위치

27) “학안청”과 “학밖청”은 “학교 안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의 준말이다. 학교

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인지 나타낸다. 특히 “트친소”에서 흡연과 음주 여부에 관한 항목을 통해 자신이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를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자퇴 여부와 음주와 흡연 여부를 굳이 알리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규범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지 나타내기 위함이며, 이는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규범의 이중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즉, 규범은 자해계 청소년을 일정한 방향으로 훈육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동시에 규범은 이 규범의 대상이자 수행자인 청소년이 자신이 어느 정도로 역할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인지를 알림으로써 본인의 고통을 더욱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도록 활용할 여지를 지닌다. 규범에서 이탈하는 사항을 알림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더 ‘비규범’적인 존재인가를 부각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반에 따르는 낙인이나 고통을 더욱 부각시키게 된다.

연구대상 집단에서 소수인 성인 자해계도 음주나 흡연 여부를 “트친소” 자기소개 항목에 표시한다. 성인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규범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성인이 이렇게 흡연과 음주 여부를 알려 트윗하는 이유는 청소년이 주류인 자해계 집단의 “트친소” 양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아래는 청소년 자해계의 “트친소”, 10대 중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해계의 “트친소”, 성인 자해계 “트친소” 예시이다.

(청소년) #자해러\_트친소, #우울계\_트친소, #정병계\_트친소, #우울계를\_찾아서, · 03 학밖청 병원상담 O, ·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자해언급 자살언급 술과 담배합니다. 리트윗 감사합니다

[트윗 25] 2020년 6월

(청소년) 만 16세. 여자이고, 자해 사진 올려요(트라우마 트리거 주의), 말을 건네주는 거 좋아해요, 친분관계 진입 장벽 낮아요, 의사 소견은 심한 주요 우울장애, 대학병원에 정신과 다니고 있고요. 오프라인 친구는 알아도 모른 척 해주시길

---

에 소속되어 있는지 혹은 자퇴를 했는지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다.

[트윗 26] 2020년 5월

(청소년 추정) #우울계\_트친소, #자해계\_트친소, 0n년생 女 ENFJ, 술 담배 자해 O, 유혈사진 전시 안함, 조울증·조현병·애정결핍·망상장애·불안장애, ‘마음에 들어요’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저 친화력 좋아서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친구해주실래요?

[트윗 27] 2020년 5월

(성인) #자해러\_트친소, #자해계\_트친소, 성인, 여자, 자해하고요 (유혈 사진 올림), 불안장애, 공황장애, 자주 우울, 술은 마시고 담배는 피워요, 자해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트윗 28] 2020년 4월

형식의 면에서 청소년이 작성한 [트윗 25]와 성인이 작성한 [트윗 28]은 유사하다. 두 번째 “트친소”인 [트윗 26]의 “0n년생”은 2000년대 생임을 뜻하기에 이 표시만으로는 자료를 수집한 2020년을 기준으로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생년을 검토했을 때 청소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네 개의 “트친소” 모두 청소년 이용자, 청소년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용자, 성인 이용자 모두 음주와 흡연을 하는지 소개한다. 또한 [트윗 25] “트친소”에서 자신이 “학박청”이라고 밝히는 모습은 자신이 어디에 속하고 어떤 청소년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선별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자해계가 올리는 “트친소”의 내용은 자해계가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정신 의학의 정신질환 또는 장애 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트윗 25]는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이 있으며 병원에서 상담 받으며 치료받는다고 소개하며, [트윗 26]은 “의사 소견은 심한 주요우울장애”이며 “대학병원 정신과”를 다닌다고 소개한다. [트윗 27]은 “망상장애”와 “불안장애”가 있다고, [트윗 28]은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있

다고 표현한다. 이처럼 자해계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전문적 병리 언어를 구사하고 정신질환자라는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뒤집어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해를 규정하고 치료대상으로 삼는 전문가의 담론에 포섭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병리 언어를 전용하고, 기존의 병리 언어의 구도를 재맥락화하여 정신질환자에 얽힌 낙인의 의미를 탈각한다.

자해계는 특히 병리 언어나 병원 등 의학 관련 기관의 권위를 빌었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는데, 이러한 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례는 [트윗 26]이다. 이 사례는 “의사소견”이라는 의학 전문가의 지식의 신뢰성에 기대어 고통을 정식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자해계는 정신의학 담론과 조응하면서도 이를 전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해나 자해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병리의 부정적 표지는 자해계에 의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도구로 이용되면서 자해계 집단 내에서 관리와 통제의 효과를 상실한다. 오히려, 정신질환은 이제 자해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고통의 이름을 지칭하는, 개별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집단적 차원에서는 서로 겪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이는 자해계가 자신의 병리 이름을 집단 내에서 긍정하는 장면이면서도 상호 의사소통의 방식으로서 지식 담론이 재전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제Ⅳ장 대안적 자조(自助) 유대의 형성

제Ⅲ장에서 트위터라는 무대에서 자해계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과정과, 자해계라는 자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자해하고 고통 받는 경험을 어떻게 연출하여 표현하는지 살펴보았다. 청소년 정신질환자인 자해계는 청소년 역할 규범이 정하는 당위와 지식 또는 정신의학 담론이 재현하는 질병-치료 서사에서 빚겨나 이를 다양하게 ‘이탈’하고 전용하면서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형성한다. 자해계는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만의 틀을 구축하고 이를 위반과 병리를 발화하는 토대이자 수단으로 삼는다.

본 장에서는 자해계의 자기 고통 말하기가 어떻게 집단 안과 바깥 사이에 경계를 설정하고 내적인 동일성을 이루어 결사하고 유대하는지를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자해계 집단이 타이용자와 논쟁을 반복하여 별이는 과정을 통해 외부와 경계를 설정하며 내부적으로 공통 의식을 형성하는 장면을 살펴본다. 이어서 제2절에서는 자해계가 학교나 의료·심리상담 등 전문 지식이 형성한 기관(institution)에 의해 일탈이나 병리 현상으로 관리되는 것만이 아니라, 기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공감하는 상호작용으로 대안적인 자조와 상호 돌봄의 집단의 성격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조명한다.

### 1. 집단의 경계선 설정

이번 절에서는 자해계가 트위터 내에서 타이용자나 타집단과 겪는 반복되는 사건을 세 가지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해계가 어떻게 외부와 경계를 설정하고 내부로는 공동 의식을 형성하는지 살펴본다. 첫 번째로는 트위터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패션자해” 논쟁을 분석하고, 두 번째로 ‘자해 전시 대 트라우마론’이라는 대결을 분석한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여성적 집단인 자해계 집단이 자해계에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섹스<sup>28)</sup>와

---

28) 성적인 자료를 찾거나 성적 상대를 찾기 위하여 활동하는 트위터 계정

어떻게 선긋기를 시도하는지 본다. 이 세 가지 분쟁은 자해계를 둘러싸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며, 자해계가 외부와 구분되는 집단으로 결사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같이 논쟁과 관련 있는 발화는 집단적 자해 트윗에 타당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이며, 타집단에 맞서는 집단적 발화일 뿐만 아니라 자해 트윗의 의미를 내부 집단에 되새김하여 경계와 응집을 동시에 재구축한다. 집단 정체성 형성에서 이러한 경계 설정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경계는 우리를 규정하는 동시에 타집단과 분리를 인식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Cohen 1985).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해 관련 트윗은 자해계들이 올리는 개별적 자해의 집합이 아니다. 자해계 집단은 스스로의 영역을 수호하기 위하여 공동의 의미가 있는 집단적 행동(자해 트윗)을 통해 타집단과 논쟁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타이용자와 논쟁하거나 특정 이슈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논쟁에서 자해계는 대체로 한 트윗의 제한인 140자를 거의 꽉 채워서 트윗을 작성하거나 트윗을 여러 개 이어 만든 긴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곤 한다. 자해계가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고통의 표현에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서, 앞 장에서 분석한 함축적 고통 발화와 대조를 이룬다.

### 1) “패션자해”와 “진정한” 고통

패션자해? 아가리 싸물어

[트윗 29] 2020년 5월

2018년 7월부터 트위터에 등장한 “패션자해”라는 말은 패션(fashion)과 자해를 합성한 말로, 남에게 고통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자해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트위터에서의 “패션자해”라는 단어는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자해 사진을 올려 남의 관심을 끄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해를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진지하게’ 자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단지 타인에게 보이려고 자해하는 사람을 비꼬는 용도로 쓰인다.

물론 “패션자해”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부터도 자해계는 온라인 공간에 올리는 자해 사진이나 자해 경험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쟁에 휘말리곤 했다. 이러한 “패션자해론”에 관해서 자해계는 자신이 겪는 고통은 ‘진정’하며 자해는 과시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표현하는 자신만의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아래는 타이용자 한 명이 여러 자해계에게 “멘션”을 달며 의도적인 갈등을 빚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패션자해의 끝을 보여주는 열은 자해  
군요 제가 볼 때는 자해량은 맞지 않으신 분이시고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부끄럽다는 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해하는 사람들의 힙함을 어떻게든 따라가고 싶어서 안  
달나신 중, 고등학생 같으신데 그만두시는걸 추천합니다^^  
[트윗 30] 2020년 8월

[트윗 30]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열은” 자해를 한 자해계에게 “패션자해”를 그만두라고 “멘션”한 것이다. 글쓴이는 비판의 대상인 자해계를 “자해량은 맞지 않으신 분”이라고 칭하는데 이는 패션자해 논쟁이 발생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서 글쓴이는 자해와 “힙함”<sup>29)</sup>을 동치로 본다. 이 글쓴이의 주장에 의하면 ‘진짜’ 자해는 “힙”하면서도 진정한 고통을 반영하는데 비해서, “패션자해”는 “힙함”을 따라가기 급급하여 남에게 단지 보여주려는 어설픈 것이다. 즉 진짜 자해와 가짜 자해를 구분하고, 진정한 자해를 어설픈게 모방하는 것이 패션자해라는 주장이 된다. 아래 [트윗 31]과 [트윗 32]에서 나타나듯이, 자해계 집단은 이러한 진짜 자해와 “패션자해”의 이분법을 반박하면서 “씨발”, “이지랄”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분노한다.

이게 뭘 개소리야 씨발 너 같으면 멋있어 보이려고 팔에 칼질  
하겠냐? 헛소리 하지 말고 꺼지렴

---

29) “힙하다”, 세련되며 유행을 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윗 31] 2020년 8월

힙함 이지랄.. 이게 힙해 보여요? 자해하는 분들을 다 힙함이고 패션 자해로 여기시는 거 같은데 당연히 내 몸에 상처 냈으니 드러내기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제발 펠거면 제대로 좀 하시든가 남 자해랑 상처를 왜 너가 판단하시는지..  
님이 의사신가요? 오지랴 떨지 말고 님 인생이나 사세요

[트윗 32] 2020년 8월

패션자해 가짜자해 진짜자해가 어딴가요? 그림 팔에 그리고 노는 거도 아니고 칼로 내 피부 그어가면서 피 흘리는 거 보면서 그렇게 비웃고 패션자해를 가려내야 겠나요? 잘 보이게 굿든 안보이게 굿든 간에, 말로 힘들다고 하는건 공중분해 시키거나 남들 힘든 거 저울질 해가면서 이거 봐 내가 너보다 더 힘들잖아 (이어서) 이런 소리 안 듣기 위한 거라고. 내가 힘든 건 오롯이 내 힘듦으로만 봐달라는 거야. 남들 힘듦으로 내 힘듦 비교하지도 말고 그냥 많이 힘들었냐고 안아 주면서 눈물 좀 닦아 달라고 하는 거지 (이어서) 살을 칼로 굿는게 정신이 미치지 않고서야 못 그래. 자해 상처 깊이가 다른 건 남들 마다 힘듦에 최대치가 각자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트윗 33] 2020년 10월

[트윗 32]은 [트윗 30]이 자해 자체를 힙하다고 취급하는 전제를 비판하며, 어떤 것이 “패션자해”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 세 개의 트윗을 이어서 붙여 비교적 장문으로 작성한 [트윗 33]의 글쓴이는 “패션자해”와 ‘진짜’ 자해의 이분법을 반대하면서 자신의 “피 흘리는거”를 비웃지도, 가려내서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고통은 서로 비교할 수 없으며 양과 깊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에

자해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논쟁은 자해계가 패션자해를 비난하는 외부 당사자에 하는 발화인 동시에 자해계 집단 내부에서도 지켜져야 할 규범의 존재를 드러낸다. 누구도 타인의 고통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말은 자해계 집단에서 통용되는 내적인 공동 의식이다.

블좌돌립니다. 알티부탁해요

자해계분들이나 우울계분들에게 자해사진을 보고 폄평하듯이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너무 가관이라 블좌돌립니다.

지금 리트윗한 거는 전체 중에 일부이고 계속 이런 행동을 지속할거 같아 미리 블락해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계정 이름 복사 편하시게 아래에 아이디 달아둘게요

[트윗 34] 2020년 8월

이러한 논쟁 과정에서 자해계인 [트윗 34]의 글쓴이는 결국 “패션자해론”을 들고 온 [트윗 30]의 계정에 “블좌”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블좌”는 “블락좌표”의 줄임말로, “블락”은 특정 계정을 차단하는 기능을 지칭한다. 즉 차단 대상이 된 계정은 더 이상 차단한 사람을 팔로우하거나 그의 트윗을 열람할 수 없다. “블락”의 “좌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특정 계정을 집단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행위를 뜻한다. [트윗 34]가 처음 시작한 “블좌”의 움직임은 [트윗 30]의 글쓴이가 자해계들의 트윗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는 [트윗 30] 글쓴이의 발언과 괴롭힘에 자해계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였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블좌” 설정하기는 집단 경계를 설정하는 집단적인 행위인 동시에, 자해계 내에 어떤 것이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적 규범을 재생산한다. 물론 자해를 함부로 폄평한 이용자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게 “블좌”를 설정 당해도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다시 자해계를 폄평할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는 다시금 “블좌”의 움직임을 촉발할 것이다.

패션자해든 패션 정신병이든 그 정도를 타인이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료인도 폄평하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당신이 판단하고 폄평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어서)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 지기 위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동도 이유 없이 우울한 것도 결국 모두 정신병이에요

[트윗 35] 2020년 8월

그러나 자해계가 “패션자해론”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블좌” 운동으로 내쫓아 경계를 설정하더라도 여전히 “패션자해”라는 의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앞서 제Ⅱ장에서 분석했듯이, 자해 사진에는 일정한 연출 방식이 있으며, 이에 미학적인 태도가 개입된다. 따라서,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자해계 내부에서도 자해 사진은 ‘적절한’ 연출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존재하며, 뿐만 아니라 [트윗 35]의 글쓴이가 말하듯이 트위터에 자해 사진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게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이고 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소통을 시도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해계가 표현하는 고통이나 자해의 ‘진정성’은 놀이나 유행과 같은 것으로 치부되곤 하며 비웃음과 의혹을 사기도 한다. 실제 자해 상처와 트윗하는 사진은 다른 층위에 존재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이에 연출 및 표현이라는 이행 단계가 있다. 결국 사진을 트윗하는 행위는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기에 ‘심각하지 않거나’ ‘어설퍼 보이는’ 자해는 “패션자해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지속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며, “패션자해”라는 의심은 이분법을 둘러싼 논쟁을 반복적으로 불러온다.

자해계는 “패션자해론”의 이분법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패션자해”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패션자해”를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해계가 트위터가 아닌 페이스북에서의 ‘멋내기용’ 자해를 비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같은 반 애들이 패션자해를 해서 우리 같이 진짜 자해를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 ‘패션자해라는 트윗들은 별로지만 자해하면서 하트 모양을 하나 그리는 건 패션자해라고 본다’라

는 말 등은 자해계 중 일부는 “패션자해”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면서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트윗 36]은 트위터가 아닌 페이스북에서의 자해 사진 업로드를 비난하는 모습이다.

씨발 이딴 거 좀 올리지 마라 무슨 자해가 진짜 패션이고 가오  
인 줄 아나? 씨발 페북은 페북답게 밝은 거나 쳐 올려. 왜 음  
지에 있는 걸 진짜 위로 끌어들이고 지랄이냐고 전국 자해러들  
전부 좇되잖아ㅋㅋ숨기고 싶은 건 좀 숨기게 놔둬 누가 알아달  
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자기들이 더 정신병자인 척 하나

[트윗 36] 2019년 7월

2019년에 7월에 작성된 [트윗 36]은 2020년 6월까지도 “타임라인”에 공유되고, “리트윗” 100회, “마음에 들어요” 104회를 기록하면서 많은 자해계가 공감하고 호응했다. 페이스북이라는 타집단을 배척하는 모습은 “패션자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해로 품는 각자의 고통은 똑같이 인정받고 공감 받아야 한다는 앞선 입장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트위터 자해계의 자해는 ‘우리의 진정한 고통’이지만 다른 매체인 페이스북에서 나타나는 자해는 “패션자해”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는 현상에는 페이스북 자체와 페이스북 이용자를 불신하는 인식이 깔려있다. 페이스북은 “밝은 거”를 올리는 SNS이기 때문에 이용자도 긍정적인 내용을 게시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이들의 자해는 어설피고 뽀내기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트위터 자해계 집단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고통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내적 합의가 있는 동시에, 타 매체에서 자해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태도를 반영하며, 트위터의 자해계가 “진짜” 자해계이며 “진짜 정신병자”라는 공동 의식을 보여준다.

나아가 아래의 [트윗 37]에서처럼 다른 SNS 매체뿐만 아니라 더 넓은 타집단 ‘일반인’의 자해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정말로 믿었던 친구에게 고민 끝에 우울증이 있다고, 자해를 한다고 말했더니 해오는 말이 “오 진짜? 자해 멋있다.. 아픈 과거 있는 사람 같아.. 나도 해볼까? 어떻게 자해해야 안 아프고 상처는 멋있게 나냐” 정말 미친 게 아닐까 이 세상은 (이어서) 대체 왜 ‘패션 자해’, ‘겉치레용 불행’, ‘자신의 불행함 과시’ 같은 게 생긴 건지 정말 모르겠다. 자해는 절대로 패션으로 정의될 수 없고 자해를 패션으로 생각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의 머릿속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그저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동정을 받고 싶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 (이어서) 겉치레용 불행을 장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거짓들이 많아져 정말 힘든 사람이 자신의 얘기를 하며 비슷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위로 받고 싶은 마음을 불행함 과시, 겉치레용 불행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트윗 37] 2020년 6월

[트윗 37]은 자신의 자해 경험을 친구에게 털어놓자 자해가 멋있다고 대답한 친구에게 실망한다. 뒤이어 자해가 “멋”이 되는 현상과 “겉치레용”으로 자해를 따라하는 사람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대체 왜 ‘패션 자해’, ‘겉치레용 불행’, ‘자신의 불행함 과시’ 같은 게 생긴 건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말은 과시용, 겉치레용 자해 현상이 존재한다는 글쓴이의 전제를 보여준다. 이는 모순적인데, 한편으로 “자해는 절대 패션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해를 패션으로 생각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패션자해 현상의 실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패션자해는 “진짜” 불행과 고통이 거짓으로 치부되게 만들고 이 때문에 “진짜” 자해자는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없기에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펼친다.

여기서 글쓴이의 전제와 주장은 진짜와 가짜를 나눈다는 점에서 “패션 자해론”과 닮아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비교하는 사례, 겉치레용 불행을 비판하는 사례에서 보여주듯 자해계는 집단 내부에는 이분법을 부정하면서

도 트위터 자해계 바깥의 자해에는 “패션자해론”을 펼치는 상호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을 함께 펼친다.

(\*\*)님 말씀은 언제 들어도 항상 마음에 깊게 다가오네요, 맞아요 자신이 가진 상처를 멋대로 치부당해 버릴 때 정말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자해는 자신도 조절할 수 없는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도 (\*\*)님의 말씀에 힘이 나네요

[트윗 38] 2020년 6월

“자신이 가진 상처를 멋대로 치부당할 때”([트윗 38]), 다시 말해 자신의 ‘진정한’ 자해가 “패션자해”로 취급되는 상황에 대한 두 가지 반박 방식이 존재한다. 이는 패션자해도 존재하긴 하지만 자신의 자해는 패션자해가 아니라는 방식과([트윗 37]), 패션자해론의 이분법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트윗 33])의 두 가지다. 전자는 트위터 외부에, 후자는 자해계가 아닌 트위터 이용자에 대응하며, 이를 통해 자해계 집단은 자신의 자해와 고통은 진정하다고 말하는 동시에 고통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것을 막아준다. 자해계는 “패션자해”라는 반복되는 논쟁으로 진정한 고통이라는 집단의식을 환기하여 재생산한다.

자해계 집단 전반이 “패션자해론”에 보이는 양가적 반발은 자해계와 타집단의 경계를 설정하는 동시에 내부에서 공유된 의식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자해계 문화의 일부인 사진 올리기에 대해서, 사진 올리기 자체가 비록 보여주기 위해 표현되었더라도 표현한다는 사실 자체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공유된 의견이 존재한다. 이는 ‘우리’ 자해계끼리의 고통은 진정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고통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서로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공유된 규범과 “패션자해론”으로 대표되는 자해계 외부를 바라보는 자해계의 시선은 자해계를 단순히 계정이 모인 느슨한 집합이 아니라 ‘진정한’ 고통을 나누는 ‘우리’로 결사하게 한다.

## 2) 자해가 전시냐?: 자해 전시 논쟁

‘전시’란 작품 등을 다수의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자해계와 타이용자 모두에게 통용되는 말인 ‘자해를 전시한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펼친 논의를 따르면 자해계는 자기의 ‘진정한’ 고통을 표현하려고 상처나 약물에 의도적으로 구도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출한 결과물을 트윗한다. 자해 전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자해혼 노출을 관리하듯이, 트위터 공간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역전된 노출 관리 전략이다. 오프라인의 일상에서 자해혼 노출 관리를 실패하면 불이익이 동반될 수 있는 낙인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한 자해계라는 대안적 자아는 오프라인과는 반대로 자해를 의도적으로 노출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의 일환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의사소통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자해 전시는 트위터에서 자신이 본래 의도하지 않은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며, 이러한 사건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자해계 외부의 경계를 강화하고 내부적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해사진” 사건은 “패션자해” 논쟁과는 또 다른 맥락에서 자해계가 집단 외부와 논쟁을 벌이는 주제이다. “패션자해” 논쟁이 ‘나·우리의 자해가 패션자해로 보여지는가’에 관한 논쟁이라면, ‘자해 전시’ 논쟁은 자해 사진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업로드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도덕적 주제를 둘러싼 공방이다. 이는 이른바 ‘자해사진 실시간 트렌드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패션자해와 마찬가지로 사건과 관련된 논쟁은 한번으로 결론에 도달하여 끝나지 않으며, “실시간 트렌드”에 반복해서 나타나 “잇을 만하면 한 번씩” 일어나는 논쟁의 형태를 띤다.

이 논쟁이 일어나는 배경은 트위터의 느슨한 네트워크라는 작동 방식이다. 자해계의 자해 사진이 의도치 않은 우연한 계기로 집단 외부로 흘러나가고, 이렇게 유출된 자해 사진을 보고 놀란 타이용자들이 자해 사진을 찾아보지 말라는 트윗을 동시다발적으로 올리는 바람에 역설적으로 “자해사진”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게 된다. 다시 말해 자해계가

타이용자에게 일부러 자해 사진을 노출하지는 않으나, 우연한 계기로 자해 사진이 외부로 흘러나가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반복하여 발생하는 사건 중 주목하고자 하는 경우는 2020년 6월 수능 시험 모의고사 기간에 일어났다. 이때 치른 “모의고사”라는 키워드가 이미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는데, “모의고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한 트윗에 자해 사진이 함께 게시되었다. 아래 [트윗 39], [트윗 40]은 지금까지 여러 번 있던 “자해사진” 사건 중 하나가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새벽에 모의고사 실트길래 음.. 고등학생들 모의고사쳤나 하고 들어갔는데 자해사진 떡하니 있어서 너무 놀라고 손이 떨렸음... 제발 그런 거 공개된 계정에 좀 올리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진심으로 하는 말임

[트윗 39] 2020년 6월

지금 사람들이 자해사진을 실트 올려가며 불쾌감을 보이는 이유는 어제 새벽 모의고사라는 관련도 없는 실트 클릭했다가 봉변당한 분들 때문이에요. 그런 사진 전혀 볼 생각 없었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트라우마 트리거 자극됐는데도 동글게 표현하시는데 하실 말씀이 정말 그것뿐이신가요?

[트윗 40] 2020년 6월

“실트”(실시간 트렌드)에 올라 있던 “모의고사” 트윗을 보려고 클릭했지만 뜻밖에 자해 사진을 접한 타이용자는 놀라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트윗 39]). 이때 의견을 작성하면서 “자해사진”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모의고사”는 실시간 트렌드 순위에서 사라져 버린 지 오래지만 여러 트윗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자해사진”이 1위를 점하는 일이 일어났다.

“자해사진”을 전시해도 되는가를 둘러싼 논쟁에서 전시를 반대하는 측

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허락된 사람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계정이 아닌 공개된 계정에 자해계가 자해사진을 올려서 다른 사람이 실수로라도 자해사진을 접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원치 않게 자해사진을 접한 사람은 트라우마가 자극될 수 있고(“트라우마 트리거가 자극됐는데도”, [트윗 40]), 자해 사진 전시는 “폭력”이며, 다른 사람에게 우울과 자해를 “전염”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트윗 41]과 [트윗 42]는 타이용자의 이러한 입장을 잘 정리해서 보여준다.

자해사진으로 자기 우울을 남에게 알리려 드는 건 일종의 폭력입니다. 본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자신의 우울을 자극적이고 자칫하면 트리거가 눌릴 수 있는 부적절한 사진의 형태로 남에게 강요하는 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가능하면 그런 건 공개적인 곳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트윗 41] 2020년 6월

우울은 전염되는데 자해사진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건 문제 있는 게 맞지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저 SNS에 자해사진 올렸어요 해봐라 약 더 세계 즐겁

[트윗 42] 2020년 6월

자해계 내부에서도 이 ‘자해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다. 자해 사진을 접하면 “실시간 트렌드”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 트렌드 항목을 삭제하면 되는데 굳이 자해 사진을 찾아보면서 “트리거가 눌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일부 자해계는 자신들의 “정병”<sup>30)</sup>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자해 사진 전시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여기서 논쟁점은 “트라우마”와 “전염”, “정병의 심각성”으로 좁힐 수 있는데, 양측은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병리

---

30) 정신병의 준말. “정병”은 “정병리”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언어를 활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단순히 자해 사진이 ‘혐오’스럽기 때문에 보기 싫다는 주장은 공론장에서 설득력이 없다. ‘자해 전시는 옳은 것인가’로 시작된 논쟁은 자해 전시가 타인에게 가하는 “트라우마”적인 폭력이 아닌가에 대한 쟁점으로 나아가고, 이후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정신 질환이 더 심각하며, 더 배려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진행된다. 아래 [트윗 43]과 [트윗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양측은 모두 병리 언어를 적극 활용하는데, 이는 정신질환이나 병리적 현상을 겪는 사람이 이를 숨기려고 정신과에서의 진료비용을 비보험 처리한다거나 통상적으로 아주 믿을만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터놓는 모습과는 다르다.

ㅋㅋ자해사진 뜰 때마다 이렇게 매번 비난할 거야? 정신이 온 전치 앓은 사람한테? 꼭 그래야 마음이 편할까?

[트윗 43] 2020년 6월

나라고 자해하고 싶어서 이러나요~ 자해사진 보고 트리거 놀리는 건 너무 여태까지 행복하게 살아 왔던 당신의 인생 때문 아닐까요? 부럽다 씨발 나도 피 보면 역겹고 피 무서워하는 일반인으로 살래. 반평생을 피와 더불어 사는 인생 안할래 씨발

[트윗 44] 2020년 6월

자해사진.... 정병 걸려서 자신의 아픔을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이해할 수 있음... 근데 그런 사진을 비공개 계정도 아니고 뻔뻔하게 전체 공개로 돌려버리고 갑자기 타임라인에 그런 게 뵙 뜨면 당황스럽지...정병을 핑계로 그렇게 위로받으려는 건 잘못된 거야..

[트윗 45] 2020년 6월

자해 전시에는 자해계 집단 내부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규칙이 존재한

다. 예를 들어, 자해계 중에서도 유혈 사진을 못 보는 일부 자해계를 위해서 자해 전시 예정을 “트친소”에 알린다. 이는 “트친소”에 자해 전시를 미리 알려서 자해 사진을 봐도 괜찮은 사람과 트위터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본인은 자해를 하지만 자해 사진을 보고 싶지 않는 자해계가 예기치 않게 자해 사진을 접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행동이다.

여기에서 자해계 집단이 자해계와 타이용자를 대하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해계 집단에서 외부와 자해 전시 논쟁에 적극 참여하는 숫자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하지만 논쟁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치는 자해계는 자해 전시가 타이용자에 가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이 지닌 “정병”의 심각성을 근거로 삼아 맞선다. 이들은 다른 자해계와는 동등한 고통의 차원을 토대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교류하는 집단적 입장을 취하지만, 자해계보다 “정병” 고통이 덜 심한 사람이 자해 전시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 자해 전시가 타이용자에게 정신적 폭력을 가할 수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자해 전시가 트위터 정체성과 고통을 표현, 연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타이용자의 주장을 따라 비공개계정으로 자해 사진을 올린다면 자해계는 다른 자해계나 우울계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해 전시 사건은 “패션자해” 논쟁과 마찬가지로 경계 짓기와 내부 결집 효과를 낳는다. 이 반복적인 논쟁에서 자해 전시라는 말은 자해계 “트친소”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고, 자해계 내부로는 전시의 여부를 알려 집단 내부의 계정을 배려하는 동시에 트위터 친구를 사귀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반복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전염”론 혹은 “트라우마”론에 기반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자해 전시는 타 집단과의 고통의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기준이자 근거로 활용된다. 자해계는 자해를 전시해야 할 만큼 힘들지만 타이용자는 ‘그 정도로 힘든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써 자해 사진 전시의 불가피성은 어떤 자해계가 전시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우리의 동등하고 심각한 고통이라는 자해계의 집단성을 형성한다.

한편, 전시는 자해 사진이 의도하지 않게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면서 트위터에서 타집단이 자해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

다. 여기서 전시는 자해계가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기에 타이용자가 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의견도 나타난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도 하지만, 여러분이 공개된 계정에서 자해사진을 올리는 행동에 트리거가 눌러 피해 받는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그리고 그런 저 같은 사람들을 배려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적어도 비공개 계정으로 해주세요...

[트윗 46] 2020년 5월

실트 자해사진 말인데 예전에 교수님이 손목 긋고 응급실 오는 사람은 나 좀 봐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함. 진짜로 자살목적으로 자해하는 건 소리도 없이 죽어서 응급실 옴 자해사진 올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함 진짜 자살하기 전에

[트윗 47] 2020년 5월

이렇듯 ‘사건’을 바라보는 타이용자의 의견은 크게 전시가 타인에게 폭력이 될 수 있기에 자해 사진을 공개 계정에 올리면 안 된다는 입장([트윗 46])과 자해계의 고통 말하기로서 전시를 이해하고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트윗 47])이 뒤섞여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자해 사진이 혐오스럽다고 반응하는 의견도 존재하는데, 타이용자 중에서는 집단적으로 자해계를 조롱하거나 전시 행위에 혐오감을 표시하여 온라인에서 자해계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반박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트윗 48]).

그렇다고 그분들을 괴롭히는 건 옳은 접근법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자해계 이용자들의 취약함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자해계를 만들고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울이나 분노 같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해소하는 올바른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잖아요 (이어서) 트위터 안에 있지만 우리는 서로

완벽한 타인이예요 정말로요 정신질환만큼 개인적인 질환이 있  
던가요 혹시 그분들의 옳지 않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자  
신의 말과 논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만이 아닌지 의심해 보시  
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트윗 48] 2020년 5월

간헐적으로 트위터를 순환하는 자해계 사진 전시 사건은 타이용자에게 타자의 고통을 윤리적으로 재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집단적인 자해 전시와 정신병리 언어를 적극 활용한 발화는 의도치 않게 집단 외부로 하여금 자해를 단순히 병리적 현상으로 여기는 인식을 넘어서 자해자를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게 하는 계기가 된다.

### 3) 여성 환대와 남성 배척

또한 연구대상 청소년 자해계 집단은 여성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적인 접근에 대한 방어선을 설정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여성적인 집단 정체성은 집단의 인적 구성에서 여성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비롯되었기보다는 자해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로 자해계 집단의 일부 구성원은 여성 자해계를 환대하고 여성들끼리 트위터 친구를 맺고자 하는 반면, 남성에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젠더적인 경계를 설정한다.

물론 여성을 환대하고 남성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띠는 여성 자해계의 수가 집단 전체에서 과반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연구 대상인 자해계 집단은 여성을 환대하면서 남성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성 자해계, 젠더에 따른 태도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여성 자해계, 그리고 소수의 남성 자해계로 구성된다. 그러나 여성을 환대하고 남성을 배척하는 자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성 자해계가 자신이 여성임을 적극 밝히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남성을 배제하는 자해계가 “트친소”에 남성의 진입을 막는 표시를 게시하기 때문에, 남성 배제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는 여성 자해계도 자신

이 여성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자해계 집단의 관계망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남성 자해계가 자신의 관계망에 진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부 자해계의 적극적인 태도가 특별히 남성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여성 자해계로 하여금 그러한 분위기를 암묵적으로 따르게 하는 “트친소” 환경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자해계\_트친소 #우울계\_트친소

자해사진 올림 유희사진 올림. 저는 여자이고 남자 안 받아요  
뉴비아니고 2017년부터 계정 있었어요 근데 그 계정 사정상 못  
쓰게 돼서 새로 만들었어요

[트윗 49] 2020년 5월

우울계/자해계. 자해사진 올림/동성애자/남자 싫어함/미성년자  
아님, 성인. 근친금지죄/선팔=맞팔/블락=이별/남자안받음/ 편하  
게 말 걸어주세요

[트윗 50] 2020년 6월

#우울계\_트친소 #자해계\_트친소, 07년생 술,담배X 자해, 자해  
전시, 남혐 있음(트라우마)

[트윗 51] 2020년 8월

위의 인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성애자 여성이든 성소수자 여성이든 “트친소”에서 여성 자해계는 대체적으로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다. 여성 자해계 대다수는 “트친소”에 성별 항목을 삽입하여서 자신이 여성임을 드러내거나, “트친소”와 함께 “셀카”를 업로드하거나, 프로필 사진으로 자신이 여성임을 알리는 경우가 많다. 앞서 제Ⅲ장에서 살펴본 “트친소”인 [트윗 26], [트윗 27], [트윗 28]은 직접 자신이 여성이라고 소개하면서 프로필 이미지로 자신의 얼굴을 등록하였고, 위의 세 “트친소” 트윗은 [트윗 49] “남자 안받아요”, [트윗 50] “남자싫어함”, [트윗 51] “남혐 있음”(남성혐

오) 문구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남성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은 “트친소”를 통해 남성의 진입을 차단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남성의 성적인 접근과 섹계의 접근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

섹계는 자해계를 만만하게 봄

[트윗 52] 2020년 6월

([트윗 52]에 대한 멘션) 우울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조금만 잘 해줘도 넘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ㅋㅋ

[트윗 53] 2020년 6월

우울트/일상트/육트/자해 사진/ 그림 많이 올라감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스마일마스크 증후군, 대인기피증} 트라우마 극 심함, 섹계 꺼져 씨발놈들, 이별은 불량. 감정기복 심함

[트윗 54] 2020년 5월

이분 존나 알고보니 섹계 팔로우하신 분이네요^-^ “자해사진을 못 보지만 괜찮게 해주려면 봐야하는데” 어찌고 하면서 개소리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초면에 반말 하시고 이상한 분이니 차단하세요

[트윗 55] 2020년 8월

섹계에 보이는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혐오감은 [트윗 54]에서 보이는 “섹계 꺼져 씨발놈들”이라는 문구로 나타난다. 위의 네 개의 트윗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해계는 정신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정신질환자 여성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착취를 하는 섹계 남성을 집단적으로 차단한다. [트윗 52]와 그에 대한 “멘션”인 [트윗 53]은 섹계 집단이 자해계 여성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만만하게” 본다는 의견을 확인하면서 이들을 거부하는 의사와 집

단적인 주의를 환기하는 트윗의 일환이다. 집단적인 섹계 거부는 “블좌” 움직임으로 나타나곤 한다. [트윗 55]와 같이 “블좌”는 섹계를 팔로우하는 사람도 표적으로 삼는데, 섹계가 자해계 집단에 유입되는 것을 반대하며 섹계와 교류 하는 계정도 내쫓고자 한다. 물론, 섹계나 섹계를 팔로우하는 자해계에 “블좌”를 설정하는 방식의 집단적인 차단도 섹계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블좌” 설정하기는 원치 않는 성애적 접근에 대한 주의를 집단 내에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효과를 낳는다.

남성이나 섹계에 대해 취하는 배타적인 태도는 자해 집단에서 소수인 남성 자해계가 자신이 남성임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게 만든다. 물론 남성임에도 자신이 여성이라고 속이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이며, 프로필 사진 등으로 자신이 남성이라고 밝히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자신의 성별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지 혹은 자신의 성별을 속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남성 자해계는 여성 친화적이며 남성 배타적인 문화에 자신을 맞추어 트윗하고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연구 대상 청소년 자해계 집단이 여성으로만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이 집단은 지배적으로 여성적인 정체성을 띠게 된다. 또한, 모든 여성 자해계가 남성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성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에 항상 집단적으로 주의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젠더에 바탕한 경계를 설정한다고 볼 수 있다.

## 2. 자해의 ‘규칙’과 상호 돌봄 나누기

지금까지 자해계가 외부와의 논쟁과 경계 방어를 통해 집단으로 결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자해계가 집단 내부에서 상호작용하여 대안적이며 자조적인 집단을 형성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자해계 내에서 폭넓게 이루어지는 자해 노하우 나누기 관행에 대해 대립하는 입장이 나타나며, 특정 자해 사건이 부적절한가의 여부를 둘러싸고 자해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은 자해계 집단 안에서 무엇이 바람직하며 어떤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일종의 윤리적 규범이 존재함을 반영한다. 한편 자해계

집단 내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적절한’ 자해를 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해계는 서로를 보듬는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부조를 통해 자해계는 자신의 오프라인 조건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학내 상담 체계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고통을 돌보기 위하여 병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환한다.

## 1) ‘적절한’ 자해에 관한 집단 내부 규범

### (1) 노하우 나누기를 둘러싼 두 의견

자해계 집단에는 자해에 대한 윤리적 입장들이 존재한다. 이는 자해 노하우 나누기를 둘러싸고 대립되는 견해가 표출되는 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해계 내부에서 자해 방법 공유에 관한 의견은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 물론 자해와 자해 표현이 자신을 위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공통된 전제가 있으며, 이는 자해계 집단에 진입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타인의 자해를 돕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자해 방법을 묻는 경우 대답을 거절하는 자해계도, 스스로 자해 노하우를 나누는 자해계도 존재한다. 자해 지식을 나누는 자해계는 자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 트윗을 올린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자해계는 자해 행위 자체는 타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지만 자해를 조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에서 자해 방법을 공유하지 않으며, 자해 노하우를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해계 집단 내부에서도 자해를 둘러싸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윤리적 차원의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윤리적 차원에서는 자해가 좋지는 않지만 어려운 현실과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공통 토대를 확인하며, 이 토대를 바탕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옳은가를 지속해서 고민한다.

마지막으로 소독은 엄청 중요하다. 나도 소독을 잘 안하는 편인

데 트친분들 흥지면 안되니까 꼭 했으면 좋겠다. 연고를 바르는  
걸로 대체해도 된다.

개인적으로 트위터 친구분들은 자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어떨 때는 남 탓을 해도 괜찮다. 어  
떨 때는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그대의 선택이 나는 현명한 선택  
이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짐과 아픔을 내가 짊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자해 조장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관련 트윗은 지웠습니  
다 제 생각이 짧았네요.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려요

[트윗 56] 2020년 9월

[트윗 56]은 안전하게 자해를 하는 노하우를 올렸다가 자해를 조장하  
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받았고, 이 의견을 참조하여 소독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내용을 제외한 자해 방법을 삭제한 사례이다. 원래의 의도는 트위터  
친구가 자해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해한다면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방법을 나누려는 것이었고, 이후 자해 노하우 공유에 대한 반대 의견  
을 반영하여 트윗을 삭제하였다. 물론 글쓴이가 실제로 자해 조장을 반대하  
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무엇  
이 올바른 것인지 고민하고 자신의 경솔했을 수도 있는 노하우 나눔에 사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자해 노하우 나누기와 비판이 항상 한 의견으로 수렴하지는  
않는다. 주목할 점은 대조되는 두 가지 의견이 서로 격렬하게 갈등한다기  
보다는 조심스럽게 트위터 친구에게 보내는 의견 제시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는 사실이다.

(질문 트윗 : 자해할 때 칼 뭐쓰는지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질문 주신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해조장은 하지 않아요.. 물론 제 사진이  
자해 조장에 해당될 수 있지만 최소한 양심은 있어서 뭘로 자

해하는지 방법을 알리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트윗 57] 2020년 4월

위의 [트윗 57]은 자해 방법을 질문한 트위터 친구에게 보낸 답변으로, 글쓴이는 자해 방법 나누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글쓴이가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에서, 자해에 관한 자신만의 윤리적인 입장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해 사진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자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쓴이의 언급을 고려하면(“제 사진이 자해 조장에 해당될 수 있지만”), 글쓴이는 “조장”과 관련해서 걱정된 행위가 무엇인지 타협점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해계는 자해 조장이라는 현상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지만, 그 입장을 설정할 때 집단 내에서 나름대로 적정선을 모색한다. 아래 [트윗 58]은 자해 방법을 나누기에 반대하는 위의 글쓴이와는 다르게 사혈 자해에 대한 “안전한” 노하우를 자세하게 서술하면서도, 이러한 서술이 자해를 조장하려는 의도를 지니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혈자해 자체로 위험하기는 하지만 더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칼이 아니라 주사기를 구할 만큼의 정성을 들인 만큼의 보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 이상 사혈자해의 기본지식(?)에 대해서 적어봤네요

어쩌다보니 조금 다른 길로 댄 것들도 있기는 한 것 같지만...

당연한 말이지만 저는 사혈자해를 조장하기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한 게 아니고 올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함으로 작성한 것을 밝힙니다.

그럼 다들 자해로나마 위로받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트윗 58] 2020년 11월

이렇듯 자해계 집단이 자해 노하우를 나누는 행동을 바라보는 입장은

‘안전하게 자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와 ‘자해 조장은 옳지 못하다’ 사이에 위치한다. 물론 ‘안전’과 ‘조장’ 중 어느 쪽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자해계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데 어떠한 제약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자해 사진을 올려서 자해를 ‘조장’하게 될지라도 구체적인 방법은 알리지 않거나, 안전한 자해를 알려주는 동시에 자해 조장을 바라지는 않는다는 두 트윗은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하기는 하지만 자해계 집단 내에서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이는 ‘적절한’ 자해를 규정하는 다른 의견일 뿐이다.

이처럼 자해계에서는 다른 의견이 공존할 수 있지만, 공통의 윤리적 전제를 위반하는 ‘부적절’한 자해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거부의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자해계 집단에는 자해에 관한 규범이 존재하며 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대립되는 의견이 공존할 수 있지만, 공통된 전제를 일탈하는 경우 집단에서 내쫓길 위험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금지 규범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석한다.

## (2) 규범과 위반의 효과

앞서 자해 노하우를 둘러싼 대립하면서도 공존하는 윤리적 입장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면, 규범 위반자가 집단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봄으로써 강한 금지 규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하트 자해” 사건은 금지규범의 강력한 작동사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한 자해계가 자신이 좋아했던 상대에게 자해로 흘린 피로 하트를 그린 그림을 차에서 보여주며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매일 너를 생각하며 자해를 했다”며 겁을 준 경험을 트윗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하트 자해 트윗은 자해계 집단에서 공분을 일으키면서 집단의 공론장에 떠올랐다.

[...] 친구분께 너 때문에 자해했다, 피로 하트도 그려왔다 하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면, [...] 우선 정신 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딱 보자마자 무섭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

(이어서) 그리고, 피로 하트 그리는 행위 그 자체는 본인만의 해소 방식이구나 하고 생각하겠는데, 그걸 남에게 보여주고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는 짓은 왜 하신 거예요? 본인 감정만 생각해서 가스라이팅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좀 생각해 가면서 행동하셨으면 좋겠네요.

[트윗 59] 2020년 7월

[트윗 59]는 자해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보여준다. 글쓴이는 자해행위에서 흐르는 피로 하트 모양을 그리는 것은 자신만의 자해 방법이기에는 허용될 수 있지만, 피로 그린 하트를 헤어친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겁박이라고 평가한다. 하트 자해를 한 당사자가 친구로 인해 고통을 받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자해의 책임이 친구에게 있다는 식으로 친구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행위(“가스라이팅”)를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자해를 활용하여 타인에게 겁을 주는 행위에 대한 비판은 자해계 집단이 자해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강하게 드러낸다.

상대가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한다고 해도 너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힘들어서 자해를 했다고 자해한 피로 하트 그린 거 보여주면서 겁을 줬다는 것까지 전부 최악임. 정신병을 방패로 쓰면 안 됨. 이건 정말 상대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었던 일이잖아. (이어서) 상대 분께서 괜찮아하시고 서로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이게 옳은 행동이 절대로 아니고 다신 해서 안 될 것인데. 탐라 너머로 보다가 조용히 블락하고 왔어요. 조만간 체인블락 돌리도록 할게요.

[트윗 60] 2020년 7월

[트윗 60] 역시 고통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겁을 줌으로써 피해를 준 이 사례의 당사자를 비판하는 동시에, “정신병을 방패로 쓰면 안”된

다는 조금 더 일반적인 주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반응은 자해를 하는 사람 사이에 자해 행위를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질환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비록 상대방이 “괜찮아 하시고” 받아들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으며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규범 위반이 된다.

이후 하트 자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처분이 뒤따랐다. 해당 처분은 상대방과 트위터 친구 관계를 단절하는 “블락”이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블락” 대상자와 트위터 친구 관계인 모든 사람을 함께 “블락”하는 “체인블락”의 형태를 취하였다. [트윗 60] 글쓴이가 선언한 “블락”과 “체인블락”은 단순히 개별적 관계의 단절에 머무르지 않는 일종의 집단적 처분이다. 공개 비판과 더불어 이루어진 “블락” 선언은 자신의 트위터 친구도 덩달아 비판 대상자를 “블락”하게끔 설득하는 효과를 발휘하며, “체인블락”을 실행한다는 말은 사실상 자신의 트위터 친구 모두 함께 상대방을 블락하도록 강제한다. 이러한 “체인블락” 발화는 이를 접하는 사람에게 그 사안에 강한 관심을 가지게 하며, 중대한 사건에 대한 공적인 선언의 효과를 지닌다. 실제로 설득력이 있는 “블락”이나 “체인블락” 선언은 대상자를 집단 밖으로 쫓아내기도 한다.

축출 대상은 “체인블락”을 선언하는 사람이 얼마나 집단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에 동조하는지에 따라 집단의 경계선 변두리로 밀려나거나, 자해계 활동을 그만두거나, 혹은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서 처음부터 관계를 다시 형성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여기서 해당 사건인 하트 자해 사례의 당사자는 집단 내의 규범 위반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논쟁에 뛰어들어 자신을 방어하였고, 이는 다른 자해계에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으로 비춰졌다([트윗 61]). 이러한 태도는 결국 다수의 자해계가 “블락” 선언 또는 “체인블락”을 실행하게 하였고, 하트 자해 사건 당사자의 계정은 영원히 삭제되었다.

하트자해사건 보고서도 마음이 아픈 게 당사자는 그게 잘못된

지 모른다는 거임.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뭔가 마음 한쪽이 아프다.

[트윗 61] 2020년 7월

## 2) 위로하고 호소하는 유대

앞 절에서는 자해계가 암묵적으로 전제된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윤리적 입장을 지닌다는 점과 ‘부적절’하게 자해를 활용하는 경우에 위반자를 집단적으로 제재하는 사례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자해계 집단 내 윤리적인 금지 규범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절에서는 자해계가 자해라는 ‘병리 현상’을 관리하는 학교나 병원 등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서적으로 교류하면서 대안적인 유대를 이루는 과정을 조명한다. 청소년 자해자이자 자해계는 이러한 유대를 통해서 생존해 나가는 방식을 터득한다.

### (1) 병원을 활용하기, 학교에 저항하기

자해계가 주로 마주하는 기관은 청소년이자 학생의 오프라인 일상 전반을 둘러싼 학교와 정신질환자로서 의사와 만나는 병원, 두 곳이다. 자해계는 학교와 병원과 같이 자해를 병리 현상으로 관리하는 두 기관에 일방적으로 포섭되지만은 않는다. 자해계는 오프라인 일상에서 마주치는 두 주류 관리 기관에서 겪은 경험을 자신의 말로 다시 서사화하고, 이를 서로 교환하여 자신을 둘러싼 현실 조건에서 이 기관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를 참조한다. 자해계의 자해 경험 트윗은 단순히 기술(descriptive)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 의례를 통하여 화행(speech act)의 효과를 낳는다. 학교나 병원에서 겪은 개인 경험을 담은 텍스트는 자해계의 트윗을 통해 집단 안에서 “멘션”, “리트윗”, “마음에 들어요”라는 공감 의례를 거치며 집단 내에서 순환하고, 이 과정에서 수행적 효과를 일으킨다. 자해계는 트윗이라는 발화 형식으로 두 기관에 관한 경험을 트위터 내에서 재형성하여 미시적인

기억을 되새김하는데, 이는 트윗을 읽는 이가 글쓴이와의 공감과 공동 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각 관리 기관에 보이는 태도와 그곳에서 취하는 행위를 바꿔 나가게 한다.

자해계 집단은 청소년 자해를 관리하는 기관인 학교와 병원에 상이한 입장을 보인다.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해계는 정신의학의 병리 언어가 담지하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고통을 정식화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신과 의사의 전문 지식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편, 자신의 학교생활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학내 상담 기관과 관련해서는 대항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재생산한다. 우선 아래에서 자해계가 정신 병원의 치료 과정에 보내는 신뢰와 경험을 나누는 모습을 살펴본다.

오늘도 외래를 다녀왔다. 선생님께선 지금처럼 한 시간 면담을 이어가면 점점 어두운 곳으로 빠져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당분간 일반 외래로 옮기자고 하셨다. 나는 처음에 이렇게 길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선생님뿐이라 계속 면담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내 수긍했다.

[트윗 62] 2020년 6월

(의사에게) 술 마신거랑 자해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그건 말 안해주신 것 같고 엄마가 나온 다음에 설문지 한 봉투이 받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끝~ 다음주 수요일에 다시 가기로 했어요 좋았어요

[트윗 63] 2020년 7월

내일은 두 번째 병원. 검사비를 35만원을 쓰게 된 엄마 표정이 좋아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도움이 되기를 바라야지

[트윗 64] 2020년 5월

자해계는 병원에서 겪는 경험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서술한다. [트윗

62]는 의사와 면담을 지속하고 싶지만 전문가로서 의사를 신뢰하기에 일반 외래로 옮기자는 의견을 따르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트윗 63] 역시 가족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자해와 음주 사실을 자신이 신뢰하는 의사에게 터놓으면서 다음 만남을 기대한다. [트윗 64]는 의료 기관을 거쳐 자신의 상황이 낫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의사와 의료 기관에 보이는 신뢰는 트윗을 통해 집단적 경험으로 공유되면서 재생산된다.

이와 같이 병원이라는 관리 기관에 호의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트윗과 “트친소”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병원 O” 또는 “대학 병원 다님” 등과 같은 문구는 자해계가 자신의 고통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의료 기관과 병리 언어를 활용하는 모습이자, 동시에 관리 기관이 자신의 삶을 낫게 할 수 있으리라 희망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자해계에 나타나는 이러한 트윗은 정신질환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오히려 고통의 자격이자 표현 양식이 되면서 다른 자해계도 병원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자해계는 학교에 대해서는 상반된 경험과 입장을 공유하는데, 학교의 위기 학생 상담소인 위클래스와 같이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킬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관리 기관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화를 한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상담을 시켜서 위클래스를 다녔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 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말 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믿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은 어느새 모든 선생님이 알고 계셨어요.

[트윗 65] 2020년 7월

[트윗 65]는 위클래스의 상담사에게 자해 사실을 터놓고 말한 후 위험 행동을 하는 학생으로 간주되어 모든 교사에게 그 사실이 통보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나눈다. 이런 트윗을 접하는 학내 청소년 자해계는 학교와 위클래스를 불신하게 되고, 따라서 차라리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트위터에서 포레 세대인 다른 자해계와 소통하기를 택한다.

자해계가 학내 관리 체제에 보이는 불신은 주변의 다른 자해계의 공감  
을 얻으며 오프라인에서의 행동 방향을 바꾼다. 아래 두 자해계가 나누는  
대화는 학교와 위클래스에서 겪은 경험을 담으며, 관리 기관에 지닌 불신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보여준다.

(글쓴이 A) 학교에서 자살생각 한적 있냐는 설문조사 아무리  
해봐라 시발 누가 체크하나

(글쓴이 B) 맞아요ㅋㅋ... 그거 볼 때 마다 어이없어요

(글쓴이 A) ㅋㅋㅋㅋ 막 자해 했던 적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체크하면 학교 전체에 소문나겠조

(글쓴이 B) 전 병신처럼 자해는 해 봤다고 했다가 수업 중간에  
매일 위클래스 끌려가고 진짜 쪽팔려서 죽고 싶었어요...

(글쓴이 A) 헐.... 선생들이 왜 그럴까요ㅠㅠㅠㅠ 할 거면 학생한  
테 물어보거나 조용히 불러야지ㅠㅠ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트윗 66] 2020년 8월

대화에서 나타나는 “누가 체크하나”라는 말과 “ㅋ”로 표현되는 조소는  
이들이 공유한 학교-위클래스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 우선 글쓴이 A와 B  
는 설문조사에 솔직하게 응했던 경험과 그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서로 공유  
하면서 학교-위클래스에 대한 불신을 상호 강화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트  
윗은 단순히 대화 참여자뿐만 아니라 트윗을 접한 다른 자해계에게도 학교  
설문에 솔직하게 응할 경우 위클래스에 “끌려”가며, 위클래스에서도 솔직하  
게 말한다면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나 오프라인 생활에서 강한 불이익을 초  
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결국 자해계의 학교-위클래스와 관련한 트윗은 단순히 미시적 경험을  
서술하거나 또는 두 자해계 간에 담화로만 그치지 않으며, 화행을 통한 현  
저한 담론적 효과를 낳는다. 청소년 또래 집단인 자해계 집단은 이러한 경  
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학교를 다니는 자해계에게 학교는 오프  
라인 생활을 전방위적으로 형성하고 지배하는 생활환경이다. 학교 구성원과

가족이라는 매우 제한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청소년 자해자들이 트위터에서 형성한 자해계는 학교생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다른 또래 자해자의 경험을 접할 수 있는 대안적인 자아이자 통로가 된다.

자해계가 학교와 병원에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위클래스가 '위험 행동'인 자해사실을 담임교사와 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데 비해, 의사는 자해 사실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학교 내 상담 기관은 선택할 여지가 없는데 비해 병원은 자신에게 잘 맞는 의사를 선택할 여지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해계가 두 기관에서 겪은 상이한 경험이 공감 의례를 통하여 공유되고 이에 따라 두 기관에 대한 반응이 계속적으로 생산한다는 점이다. 자해계의 학교 생활이나 가족에게 얼마나 지지받는지 등 오프라인 삶의 조건은 각기 다르지만, 청소년 자해자는 트위터에서 생성하는 대안적 자아와 여기에서 접하는 타인의 경험을 참조하여 오프라인에서 행동을 수정한다.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두 기관에 지니는 경험과 행동 양식은 온라인 화행으로 공유되며, 이는 다시 자해계라는 공동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성 형성에 기여한다. 즉, 새롭게 자해계를 형성한 청소년 자해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러한 입장들을 체화하여 발화(온라인)하고 행동(오프라인)한다. 그리고 여기서 재생산되는 행동은 관리 기관에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로 양분되며 상호 강화한다는 점에서, 자해계가 기관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기관의 의도와 달리, 자해계 집단은 기관들의 작동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거나 거부한다.

## (2) 서로를 보듬는 정서적 교류

자해하고 싶은 거 자해하는 거 사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든 봐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게 설령 살면서 안면을 튼 적도 없는 SNS 속 익명의 누군가라도, 괜찮다고 말해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서. 너무 뭐라 비난하지 말아요 우리를.

[트윗 67] 2020년 5월

(자해를 했다는 트위터 친구의 트윗에 대한 멘션) (\*\*)님 ,, 그 우울함을 제가 다 알 순 없지만 상처 소독 꼭 하고 약도 챙겨 달라주세요. (\*\*)님은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

[트윗 68] 2020년 5월

지금까지 자해계가 오프라인 병원과 학교에서 겪은 경험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며 태도와 행위가 공동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면, 본 단락에서는 자해계가 서로 위로를 나누는 모습으로 자조적인 유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조명한다.

[트윗 68]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해계는 집단 내에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응답으로 위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정서적으로 돌본다. 호소와 위로를 교환하는 상호 돌봄은 자해계 집단이 서로를 엮어내는 방식이다. 또한 이는 전문가가 권위를 바탕으로 고통에 관한 해석 권한을 쥐고 있고, 그러한 기관에서 자해를 단순히 질병-치료 서사로 배치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물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해계 집단 내부에도 일정한 말하기 방식과 윤리적 입장이 있고 정신 의학 담론과 병원이라는 기관에 의지하고 인용하며 발화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자해계 집단에는 특정한 권위를 담지하는 해석 주체가 없으며, 각자가 호소하고 위로하는 당사자이자 발화자이다. 오프라인에서 청소년 자해자로 주변화된 이들이 자해계를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발화할 수 있고, 서로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자조적 유대를 형성한다. 병리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발화 방식과 의료 기관의 치료에 조응하는 태도는 정신의학 담론의 질병과 치료라는 구성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인용 과정에서 자해계 집단은 기존 구성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고 탈권위적인 상호 돌봄 교환을 구성한다.

나는 중학생 때부터 자해를 했고 그때부터 정상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내가 병원에 처음 갔을 때 가장 무서웠던 건 “아무런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였다. 정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그동안 우울했던 게 남들도 다 겪는 수준이었던 것뿐이면 어떡하지. *(이이서)* [...] 당신이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힘들었기에, 당신의 삶을 응원한다는 말을 건네고 싶다.

[트윗 69] 2019년 7월

[트윗 69]의 글쓴이는 병원에서 자신의 고통을 인정해주지 않을까 걱정  
정한 경험을 털어놓는다. 이는 글쓴이가 정신 의학의 전문가가 자신의 고통  
을 해석하고 병명으로 인정해야만 고통이 진지한 고통으로 수용된다고 생각  
했음을 보여준다. 제Ⅲ장에서 봤듯이, 정신 의학과 병명을 신뢰하는 자해계  
에게 병원은 고통 경험의 해석을 의탁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병원의 진단에만 집착하지 않  
기를 바란다. 글쓴이는 병원의 진단과 그에 근거한 치료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외부의 권위에 기대지 않는 자기 인정의 가능성을 전  
한다.

네가 너무 걱정 돼

[트윗 70] 2020년 6월

그냥 아무나 나한테 그동안 버티느라 수고 많았다고 해 줬으면  
좋겠다

*(비공개 계정의 멘션을 생략)*

고마워요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트윗 71] 2020년 8월

자해계는 누구나 고통을 호소할 수 있으며, 그런 호소에 위로하는 말  
을 건넬 수 있다. [트윗 70]은 약물 자해를 예고한 자해계의 트윗에 달린  
답글이다. 자해계 집단에서는 전문가와 만나려고 예약하고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서도 즉각적으로 정서 교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자해계의 고통 말하

기와 위로 나누기는 집단 내의 트위터 친구 간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에 대한 대안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윗 71]과 같이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작용은 자해계 집단이 유대를 지속하게 하는 핵심이다. 이처럼 호소하고 위로하는 트윗은 허공에 내뿜는 외침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친밀성의 망에 자신의 고통과 감정을 공유하는 통로가 된다.

저의 탐라를 우울과 위로로 채워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우울한 트윗들을 보며 위로를 받는 저로써 정말 큰 부분이거든요 저따위 계정이 팔로워 삼백넘게 유지한다는게 가능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트윗 72] 2020년 7월

[트윗 7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서적 교류를 지속하는 대안적인 집단의 존재는 자해계에게 병원 같은 기관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 자해자인 자해계는 성인에 비해 자신을 지지하는 동료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고, 비용이나 접근성 등의 문제로 병원이나 전문적인 상담 기관 등 도움을 요청할 곳을 가족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찾아 가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해 문제에 관하여는 학교에서 만나는 오프라인 관계보다도 선택적으로 즉각적인 교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트위터 친구 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또한 트위터의 자해계에서는 자해하는 사람끼리 모였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관계에서 쌓는 것과는 다른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자해계 집단이라는 자조적 유대 관계는 학교-위클래스의 예방·관리체계에서 자해 사실이 모두에게 퍼지는 위험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자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아래 [트윗 73]의 사례와 같이 가족에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없고, 의료 기관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왜 병원안가고 혼자 나는 우울증이야 자해한 사진 올리면 패션

자해 미친년 취급받아야해? 병원 못 갈 수 있지 주변사람들 눈을 생각해 가족이 그 지랄을 하는게 어떻게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힘들다고 하면 맨날 사춘기야 누구나 그래 그런 소리만 듣는데

[트윗 73] 2021년 1월

(자해 사진과 함께 힘들었다고 쓴 글에 대한 멘션) 오랫동안 참으셔서 정말로 응원하고 있었는데 오늘 결국 하셨네요.. 그동안 잘 참으셨는데 상처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상처 치료 잘 하시고 흥지지 않게 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트윗 74] 2020년 7월

[트윗 7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해계 집단은 자해를 스스로 위안하는 수단으로 서로 장려하기보다는, 자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임을 인지하며 자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공감과 격려를 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위터에서 자해 사진을 집단적으로 올리는 현상이 자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자해에 쉽게 접근하게 함으로써 자해를 ‘전염’시키고 ‘양산’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트위터 자해계가 자해를 “유행”시키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나타나는 자해 관련 자료를 정책적으로 막아한다는 전문가<sup>31)</sup>나 언론의 의견은, 오프라인에서 이미 존재하는 자해를 은폐하며 트위터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자해자를 다시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달리, 자해계는 청소년 자해자들이 이들을 둘러싼 오프라인 환경에서 얻을 수 없는 이해와 공감을 온라인에서 나누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자해자들을 더 쉽게 생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해계라는 대안적 자아와 자해계 집단은 청소년 자해자가 오프라인의

---

31) 예를 들어 『국민일보』, ““유행처럼 번지는 청소년 ‘자해 인증샷’... 막아주세요” 정신과 의사의 호소”(박지현), 2018. 7. 25일자.

삶을 지속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따라서 자해계 ‘문제’는 단순히 자해 자료 차단을 통하여 일소할 대상이 아니며, 자해계가 형성하는 대안적 유대 관계를 통해 생존해 나가는 청소년 자해자가 처한 삶의 조건을 면밀하게 짚어볼 필요를 제기한다. 아래 [트윗 75]의 대화는 서로 돕고 더 나은 삶으로 개선해나려는 자해계의 노력과 자조적인 유대를 보여준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최근 병원 다니면서 처방 받고 약 복용 중이네요. 아무도 읽어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말해볼래요  
수요일에 종합검진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인 제 상태를 알고 싶어요 여태 가슴앓이 하던 저는 슬슬 이겨내보려고 하지만 의지가 많이 부족해요 잘 할 수 있겠죠? 다들 사랑해요  
(위 트윗에 대한 멘션) 우울증에 걸리면 뭘 해보겠다는 생각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인데, (\*\*\*)님은 병원 가서서 약도 처방받아서 잘 드시고 여태까지 잘 견뎌 오셨으니 아마 앞으로도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수요일에 가서서 감사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트윗 75] 2020년 7월

## 제 V 장 결론

자해는 은폐되어야 할 행위로 간주된다. 일상에서 자해의 노출을 관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자해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나 생활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제한적인 청소년은 자해와 자해를 일으키는 정신적인 고통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가족이나 학교 등 일상 환경에서 고통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청소년 자해자는 트위터에서 자해 경험을 나누는 “자해계”라는 온라인 자아와 여기서 서로를 돌보는 집단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자해계 집단이 지식 담론 및 담론이 구축한 제도적 장치들을 어떻게 굴절시키고 활용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자해계 집단이 자조적으로 연대하며 생존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자해계와 지식 담론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우선 자해에 관한 지식 담론의 역사적 축적 과정과 자해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구축되어가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푸코의 고고학적 탐색 방법을 적용하여 자해에 축적된 함의를 읽어냈으며, 계보학적 방법을 통해 생산적 권력의 한 단면으로서 “생체-권력”적인 청소년 자해 관리 장치의 연원을 추적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연구주제로 청소년 자해를 다루는 학술 자료를 지식 담론을 읽어내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해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지만, 당대의 관점이 이후의 관점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자취를 남기며 축적되는 모습을 보인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학술 자료는 청소년 자해를 비행의 상징으로, 자해하는 청소년을 도덕적인 계도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술 자료는 청소년 자해를 “문제행동”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찾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청소년 자해는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부도덕한 행동’으로부터 소극적인 ‘부적응의 결과’로 파악된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자해는 미래를 담보하는 청소년의 ‘문제’로서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떠오른다. 청소년

문제로 자해를 바라보는 관점은 2010년대에도 지속되며 전화하였다. 이 시기 청소년 자해는 ‘금기’이며 ‘문제’이자 ‘병리적 현상’으로 간주되어, 이를 전방위적으로 예방하는 체계가 구축되었고, 이 체계를 통해 자해 청소년은 온전한 관리대상으로 떠올랐다

한편, 2010년대에 들어서 지식 담론은 자해를 “유병률”이라는 양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연구자는 2013년에 등장하는 ‘비자살적 자해’ 개념으로 자해를 병리 체계로 포섭하며 자해의 원인을 진단하는 동시에 개인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연구자는 이러한 기제의 극단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연구 사례군인 장애인 자해 연구를 살펴보아, 자해에 얽힌 구조적 문제를 개인화하여 해결책을 처방하는 체계의 모습을 밝혔다. 자해를 양적으로 파악하며 개인화된 처방을 하는 체계는 청소년 자해를 전방위적으로 관리하는 장치와 결합하여 청소년 자해자를 인구통계학적으로 전수 조사하게 했으며, 자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학내 상담 기관 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자해계가 정신 의학이나 청소년 자해의 지식 담론이 제도화한 청소년 자해 전수 검사, 학내 상담 기관 등과 같은 장치의 의도대로 항상 포착되거나 관리되지는 않는다. 2016년 트위터에서 2차 창작물에 자해하는 가상 캐릭터를 도입하는 창작 행위가 나타났는데, 실제로 자해하는 트위터 이용자들은 이에 반대하여 자해 사진을 집단적으로 트윗하였고, 이를 계기로 자해계가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자해계는 트위터 내에서 일종의 계정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해계는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정신의학적 ‘병명’과 청소년 규범 ‘위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자해에 얽힌 낙인을 전용하고, 고통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담론을 재맥락화하고 굴절시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본 연구는 담론의 생산적 측면을 읽어내면서도 주체가 단순히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만을 보기보다는 담론과 주체가 상호 연관 속에서 복합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장면을 그리고자 하였다. 주체는 자신을 주조하는 담론적 조건을 수행을 통해 활용하여 담론의 권력적 작용과 의미를 탈각시키는 저항적인 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자해계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시적 글쓰기와 자해를 사진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술적인 실천을 하며 미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모습을 조명했다. 시적 글쓰기와 자해 사진을 미적으로 연출하는 장면에서 자해는 ‘ 좋음’, ‘건강함’의 반대항으로, ‘좋음의 부재’ 또는 ‘불건강’으로 단순하게 재현되지는 않으며, 비극적인 ‘미’로 연출된다. 연구자는 자해와 우울이 소재인 예술적 실천을 일종의 ‘제의’로 간주하였고, 이를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 마치 무질서의 영역에 있다고 취급받는 비체로서의 자해계가 자신들만의 상징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파악하였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제의’는 기존의 ‘미’와 ‘추’의 구도를 교란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질서를 재편성하는 적극적인 행위다. 자해계는 단지 의학적 치료, 심리상담이라는 사적 관리 체계에서 개인으로서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상징 체계의 재구축 과정을 구성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연대한다. 또한, 자해계가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연출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회적 체계 내에서 자아가 손상된 청소년 자해자들이 자해계라는 일종의 대안적이며 회복적인 자아를 재조직해나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오프라인과는 다른 트위터 무대에서 일어나는 대안적 자아 연출은 오프라인에서 쉽사리 말할 수 없는 자해 경험을 정체성 형성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발화하게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자해자가 소통하는 통로가 된다.

트위터가 청소년 자해자의 소통 경로가 된다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자해계의 자기 고통 말하기는 집단 안과 바깥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고 내적인 동일성을 이루며 이들을 집단으로 결사하게 한다. 자해계 집단이 다른 트위터 이용자와 반복적으로 벌이는 “패션자해” 고통 논쟁 그리고 “자해 전 시” 논쟁과 같은 갈등은 자해계와 외부의 경계를 설정하는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고통’이라는 공동 의식을 만든다.

자해계는 이렇게 형성된 집단성 내에서 적극적인 의견교환 과정을 통해 내적인 규범을 형성해 나간다. 자해계 집단은 자해 방법에 관한 질문과 노하우를 나누기도 하지만, 노하우를 나누는 것은 자해를 조장하는 일이기 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 또한 자해를 고통을 표현하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비

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처럼 상이한 입장의 표출과 자해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자해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자해계 집단 안에서 무엇이 바람직하며 또한 어떤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에 관한 내적 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자해계 집단에는 자해를 둘러싼 발화 규범 또는 도덕적 입장들이 있는 것이다. 트위터라는 무대와 자해계 집단이라는 관객 앞에서 개별 자해계는 상황에 맞게 발화해야 하며, 그러한 규범을 지키지 않아 자해계로서 올바른 자아 연출에 실패하는 경우, 그 자해계는 집단에서 쫓겨나고 만다.

집단 내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적절한’ 자해를 토대로 하여, 자해계는 서로를 보듬는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자해계는 학교의 상담 기관이나 병원 등 체계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관리되는 것만이 아니라, 집단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관을 거부하거나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또한 자해계는 감정과 경험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 집단적인 유대를 쌓는다. 이렇게 자해계는 자신을 둘러싼 오프라인 환경에서 얻을 수 없는 친밀감과 상호 돌봄을 온라인에서 나누며 더 나은 삶을 지향하며 생존해간다.

자해계의 내부적인 역동은 청소년 자해를 ‘안정된 현상’으로 고정하려는 기존의 의학 체계의 ‘정상화’ 시도가 포착하지 못하는 이들만의 생존 양식이다. 기존 담론이 자해계가 청소년들에게 ‘가치 판단을 잃게’ 만들며 자해를 ‘전염병’처럼 창궐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자해계는 대안적인 유대 관계를 맺으며 생존해나간다. 자해계 ‘문제’는 트위터에서 자해 자료를 걸러내고 계정들을 차단하여 일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트위터를 통해 형성되는 대안적 자아와 이를 통해 맺은 관계에서 자조적 유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자해계의 활동은 그 자체 설명이 필요하며, 이들의 오프라인에서 삶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청소년 자해를 구조적으로 생산하고 개인화된 치료를 처방하는 체계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인 자해계를 타자로 구성하지만, 이처럼 끊임없이 타자로 구성되는 자해계는 내적 유대를 통해 수동적 관리의 대상에서 서로 유대하는 역동적 자해계로 나타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및 논문>

고프먼, 어빙 (진수미 역), 2016, 『자아연출의 사회학』, 서울: 현암사.

\_\_\_\_\_ (심보선 역), 2018, 『수용소』, 서울: 문학과지성사.

김경중·김명정, “자해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조사”, 『신경정신의학』 21(3): 367-374.

김수진·김봉환, “청소년 내담자의 반복적 자해행동의 의미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231-250.

김지윤·이동훈, “성인의 비자살적 자해 잠재계층유형의 위험요인의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205-1247.

김창호·이미애·이근매, “긍정적 행동지원(PBS)이 중증 자폐성장애 학생의 자해 행동, 자리이탈 행동, 자위 행동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연구』 16(4): 287-306.

김철권·조진석·변탄원, 1992, “비행청소년 반복자해군과 비자해군간의 통각내성치에 대한 Naloxone 효과의 차이”, 『신경정신의학』 31(4): 767-777.

권경인·김지영, 2019,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위기상담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상담자 경험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0(3): 369-393.

노정화, 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더글라스, 메리 (유제분·이훈상 역), 1997, 『순수와 위험』, 서울: 현대미술사.

버틀러, 주디스 (조현준 역), 2008, 『젠더 트러블』, 파주: 문학동네.

\_\_\_\_\_ (강경덕·김세서리아 역), 2019, 『권력의 정신적 삶』, 서울: 그린비.

박경찬, 1986, “한국 청년의 자해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피부과학회』 24(6): 815-820.

박문숙·서영석·안하얀, 2020,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들의 비자살적 자해 실태 및 동기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8(1): 459-491.

박은경·정원미·전종설, 2019, “청소년 도박에 관한 연구 동향”, 『청소년복지연구』 21(1): 103-134.

박제민, 1991, “반복 자해 청소년의 통각 역치”, 『신경정신의학』 30(5): 873-884.

박해광, 2007, “문화 연구와 담론 분석”, 『문화와 사회』 2: 83-116.

박현옥·김정현, 2012, “긍정적 행동지원이 시각장애-지적장애 중복장애학생의 수업시간 중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시각장애연구』 28(3): 69-85.

박홍삼, 1999, “非行靑少年의 身體的 自害行動과 性格特性間 關係: 文身·刺傷·담뱃불 傷痕을 中心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덕희, 2003,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6(2): 55-89.

성요안나·배유빈·김소정, 2019,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국내연구 개관: 2000-2018년 연구들을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9(2): 251-280.

송재홍, 2008, “대학생의 학업 자해행동 예측에 있어서 자애개념 명료성과 성취목표 및 교실목표구조 지각의 역할”, 『한국교육심리학회』 22(2): 35-53.

서찬란, 2005, “가족 환경 요인 및 개인 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손요한, 2020. “청소년 자해 경험 공유의 의미 탐색 -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손자영, 2020, “여자 청소년들의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의미”, 『청소년학연구』 27(1): 55-83.

서미·김은하·이태영·김지혜, 2018, 『고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개입 매뉴얼 : 자살·자해편』,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신성미·권경인, 2019, “‘자해’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상담학연구』 20(6): 273-295.

양계민·황순택, 2008,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2): 333-358.

원종례, 2002,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이 자폐학생의 자해 및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Communication Science & Disorders』 7(3): 252-272.

유제분, 1996, “메리 더글라스의 오염론과 문화 이론”, 『현상과인식』 20(3): 47-63.

이길홍·박두병·이재광·민병근, 1986, “청소년 음주와 자해와의 관계 분석”, 『한국의과학』 18(2): 129-139.

이동훈·양미진·김수리, 2010, “청소년 자해의 이해 및 특성에 대한 고찰”, 『청소년상담연구』 18(1): 1-24.

이문영·배용순, 2020, “청소년 자해 관련 연구 동향”, 『학교사회복지』 50: 53-79.

이수정, 2019, “청소년의 SNS 중독경향성이 자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은주·이미나, 2019,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KCI국내학술지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3): 707-716.

이춘근, 2005, “가정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애착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경문·김혜경·백운진·이운주, 2020, “청소년 자해에 관한 연구동향”, 『인문사회21』 11(1): 717-731.

임현택·민병근, 1982, “비행청소년의 자해행위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中央醫學誌』 7(1): 47-56.

장윤원, 2020, “20-30대 여성 우울증과 페미니스트 대항서사의 가능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전혜은, 2008, 『섹스화된 몸』, 서울: 새물결.

정상근·두재균·유상은·김영현, 1991, “문신 및 자해행위에 관한 연구(I) : 인구통계학적, 개인적 특성”, 『全北醫大論文集』 15(3): 290-298.

정연이, 2018,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에브젝트(bject)개념 연구: 현대미술에 나타난 여성의 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운정, 2000, “남자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개인 및 가족관련 변인”,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진혜민·공정원, 201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논문 고찰”, 『청소년 문화포럼』 57: 171-195.

최진혜, 2000, “청소년의 부모상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현정·신민섭·이훈진, 2007, “성매매 여성의 해리 경험에 대한 기능적 분석”, 『인지행동치료』 7(2): 37-62.

크리스테바, 줄리아 (서민원 역), 2001, 『공포의 권력』, 서울: 동문선

키틀러, 프리드리히 (유현주·김남시 역), 2019, 『축음기, 영화, 타자기』, 파주: 문학과지성사.

푸코, 미셸 (오생근 역), 2003a, 『감시와 처벌』, 파주: 나남.

\_\_\_\_\_ (이규현 역), 2003b, 『광기의 역사』, 파주: 나남.

\_\_\_\_\_ (이규현 역) 2010, 『성의 역사』, 파주: 나남.

한상철, 1999, “가출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행동”, 『慶山大學校 論文集』  
17(1): 35-61.

홍정화, 2013,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과 적용 가능성 탐색”, 『정책분석평  
가학회보』, 23(1): 223-26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ition(DSM-5)』, Washington, DC:  
Author.

Arendt, Florian · Scherr, Sebastian · Romer, Daniel, 2019, “Effects of  
exposure to self-harm on social media: Evidence from a two-wave  
panel study among young adults”, 『*new media & society*』 21(11-12):  
2422-2442.

Cohen, P. Anthony, 1985, 『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  
New York: Routledge.

Hilton, Charlotte Emma, 2016, “Unveiling self-harm behaviour: what  
can social media site Twitter tell us about self-harm? A qualitative  
exploratio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6: 1690-1704.

Lavis, Anna · Winter, Rachel, 2020, “#Online harms or benefits? An ethnographic analysis of the positives and negatives of peer-support around self-harm on social media”,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1(8): 842–854.

Miguel, Elizabeth M. · Chou, Tommy · Golik, Alejandra · Cornacchio, Danielle · Sanches, Sanchez, L. Amanda · DeSerisy, Mariah · Comer, Jonathan S., 2017, “Examining the scope and patterns of deliberate self-injurious cutting content in popular social media”, 『*Depress Anxiety*』 34: 786–793.

## 〈간행물〉

『국민일보』, ““유행처럼 번지는 청소년 ‘자해 인증샷’ ... 막아주세요” 정신과 의사의 호소(박지현), 2018. 7. 25일자

『조선일보』, “‘자해(自害)’ 가르치고 배우는 청소년들... 인증샷 넘쳐나는 SNS”(김우영), 2019. 5. 12일자.

『한겨레』, “‘자해계’ 운영하는 ‘자해러’ 아시나요?”(이재호), 2018. 11. 12일자.

『한겨레21』, “[단독] 중고생 7만여명 ”자해 경험” ... 우리 아이는 상관없다고요?”(이재호·전정윤), 2018 11. 10일자.

『EBS NEWS』, “〈스쿨리포트〉 청소년 사이에서 번지는 ‘SNS 자해 인증’”(한인희), 2018. 10. 23일자.

## 〈법규〉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12. 20.]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74호, 2012. 12. 20., 제정].

## Abstract

# Self-Help Solidarity among Self-Harming Adolescents - In the Case of “Jahaegye” on Twitter -

Shin, Kyungjun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nalyzes the twitter activity of a group of self-harming adolescents, exploring self-harming adolescent solidarity and the alternative survival methods it provides, which are not captured in conventional discourse on the issue. The researcher begins by using discourse analysis methods to depict the historical and present geography of the intellectual discourse that manages adolescent self-harm. The researcher goes on to analyze the tweets, or speech acts, of “Jahaegye (self-harm accounts),” a space in which self-harming adolescents express their identity as a group. Through this analysis, the researcher examines the historical formation of Jahaegye and their configuration as a self-help group of self-harming adolescents who exchange mutual care on the basis of Jahaegye identity.

In the scholarly discourse of the 1980s and 1990s, adolescent

self-harm was portrayed as an aspect of delinquency, and self-harming adolescents as objects of guidance. As a result, the targets of studies focusing on adolescent self-harm in this period were understood as a particular “delinquent group.” In the 2000s, mainstream research began to view self-harm as an effect, and to investigate its causes. In this period self-harm was no longer perceived as delinquency, but as more value-neutral “problem behavior.” However, in terms of methodology, researchers continued to treat research subjects as a specific “maladaptive” group, showing a similar tendency to previous periods. In the 2000s, discourse on the “problem” of adolescence increased explosively, reflecting the perception that adolescents represent the future of the society, and must therefore develop “healthily.” As this perspective on the necessity of protecting adolescent health emerged, the intellectual discourse of the 2010s into the present has viewed self-harm as a pathological phenomenon, and has concentrated around the development of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networks to treat and prevent it. Therefore, the target of self-harm research has shifted from a specific problematic group as in the past, to the entirety of adolescents in general as potential self-harm patients, and mainstream research currently advises the preparation of safety-nets to catch these patients.

The shift from viewing self-harm as a particular group issue to a general pathological phenomenon is especially well illustrated in research of the 2010s by statistical assessments of the proportion of self-harming people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based on the quantitative concept of a “self-harm prevalence rate.” A result of this quantitative assessment in the form of prevalence rates is the proposal of treatment and counseling for self-harm at the personal level. In this period in particular, adolescent self harm has been viewed through full-student-body evaluations, a method combining quantitative assessment and personal treatment, and the individualization of the adolescent self-harm phenomenon has become polic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individual counseling systems for self-harming adolescents.

After reviewing the policy apparatus that materializes the strata of intellectual discourse surrounding adolescent self-harm, this thesis examines the relational character of reactions and responses to this apparatus by self-harming adolescents who have formed an identity through tweeting on Jahaegye. Tweets about self-harm and depression on Jahaegye are concentrated in times when they are most likely to be seen by Twitter friends, and self-harming adolescents use the like and mention features to participate there, in a ceremony of empathy. The Jahaegye formalize the speaking of pain as artistic practice through aesthetic expression such as poetic writings about depression or the display of decorated self-harm photos. This artistic practice is a form of abjection, a ritualistic scene in which the self-harming person's internal 'chaos' and 'ugliness' are transfigured into 'beauty.' Jahaegye also display information in their introductory tweets indicating whether they smoke or drink, have withdrawn from school, or have been hospitalized or received treatment, and expressing themselves by naming their illness, in order to construct a Twitter identity that refracts the conventional discourse. This recontextualization through refraction of the intellectual discourse avoids the stigmatization brought on by violating conventions. The ceremony of empathy for self-harm and depression, the ritual of artistic practice, and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which reappropriates conventional discourse illustrate that the Jahaegye and their state of abjection exist to construct some kind of order and form of cultural speech.

The coalescence of Jahaegye into a group is revealed in repeated conflict with other Twitter users and the expelling of members who violate the internal conventions of the Jahaegye group. Conflicts and controversies such as the "fashion self-harm" controversy, in which Jahaegye were accused of being fake self-harm for the sake of attention, or the "self-harm exhibition" controversy, which argued that it was wrong to post images of self-harm on twitter for others to see, operate as events that develop the internal shared consciousness of the Jahaegye and establish boundaries with the outside. The group speech acts of rejecting and prohibiting sexual approaches to the Jahaegye, as

well as group restrictions on actions which use self-harm to harm others, illustrate the existence of specific moral conventions within the Jahaegye group, as well as forming the means by which those conventions are reproduced.

On the basis of this constructed group identity, Jahaegye form a self-help solidarity through invocations of pain and exchanges of comfort. Because access to treatment facilities and the possibility of forming relationships of support is limited among self-harming adolescents, they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rough alternative identities and group solidarity on Jahaegye. Among the Jahaegye there are no interpretive authorities on mental pain, like doctors or therapists, so the mutual care here is relatively horizontal and spontaneous. Moreover, the Jahaegye provide a space to exchange experiences with the apparatus of student-body assessments, counseling services, and hospitals and the effects these policies have on the lives of self-harming people, thereby organizing contrasting attitudes and behavior patterns in relation to these apparatuses.

This differs from the opinion that Twitter and other SNS system restrictions and safety policies must be utilized to remove the Jahaegye because Jahaegye's publicly sharing of self-harm experience leads to the "spread" of self-harm among "impressionable" adolescents. On the contrary, Jahaegye offer an alternative survival method that is not captured in the discourse surrounding self-harming adolescents or the apparatus composed through that discourse. Self-harming adolescents who are constructed as other by that discourse and apparatus reemerge not as passive objects of administration but as the dynamic, solidaristic Jahaegy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of the discourse/apparatus and Jahaegye in this way, while depicting a group of abject being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lternative cultural spaces and forms of speech.

**Keywords: Self-harm, Adolescent, Twitter, Discourse, Abjection**

**Student number : 2017-23777**